

길 위의 학교  
마음이 움직이다  
공부, 평생토록 해야 할 일  
관점과 논평

마음을 다 닦았습니까? — 충남 서산과 예산  
길의 끝, 마음의 시작 — 토호쿠 기행  
수양의 강의록  
Walk the Line, 문화의 경계를 넘어

보  
보  
담

WALK&TALK 步步譚



SUMMER 2011  
ISSUE 001



WALK & TALK

步步譚

보  
보  
담

SUMMER 2011  
ISSUE 001

보보담(步步譚)은  
걸음걸음 이야기를 나눈다는 의미입니다.

몸을 움직여 걸음으로써 마음이 자라고  
뜻과 생각을 이야기하면서 세상이 달라집니다.  
걷고 말하고 생각하며, 꿈꾸고 성장합니다.  
그리고 함께 나눕니다.



20세기는 앞만 보고 달렸던 양적 성장의 시대였습니다. 에릭 홉스봄의 표현처럼 20세기가 '극단의 시대'가 된 것은 어쩌면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저마다 목표를 향해 앞만 보고 달렸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 덕분에 문명은 빠른 속도로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경쟁, 갈등, 대립으로 변진 부작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나아가는 21세기는 양적 성장을 넘어 질적 성장을 추구합니다. 홀로 달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걸어가는 방법을 고민합니다. 걷는다는 것은 효율과 속도, 경쟁을 강조하는 대신 다양성과 여유, 공생의 가치에 주목합니다. 스스로를 대면하는 여유, 주변을 살피는 배려, 과정을 즐기는 성숙함, 실패에 좌절하지 않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단단한 몸과 마음이 모두 그 안에서 자랍니다. 속도를 줄이고 방향을 점검하는 시간, 일상의 궤도에서 벗어난 색다른 경험들이 모여 삶의 궤도를 이탈하지 않고 먼 길을 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워크 앤 토크, 즉 '걸으면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움직이며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몸과 정신은 따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이론과 실천의 겸비를 강조하는 말입니다. 지식의 양이 그 자체로 의미를 지니는 때는 지났습니다. 스스로에게, 또 서로에게 묻고 답하는 과정을 거쳐 체화(體化)한 지식, 즉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몸을 움직이는 까닭을 찾기 위해서는 정신의 가치를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워크와 토크의 가치이며, 『보보담』에 담고 싶은 이야기들입니다.

함께 걷고 이야기 나누며 멀리, 오래도록, 더불어 성장할 수 있길 바랍니다.

발행인  
구자열

구 자 열

Contents

<b>WALK 01_길 위의 학교</b> .....	<b>005</b>
마음을 다 닦았습니까? 충남 예산과 서산 .....	006
첫 번째 여정 : 예산 수덕사 .....	010
두 번째 여정 : 서산 해미읍성과 향교 .....	013
세 번째 여정 : 서산 개심사 .....	015
네 번째 여정 : 서산 마애삼존불과 보원사지, 예산 사면불 .....	016
다섯 번째 여정 : 예산 추사고택 .....	019
<b>WALK 02_마음이 움직이다</b> .....	<b>023</b>
길의 끝, 마음의 시작 — 토호쿠 기행 東北紀行 .....	024
토호쿠의 예술가 .....	028
시대와 격투한 사진가가 있다—도몬 켄 .....	028
나무 위에 새긴 마음, 마음—무나카타 시코 .....	030
나의 직업은 테라야마 슈지입니다—테라야마 슈지 .....	032
북방의 하늘과 땅, 그 사이 사람—코지마 이치로 .....	034
토호쿠의 미술관들 .....	036
아오모리 현립미술관 .....	036
도와다시 현대미술관 .....	037
데와자쿠라 미술관 .....	038
다자이 오사무 기념관 <샤요칸> .....	039
추손지 .....	040
<b>TALK 01_공부(工夫), 평생토록 해야 할 일</b> .....	<b>041</b>
옛 선비의 수양론 .....	043
마음이 몸의 주인 — 퇴계의 『활인심방』 .....	049
서로 다른 방향의 수양록 — 『삼강행실도』와 『성학십도』 .....	052
조선의 임금올 만든 몸과 마음의 교육 .....	055
사무라이의 수양, 무사도 .....	060
공자에서 소림사까지 — 중국의 다양한 수양론 .....	066
<b>TALK 02_관점과 논평 Walk the Line, 문화의 경계를 넘어</b> .....	<b>073</b>
천천히 읽기 위하여 .....	074
정진홍—잘난 논의, 못난 논의 .....	074
노래歌 사람인 대중가요 이야기 .....	078
이준희—조선 가요계를 풍미한 마이더스의 손, 이철 .....	078
컬러 파워, 지루한 세상에 도전하라! .....	082
이혜주—무채색 도시에 색을 입히다 — 아일랜드의 동화 속 마을 킨세일 .....	082
근대를 만든 베스트셀러 .....	086
권보드래—하늘은 정말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가? — 스마일즈의 『자조론』 .....	086
과학과의 화해 .....	090
이충웅—아이들에게 기술을 가르치자 .....	090
스포츠 스포일러 .....	094
서형욱—맨체스터 시티, 새로운 명문 구단의 탄생은 가능할 것인가 .....	094
안녕하세요 디자인입니다 .....	098
이지원—기업은 디자이너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나? .....	098
<b>and_아웃도어 리포트</b> .....	<b>103</b>
아웃도어 인사이트 1 .....	104
가벼운 길에서 가벼운 마음으로 — 아웃도어 제품의 경량화 .....	104
아웃도어 인사이트 2 .....	108
이곳에서 여행이 시작된다 — 도보 여행의 모든 것, 워렌북 .....	108

몽벨은 LS네트웍스의 가족입니다



**MONT-BELL.**  
**PROVE. 185G**

185g의 초경량, 12데니어 고어자켓  
몽벨의 기술이다

**mont-bell**  
*Light & Fast*

# 전 세계 아웃도어 TOP브랜드가 다 모였다-웍앤틱톡

신발, 의류, 배낭, 침낭에서 살아있는 여행정보까지-  
아웃도어 전문가들이 선택한 전 세계 100여 개 아웃도어 브랜드, 이제 웍앤틱톡에서 만나세요!

**OR** 아웃도어 리서치

1980년 알래스카에서 탄생한 고기능 아웃도어 브랜드  
고어텍스 소재로 오랫동안 이용해도 쾌적함을 유지하는  
고기능 모자 브랜드, 스키, 등산 등 다양한 아웃도어를  
즐거는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제품

**콜맨 Coleman**

1899년 미국에서 탄생한 110년 전통의 레저용품 브랜드  
자연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과 그 가치를 나누는 산책으로, 캠핑, 텐트,  
랜턴 등 가장 완벽한 레저 용품만을 공급하여 전세계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캠핑 용품 브랜드

**GREGORY** 그레고리

1977년에 미국에서 탄생한 전 세계 3대 배낭 브랜드  
내구성이 뛰어나고, 재질이 가벼운 소재를 사용하는  
것이 특징. 착용감이 편안한 인체공학적 제작 설계로  
배낭 브랜드 시장을 리드하는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

**픽퍼포먼스 PeakPerformance**

1986년 스웨덴에서 탄생한 스타일리시 아웃도어 브랜드  
고품질, 고기능의 스키웨어에서 액티브라인, 캐주얼라인까지  
세련되고 절제된 디자인으로 북유럽에서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스웨디시 브랜드

**MEINDL** 마인들  
Shoes For Actives

독일 300년 전통 장인 정신의 고급 등산화 브랜드  
착용감, 무게, 안정감, 미끄럼 방지와 발의 체온을 조절하는  
새로운 혁신적 기술로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오랜 전통의 등산화 브랜드

**오들로 odlo**

1946년 스위스에서 탄생한 기능성 이너웨어 브랜드  
완벽한 보온성과 편안함을 제공하여 냉혹한 환경 속에서도  
스포츠를 즐기는 전문가들이 가장 신뢰하는  
기능성 스포츠 이너웨어 브랜드

**레키 LEKI**

1948년 독일에서 탄생한 세계적인 명품 스틱 브랜드  
'훌륭한 산악인의 조건은 살아남는 것이다' 라고 말했던 라인홀트  
메스너가 히말라야 14좌 완등했을 때의 스틱으로, 첨단 소재와  
최고의 기술력을 통해 전 세계 산악인과 스키어들이 사랑하는 브랜드

WALK 01



해미향교  
2.에.7. 정경

## 길 위의 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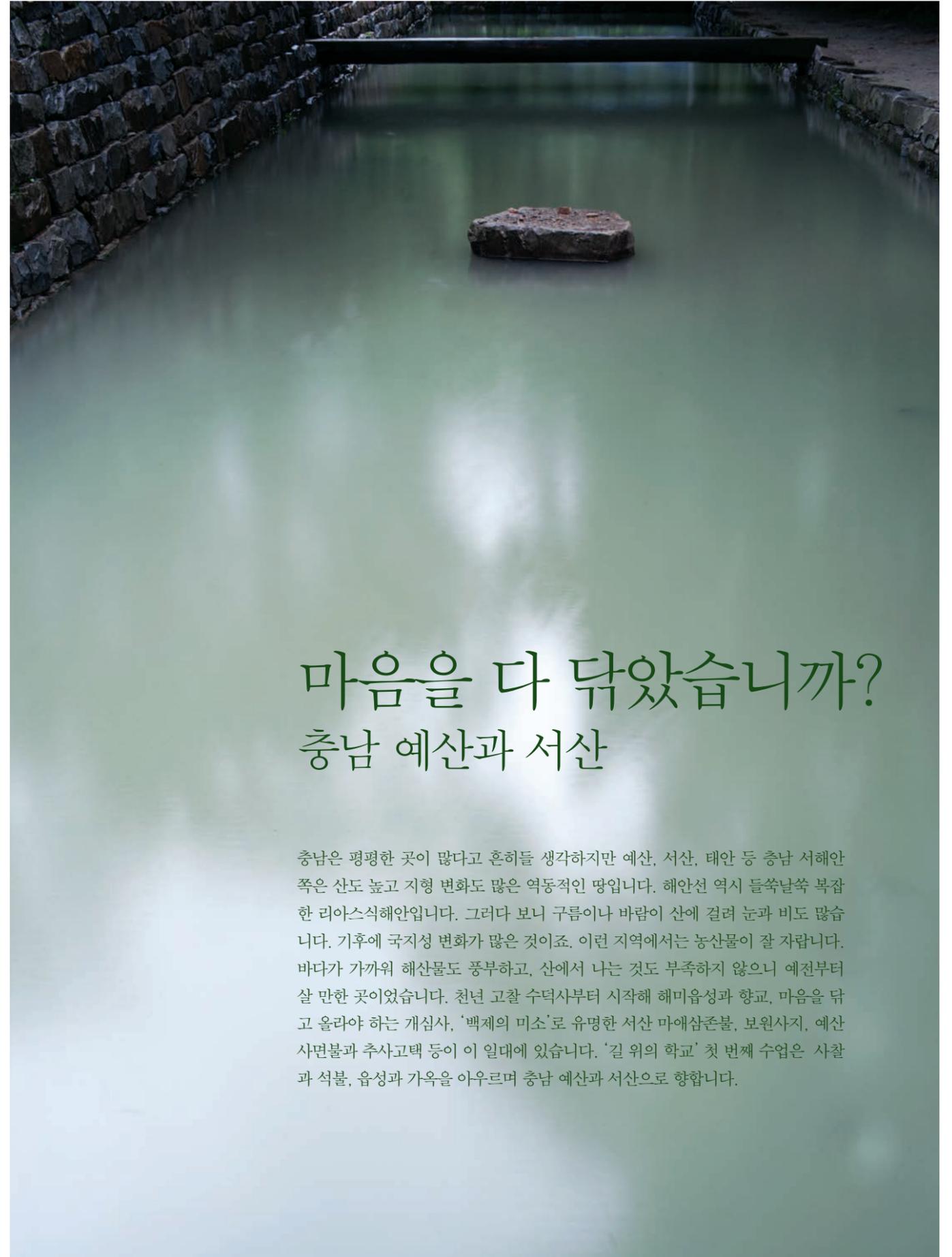
‘길 위의 학교’는 우리 땅과 역사, 그리고 그 속에 담긴 문화를 읽는 안목을 기르기 위해 마련한 자리입니다. 특정한 장소가 놓인 자연과 지리를 살피면서 옛사람들이 어떤 역사적 풍경을 만들었는지 찾아보려 합니다. 우리 건축 답사의 대가, 최종현 교수와 함께 길을 떠납니다.

아웃도어 라이프 멀티브랜드숍-웍앤틱톡 WALK & TALK

옛 선비들은 높은 곳에 올라 풍광을 보며 호연의 기를 키우고  
시를 읊으며 벗과 교류했습니다. 그러다 경계 좋은 곳 바위에는  
각자를 새겨 넣기도 했습니다. 자연을 마주하며  
그곳에서 배우고 자랐습니다. 산수는 옛사람들의 학교였습니다.  
그 산수 가에 집을 짓고 원림을 꾸밀 때도 자연히 먼저 땅을 읽고  
이해하려는 자세가 우선되었습니다. 그래서 옛 건축을 보노라면  
자연스레 우리 땅을 읽고 보는 법을 익히게 됩니다.

詩  
景

추사고택 근처 화암사 뒷산의 바위. '시경'이라는 각자가 새겨져 있어  
선비들이 놀던 자리임을 알 수 있다.



## 마음을 다 닦았습니까? 충남 예산과 서산

충남은 평평한 곳이 많다고 흔히들 생각하지만 예산, 서산, 태안 등 충남 서해안  
쪽은 산도 높고 지형 변화도 많은 역동적인 땅입니다. 해안선 역시 들쭉날쭉 복잡  
한 리아스식해안입니다. 그러다 보니 구름이나 바람이 산에 걸려 눈과 비도 많습  
니다. 기후에 국지성 변화가 많은 것이죠. 이런 지역에서는 농산물이 잘 자랍니다.  
바다가 가까워 해산물도 풍부하고, 산에서 나는 것도 부족하지 않으니 예전부터  
살 만한 곳이었습니. 천년 고찰 수덕사부터 시작해 해미읍성과 향교, 마음을 닦  
고 올라야 하는 개심사, '백제의 미소'로 유명한 서산 마애삼존불, 보원사지, 예산  
사면불과 추사고택 등이 이 일대에 있습니다. '길 위의 학교' 첫 번째 수업은 사찰  
과 석불, 읍성과 가옥을 아우르며 충남 예산과 서산으로 향합니다.



강의 최종현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정리 편집부  
사진 어상선 (어린 스튜디오)

함께하신 분들  
민정기 (화가)  
성재혁 (국민대학교 시각디자인학과 교수)  
금선희 (다큐멘터리 영화감독)

**최종현** '길 위의 학교'를 이끌어 줄 최종현 교수는 1945년 만주 봉천에서 태어나 서울에서 살아왔습니다. 한양대학교에서 건축을 공부했고 현재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이자 통의건축도시역사연구소 대표로 있습니다. 서양 건축사에서 비롯된 그의 학문적 관심은 조경에서 한국 건축사, 한국 및 동서양 도시 역사 등으로 옮겨왔고 평생 이 분야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해왔습니다. 1970년대, 새마을운동으로 우리 땅 곳곳이 파괴되는 상황에서 그는 해외 유학 대신 국내 건축 답사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고지도와 실록 등의 문헌 연구와 답사를 통해 지형을 읽고 건축과 문화를 이해하는 독창적인 이론을 정립했습니다. 또 오랫동안 민학회 건축 답사를 통해 수많은 답사 전문가와 연구자들을 키웠고, 서울학연구소와 함께 서울 도시에 대한 많은 전문 자료를 발간했습니다. 대중 저작을 남기거나 강연을 하는 대신 '공부할 시간도 모자란다'며 정년의 나이에도 연구에 몰두하는 그가 『보보담』을 위해 '길 위의 학교'라는 특별한 수업을 시작합니다.



01

첫 번째 여정: 예산 수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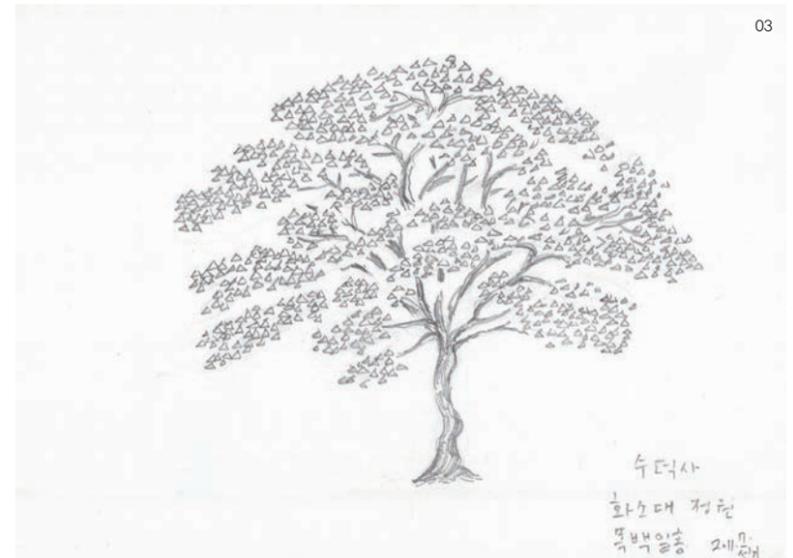
오래가려면 느슨해야 합니다

오늘의 수업은 수덕사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수덕사는 지은 지 천 년이 넘은 절입니다. 고려 목조 건물이 남아 있는 사찰로 흔히 이곳 수덕사와 안동 봉정사, 영주 부석사를 이야기합니다. 같은 고려 때 것이라도 부석사 무량수전은 여성적인 느낌이 강한 데 비해 여기 수덕사 대웅전은 강인하고 건강한 느낌이 나죠. 고려 시대 것 중에 가장 건강한 느낌입니다. 전체 구조나 나무를 쓴 모양새도 굉장히 아름답고요.

먼저 대웅전 아래 장대석부터 보세요. 돌들의 크기가 다 다르죠? 게다가 돌과 돌 사이가 엉성해서 틈이 있습니다. 대충 맞춘 것 같나요? 그런데 여기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도 비가 오는데요, 이 빗물이 어디로 갑니까? 엉성한 돌 틈으로 물이 흘러나오고 있죠. 대웅전 올라오는 길에 최근에 새로 조성한 계단이 있습니다. 계단 돌들이 제자리에서 다 밀려나 있는 걸



01. 수덕사 대웅전(국보 49호). 1937년 완전 해체하여 수리를 하다가 1308년의 건립 기록이 적힌 문서가 발견되어 정확한 건립 연대를 알 수 있게 되었다. 02. 대웅전 아래편의 장대석.



03

보셨습니까? 요즘은 이런 계단을 만들 때 지형과 기후에 대한 고려 없이 무조건 아귀가 딱 맞게 합니다. 그게 더 쉽죠. 그러다 보니 비가 내리면 토압에 의해 계단이 터지고 밀려나는 겁니다. 우리는 과거보다 현대 토목 기술이 더 낫다고 생각하지만 꼭 그렇진 않습니다. 어떤 점에서는 옛사람들만큼의 지혜가 없어요. 이 대웅전은 본래 지형을 깎아 흙을 쌓은 위에 지은 것입니다. 이런 경우 흙과 물의 압력을 견디기 위해선 장대석이 느슨해야 합니다. 그래야 오래갑니다. 자연을 보는 눈이고, 건물을 짓는 지혜입니다.

이제 대웅전 건물을 봅시다. 고려 때 건물은 호화롭기보다는 웅장합니다. 고려 시대 건물 중에서도 여기가 가장 단순합니다. 창살 문양도 한 종류로 단정하지요. 정면에서 보면 지붕이 건물보다 좌우로 길게 빠져 있지요? 지붕선이 짧은 건물은 비바람이 옆에서 들이쳐 건물이 상할까 봐 측면에 나무로 풍벽을 만들곤 합니다. 이런 경우는 옆에서 볼 때 시야가 막혀 답답하죠. 하지만 수덕사 대웅전은 지붕 선이 길어서 풍벽이 필요 없으니 측면이 아주 경쾌합니다. 구조가 명쾌하고 단정해요.

흔히 이 대웅전을 정면 3칸, 측면 4칸 건물이라고 하는데, 저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측면을 언뜻 보면 4칸처럼 보이지만, 가운데 기둥은 건물이 커서 보가 훑 것 같으니까 보조로 세운 게 아닐까 합니다. 범당 안쪽에서 보면 다른 기둥들과 달리 가운데는 기둥이 없어요. 밖에서도 '이건 진짜 기둥이 아니다' 하고 알 수 있도록 가운데 기둥만 유독 각지게 되어있어요. 이 기둥이 있어서 밖에서 보기에 대웅전 건물의 비례가 맞아떨어집니다. 역학적으로도, 시각적 균형 차원에서도 훌륭해졌지요.

건물 뒤편으로 가볼까요? 나무판자로 막아 놓은 문 같은 게 있습니다. 요즘에는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나오는 걸 범당 옆문을 통해서 하죠. 하지만 예전엔 그런 경우 범당 뒤로 들어갔습니다. 정면으로 들어가는 건 부처님께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범회가 있을 때 큰스님만 정면으로 드나들 수 있었습니다.



04



05

03. 수덕사에 가면 큰절뿐 아니라 주변의 작은 암자도 둘러볼 만하다. 수덕사 바로 옆 작은 암자 화소대(花笑臺)에서 만난 목백일출 한 그루를 민정기 화백이 그렸다. 화소대라는 이름은 부처와 제자 마하가섬이 한 송이 연꽃을 주고받으며 깨달음을 전한 '염화시중의 미소' 이야기에서 따왔다. 04. 수덕사 대웅전 뒤편. 공양 예물 등을 가지고 드나들던 출입문을 널빤지로 막아버렸다. 05. 대웅전 건물 측면. 5개의 기둥 대부분이 원기둥 형태를 띠고 있는데 비해 유독 가운데 기둥만 각재로 곧게 다듬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맥락은 왕이 조회를 하던 궁궐 정전(正殿)에도 이어집니다. 정전은 앞에서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건물 뒤쪽을 이용했죠. 그래서 창덕궁 인정전 뒤쪽에 회랑이 있는 것입니다. 임금이 월대(月臺)를 통해 정전으로 출입하는 건, 신하들을 모아놓고 조회를 하든지 가마를 타고 나갈 때처럼 특별한 경우였습니다. 그런 옛사람들의 예의와 규칙을 모르니까 아무 설명 없이 편의를 위해 이렇게 덜컥 범당 뒷문을 막아버린 겁니다. 옛 문화가 갖고 있는 깊은 의미를 그냥 날려버리는 거지요. 참 아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정교한 측량 도구가 없었을 때는 어떻게 건물의 터를 잡고 방향을 맞추었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여기에 우리 건축을 보는 핵심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건축의 정면성(正面性)입니다. 정면성이란 흔히 서양 건축물을 볼 때 쓰는 용어인데 말 그대로 '정면에서 바라본 방향이 갖는 가치'를 뜻합니다. 서양 건축에서는 건물의 4면 중 한 면, 대개 '파사드(façade)'라 부르는 주출입구 정면부에 특별한 가치와 방향성을 부여합니다. 부조나 조각 같은 장식으로 파사드를 아름답게 표현해서 정면성을 강조하죠. 서양 건축에서 정면성은 인간이 건축물 '바깥'에서 그 건축물을 바라봄을 전제로 합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궁궐이나 종교적인 건물을 제외하면 건축물의 어느 한 방향에 중심 지위나 가치를 부여한 예가 거의 없습니다. 대신 건물의 중심과 그곳에서 본 사방이라는 개념이 중요합니다. 건물을 밖에서 보는 게 아니라, 인간이 건축물 내부에 자리를 잡고 건축과 하나가 되어

주위 환경과 관계를 맺는 게 기준이었죠. 특히 우리나라 건축의 경우는 산과 산봉우리가 마주 대하는 연결선을 건물의 중심축으로 삼은 것이 특징입니다. 주변에 마주 보는 산이 없어 산과 산을 잇는 축이 생기기 어려우면 산과 물을 잇고, 물도 마땅치 않으면 나무를 심어 산과 나무를 연결한 선상에 건물을 배치하기도 했죠. 이 원칙이 우리 건축의 입지를 정하는 데에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서양과는 다른, 우리 건축의 정면성이라고도 할 수 있죠. 경사가 진 곳에서는 중요한 건물일수록 높은 곳에 앉히는 것 역시 원칙입니다. 사찰이라면 대웅전이나 본당, 민가에선 사당이 제일 높은 곳에 있는 식이지요. 제대로 지은 우리 옛 건축들은 거의 다 이런 정면성 원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옛 건물을 볼 때엔 경치만 볼 것이 아니라 건축물이 어떤 축선을 따르고 있는지 살펴보세요. 건물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앞뒤로 선을 그어보면 마주 보고 있는 산봉우리가 있을 겁니다. 경주 황룡사지에 가면 이 원칙이 구현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황룡사 중심에서 앞뒤 좌우로 선을 그어 보면 각각 대응하는 자연물이나 중요 시설이 있습니다. 황룡사 좌우로 선도산과 명월산, 앞으로는 남산 칠불암, 뒤로는 사면불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발견할 때마다 옛 건축을 읽는 재미를 느낄 수 있지요.



06. 수덕사 대웅전 앞에서 강의를 듣고 있는 '길 위의 학교' 참가자들. 07. 해미향교에 대해 설명 중인 최중현 교수. 08, 09, 10. 해미읍성 안의 감옥, 원형으로 둘러쳐진 담을 확인할 수 있다. 담 안쪽으로는 너른 마당을 두고 건물을 지어 옥사(獄舍)로 사용했다. 허술하게까지 보이는 외관에서 옛 감옥의 기능이 지금과 달랐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네 옛 감옥은 심문과 조사, 판결이 끝나기까지 일시적으로 가두어두는 곳이지 장기 구금을 목적으로 한 공간은 아니었다고 한다.



## 두 번째 여정: 서산 해미읍성과 향교

### 우주를 담은 감옥, 우리식의 인본주의

수덕사에서 우리 건축의 입지 원칙을 설명하느라 이야기가 좀 길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속도를 내야겠네요. 해미(海美)로 가 보죠. 해미는 태종 7년(1407)에 정해(貞海)와 여미(餘美) 두 현을 병합해 만든 고읍입니다. 원래의 해미읍성은 지금 자리보다 더 바다 쪽에 있었는데 고려 말부터 왜구의 침입이 끊이지 않자 읍성을 내륙 쪽인 현재 위치로 옮겼습니다. 해미읍성만이 아니라 지금 관광지로 유명한 고창읍성, 낙안읍성 등도 새롭게 옮긴 것이지요. 해미읍성처럼 왜구를 피해 옮긴 읍성들은 유사시 민가들이 읍성 안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담이 높습니다. 여기 해미읍성의 높이는 20척, 지금 기준으로 약 5미터 정도 됩니다. 사실 방어용이 되기엔 여전히 그리 높지 않죠. 여러분이 보기에라도 사다리만 걸치면 쉬이 넘을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성벽의 발달 과정을 보면 대포의 발달과 관계가 깊습니다. 중국에서는 원나라 때부터 성을 공략하기 위해 화포를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화포 기술이 발달해 사정거리가 늘어나면 성벽도 점점 높아지고 해자도 넓어집니다. 그러다 사정거리가 아예 확 늘어나면 어느 순간 성벽은 무용지물이 돼버리지요. 그러니까 여기 해미읍성 같은 경우는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나'라는 정도의 높이로 쌓은, 일종의 상징 장벽인 셈이지요.

해미읍성에는 동헌, 객사, 감옥, 민가 등의 자리가 남아 있어서 읍성 구조와 기능을 추측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우선 동헌 앞쪽으로 동그랗게 담을 두른 곳이





감옥입니다. 우리나라 엽전 있지요? 그 엽전이 우주를 상징합니다. 하늘을 상징하는 동그라미 안에 땅을 상징하는 네모를 넣은 것이지요. 천원지방(天圓地方)의 우주관입니다. 감옥도 마찬가지로였습니다. 원형으로 담을 쌓고 그 안에 네모난 건물을 지었습니다. 감옥에까지 우주를 담은 것이지요. 너만의 작은 우주에 들어가 생각을 해라, 사색을 해라 그런 뜻입니다. 형벌도 지금과는 차원이 다르지요? 지금의 감옥 형태는 유럽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관리하고 감시하는 사람의 시각이 중심이 된 구조지요. 우리 감옥은 담부터 둥글둥글하고 들어앉아 있어도 하늘이 보입니다. 그러면 왜 나는 세상을 모나게 살았나 반성도 하게 되는 거지요. 그게 우리식 인본주의인 겁니다.

수덕사에서 대웅전 뒷문을 막아 놓은 것과 새로 만든 계단 이야기를 했지요? 여기도 동헌의 담을 좀 보세요. 원래는 크기가 다른 자연석들을 모양 그대로 살려서 담을 올렸을 겁니다. 그런데 현대에 복원하면서 동헌 정면 쪽 담은 네모반듯하게 다듬은 사괴석을 쌓아 이어 놓았어요.

사괴석 담은 조선 숙종 이후에 발달했습니다. 단단한 돌을 마음대로 다룰 수 있을 만큼 도구들이 발달한 이후 시작된 겁니다. 게다가 왕실이나 지체 높은 이들의 집이나 들렀던

것으로 아무 테나 쓰지 않았어요. 그런 맥락을 모르니, 그저 보기 좋다는 생각에 현대에 복원하는 전통 담마다 사괴석 담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괴석 담을 제대로 하자면 공력을 들여서 돌들의 크기를 가지런하게 일정히 맞춰야 합니다. 지금 보이는 담처럼 들쭉날쭉하게 쌓으면 안 되죠. 역사적 맥락도 없고, 공도 들이지 않고, 총체적 난국이지요.

이제 해미향교로 갑시다. 해미향교는 올라가는 길이 참 좋지요. 양쪽으로 오래된 나무들이 서로 어우러져 아주 잘 자랐습니다.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잘 심었던 것이지요. 이 나무들은 향교로 들어가는 일종의 진입로인 동시에 문 구실을 했던 겁니다. 신성한 배움의 공간과 세속의 일이 벌어지는 공간 사이에 경계를 지은 거지요.

향교는 대개 이곳처럼 읍성 밖에 둥니다. 향교는 유학의 성현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곳인 한편 미래의 꿈나무들이 공부를 하는 곳이지요? 그러니 읍성 담장 안에 가두지 않고 이렇게 풍광이 좋은 곳에 자리를 잡았어요. 해미향교 역시 대성전에서 내려다보면 남향으로 읍성과 수려한 경치가 보이지요. 향교에는 작게라도 누각이 있게 마련인데 이 누각 이름에 보통 바람 풍(風)이나 변할 화(化)를 많이 썼습니다. 이 글자에 담긴 뜻이 멋있는 게, 세상의 변화를 보라는 겁니다. 단지 자연의 변화뿐 아니라 세속이 변하는 것을 관찰하라는 말이지요. 지금은 어떤가요? 도시에 가면 아파트 단지나 큰 건물에 포위당한 학교들이 많습니다. 세속은 고사하고 계절 변화도 보기 어려워요. '자연을 탐닉하고 세상 변화를 관찰하고 그렇게 커서 공부한 것을 세상에 펼쳐 보여라' 하는 큰 뜻은 들어설 여지가 없지요.



11. 해미읍성의 정문인 진남문. 해미읍성은 둘레가 1,800미터에 이르며 북쪽은 산을 끼고 있다. 12. 해미읍성 동헌 담장. 복원하면서 원래와는 다른 스타일의 축성 방식을 뒤섞어 쌓았다. 사진 오른쪽이 '보기 좋으라고 만들어 놓은' 사괴석 담장. 13. 해미향교로 오르는 길. 몇백 년 된 느티나무들이 진입로 겸 입구 역할을 하며 향교와 속세를 구분하고 있다. 14. 산길 입구에 서있는 바위에 '開心寺'와 '洗心洞'이라는 글자가 선명하다. 마음을 여는 절. 마음을 닦는 골짜기. 15. 개심사 오르는 산길을 다 올라와 만나는 연지(蓮池). 날씨 좋은 4월의 봄날에는 연지에 떨어지고 비치는 산빛꽃이 좋다. 16. 대웅전 맞은편 누에 달린 개심사 현판. 17. 중무소로 사용하고 있는 개심사 내 건물. 흰 나무를 그대로 사용한 모습이 인상적이다.

### 세 번째 여정: 서산 개심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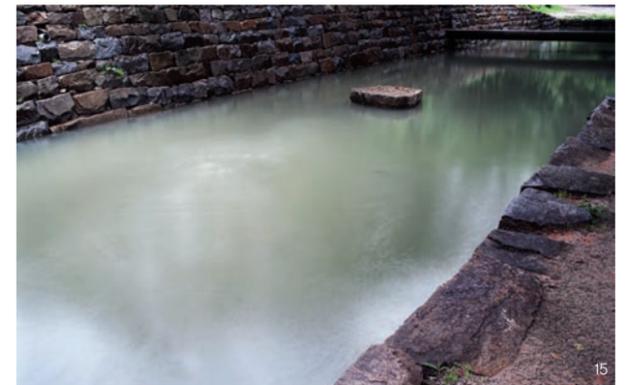
## 마음을 닦다, 마음이 열린다

오늘 마지막 일정은 개심사(開心寺)입니다. 개심사는 서산군 운산면 상왕산(象王山)에 있는 절입니다. 상왕산이란 이름에 코끼리가 들어 있지요? 불교적인 상징입니다. 오래전부터 이 지역이 불교가 융성했던 곳임을 짐작할 수 있지요. 조선 시대 들어서 유학자들이 불교나 도교적인 지명을 유교식으로 바꾼 경우가 많았는데, 여기는 아직도 남아 있네요.

개심사는 절 아래까지 차가 올라갈 수 있지만, 저는 반드시 산길을 걸어 절까지 올라가 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진입로 입구를 보십시오. 입구 양쪽으로 바위에 글씨가 써여 있는 게 보이지요? 오른쪽 바위는 무슨 글자입니까? 개심사(開心寺) 즉 마음이 열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왼편 바위에는요? 세심동(洗心洞)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을 닦는 동네입니다. 몸의 더러움이 아니라 마음의 더러움을 닦으란 말이예요. 저 아래 일주문을 지나면서 일단 마음을 가다듬고, 이 입구부터 절에 이르기 전까지 산길을 오르면서 마음을 열고 마음을 닦으라고 주의를 주는 겁니다.

절에 당도하면 본 건물이 나오기 전 '경대(鏡臺)'라는 연지 즉 연못을 먼저 만나게 됩니다. 연못을 거울 삼아 마음을 잘 열고 닦았는지 비춰보라는 의미죠. 지금은 연못 크기도 1/3 정도 줄고, 연못 안에 있던 '경석(鏡石)'이라 적힌 돌도 뽑아내서 아쉽습니다. 이곳까지 올라가는 동안 마음을 고요하게 닦지 못했다면 연못 앞에서 뒤돌아 산을 내려가야겠죠. 비가 오는 날 이곳에 온 건 처음이군요. 사람이 없어 오히려 고즈넉하고 좋지요? 개심사는 건축적으로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건 없습니다. 배웠던 것들을 혼자 찾아보고 느껴보세요. 중심축이 어떻게 그어지는지, 앞뒤 산봉우리로 이어지는 선을 스스로 그려보면서요.

우리 절들을 보면 나무를 끈게 다듬지 않고 자연적으로 휘고 비틀어진 모양을 그대로 살려 쓴 곳들이 많은데 이 개심사에서 그런 편입니다. 끈은 기둥을 찾는 게 더 어려울 지경이죠. 대웅전 뒤쪽 문도 막지 않은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옛것을 대하는 마음 씀이 한결 낫지요. 그런 여러 가지를 염두에 두고 천천히 절 곳곳을 관찰해 보세요. 마음을 열었는지, 닦았는지 스스로 되짚어 보면서 말입니다.





**네 번째 여정: 서산 마애삼존불과 보원사지, 예산 사면불  
이글거리는 광배, 문화가 교차하다**

어제 비 오는 개심사도 처음이었는데, 비 오는 날 마애삼존불을 보는 것도 오늘이 처음이네요. 다니기엔 불편해도 이젠 또 이대로 좋은 것 같습니다. 혹시 이곳이 처음인 분들은 맑은 날 다시 한번 찾아와서 햇빛이 비출 때 불상이 어떻게 달리 보이는지 비교해 보면 더 좋겠네요.

한동안 마애삼존불을 보호한다고 바위 앞에 누각을 만들어 씌웠는데 지금은 철거했습니다. 누각 때문에 오히려 유물이 더 훼손된다는 지적이 있었거든요. 보존과학은 정말 세심해야 합니다. 이런저런 변수들을 다 예측하고 실험을 해 본 후에 유물과 유적에 적용해야 하는데, 대개는 의견을 내는 사람의 목소리가 크면 덜컥 시행해 버리는 식이지요.

누각을 철거한 대신 마애삼존불로 오르는 계단 입구에 새로 문을 달았습니다. 문 현판에 '불이문(不二門)'이라고 적혀 있지요? 둘이 아니다, 즉 하나라는 말입니다. '부처와 내가 다르지 않다, 진리에 이르는 길은 하나다'라는 뜻이죠.

이곳 마애삼존불은 동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석가모니 본존불이 가운데 있고 양옆으로 본존을 모시는 협시불이 있지요. 특히 본존불 왼쪽 협시불이 반가사유상이라는 점이 서산 마애삼존불의 특징입니다. 세 분 불보살들이 모두 아주 온화하고 환한 미소를 짓고 있지요? 그래서 흔히들 '백제의 미소'라 부르곤 합니다. 지금은 올라오는 길에 계단이 있어 오기 편하게 느껴지지만 사실 이 마애삼존불은 천몇백 년 동안 감추어져 있다가 수십 년 전에야 학계에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외지고 깊은 곳에 있었다는 말이지요.

왜 이런 곳에 마애삼존불이 있는지는 아직도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니다. 어떤 분은 이곳이 중국과 백제를 오가는 경로였다고 설명합니다. 중국으로 통하는 바닷가 태안에서 부여로 오가는 길이었다는 말이지요. 하지만 여러분이 어제오늘 걸어 봐서 알겠지만 이 지역은 산세에 굴곡이 많아 규모 있는 교역로가 되기 어렵습니다. 제 견해로는 이 일대가 날씨가 변화나 자연환경에 변화가 잦아 사람들이 종교에 의지하게 되었고 물산도 풍부해 불교문화를 꽃피우기 좋은 조건이 아니었나 합니다. 이 근방에 유독 큰 절들이 많죠. 불상도 사



람들의 삶을 반영하지 않았습니까? 삶의 여유가 있는 곳이라 삼존불이 이렇게 화사한 미소를 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유럽도 12~13세기 사이 도시들이 엄청나게 증가합니다. 그때 기후가 온난해지면서 원래 척박한 땅이던 북유럽까지 농업 생산이 비약적으로 늘었거든요. 도시가 늘어나면서, 그림 그리고 조각하고 건물을 짓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생산력과 문화가 더불어 발전하는 거죠. 실크로드도 마찬가지로입니다. 동서 간에 교역이 활발해 실크로드상의 도시들이 번성할 때,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불교미술이 융성했습니다. 그만큼 먹고산다는 것이 문화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유물과 유적을 대할 때, 지리, 기후, 경제사적 배경들을 함께 헤아려 보는 눈을 키워야 하는 까닭이죠.



18. 서산 마애삼존불을 옆에서 본 모습. 비 오는 날 젖은 바위에서 느껴지는 조각의 질감이 남다르다. 일부 문화해설사들은 마애삼존불을 설명하면서 본존 양면의 보살들을 가리켜 분처와 침이 질투하는 사이에 빗대 표현하곤 하는데, 비록 재미 요소가 필요하다고 해도 이는 위험한 방법으로 보인다. 19. 민정기 화백이 그린 보원사지 전경. 사진으로 담기 어려운 공간 배치의 특성이 그림 속에 오롯이 살아 있다. 20. 보원사지 입구 쪽 당간지주. '당'이란 절에 법회 같은 행사가 있을 때 거는 깃발이고, '간'은 그 깃발을 지지하는 막대기를 말한다. 당간지주는 당간을 걸어 고정하는 구조물로, 흔히 두 개의 높은 돌기둥 형태로 되어 있다. 21. 보원사지 5층 석탑(보물 제104호)의 기단부. 네 면에 각각 2구씩의 조각이 있는데, 불법을 지키는 여덟 신장(神將)인 팔부신중(八部神衆)을 새긴 것으로 보인다.



보원사지는 개심사에서 산 너머 반대편에 있습니다. 보원사지 뒷산으로 넘어가면 개심사까지 쉽게 오갈 수 있죠. 보원사(普願寺)는 백제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절이라고 하는데 백제의 유물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통일신라 유물로는 당간지주와 5층 석탑 등이 있습니다. 석탑 아래쪽을 빙 둘러 조각이 있는데, 많이 마모되어 정확한 형태와 솜씨를 알아보기 어렵지만 꽤 공을 들인 조각입니다.

보원사 터에는 예전에 물을 담았던 석조가 있습니다. 크기를 보면 이 절이 오래도록 꽤 큰 절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규모 석조는 범주사 정도에만 있고 다른 곳에선 본 적이 없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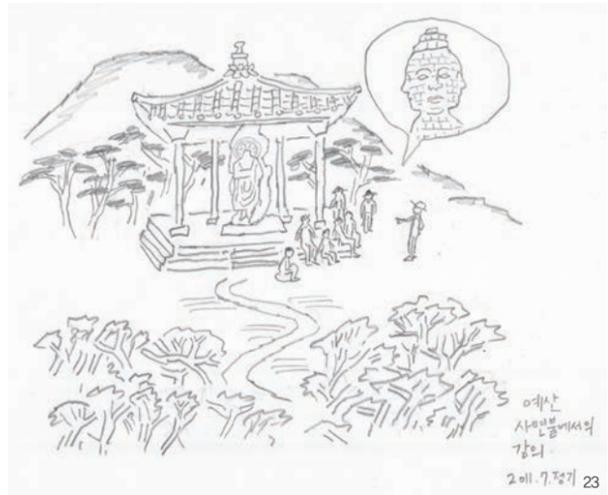
이곳은 앞산과 뒷산을 연결한 축에 건물을 배치하기엔 지형의 제약이 있습니다. 절터 가운데로 개울이 흐르면서 앞뒤가 좁고 옆으로 긴 지형이 되었죠. 그래서 축선상에 수직으로 가람(伽藍)을 배치하지 못하고 땅에 맞추었습니다. 법당을 지을 때도 앞뒤 산이 아니라 앞산 봉우리를 기준으로 위치를 잡았던 것 같습니다.

보원사지를 올 때마다 아쉬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원래는 탑을 바라보고 왼편 산자락, 지금 잡목이 우거진 숲에 민가가 세 채 있었거든요. 거기 천 년 된 탱자나무가 있었는데

1980년대에 문화재관리국에서 정화사업을 한다고 베어버렸습니다. 역사의 흔적이란 오래된 나무 한 그루에서도 찾을 수 있는 건데 너무 무심경했던 것이죠.

자, 잠시 예산에 들러 사면불을 보고 갑시다. 사면불은 사방 불이라고도 하는데 경주 남산에 조금 남아 있고 우리나라엔 흔하지 않아요. 사면불은 대부분 우리나라에 불교가 전래되던 초기에 만들어졌는데 인도 힌두교의 영향이 섞인 겁니다. 사면불 이후에 평면적인 삼존불이 나타나지요. 불교문화가 본격화된 겁니다. 예산 사면불은 백제 시대 것인데 다른 곳에 있던 돌을 옮겨온 게 아니라 원래 여기 있던 돌에 조각을 한 게 아닐까 추측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면에 새긴 부처님들의 크기와 균형이 조금 맞지 않는 것일 테고요.

네 부처 중 남쪽을 향한 부처가 제일 중요합니다. 정말 조각을 열심히 한 게 느껴지지요? 광배의 불꽃을 보세요. 활활 타 오르잖아요. 이 정도 박력과 테크닉을 갖춘 조각은 드문 편입니다. 옷도 겹겹으로 겹쳐 내려오는 걸 잘 표현했고요. 광배는 해를 등진 모습을 상징하는 것으로, 태양을 숭배하던 유목민들의 전통이 종교에 스며든 것으로 보입니다.



22. 보원사지 당간지주와 수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는 모습. 23. 민정기 화백이 그린 예산 사면불과 주위 경관. 사방을 조망할 수 있는 입지에 세운 것을 그림에서 느낄 수 있다. 지금은 후대에 심은 나무들이 경관을 가로막고 있다. 24, 25. 예산 사면불. 이글거리며 타오르는 듯한 광배가 인상적이다. '4면'이라는 숫자에서 인도의 힌두교적 전통을, '광배'에서 중앙아시아 유목민들의 태양 숭배 전통을 엿볼 수 있다. 작은 유물 하나에서도 교차하는 문명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 흥미롭다. 다만 사면불을 보호하기 위해 씌운 누각을 좀 더 크고 시원하게 지었더라면 햇볕이 자연스레 들어오면서 사면불의 아름다움을 보다 제대로 감상할 수 있었을 것이다. 26. 추사고택 내부 전경. 앞쪽에 있는 건물이 사랑채, 그 뒤편이 안채이다. 원만한 경사를 따라 기단부의 높이를 다르게 함으로써 공간에 위계를 부여했다. 27. 추사고택 안채의 셋문을 통해 곧장 사당으로 올라가는 길. 여성을 배려한 기능적이고 짧은 동선이다.

018 김 위의 마음을 다 닦았습니까?  
019 학교 충남 예산과 서산



다섯 번째 여정: 예산 추사고택

일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건물을 보다

이번 답사의 마지막은 추사고택입니다. 추사고택의 건물들은 단아하면서 밀도가 있습니다. 경사가 있는 지형에 지어졌는데, 맨 위쪽 사당에서부터 안채와 안마당, 중문을 거쳐 사랑채로 이어지며 차츰 낮아집니다. 공간마다 기단을 조성해 위계를 반영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추사고택의 전부는 아닙니다. 주요 건물 한쪽으로 우물도 있고 아랫사람들이 생활하던 집들도 있죠. 우리는 옛 건축물을 이야기할 때 습관적으로 이런 부속 건물들을 제외합니다. 절반만 보는 거지요. 하인들이나 여자들의 동선이 어땠을까 생각해 보는 것만으로도 옛 건축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공간을 입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재구성해 보는 것이지요.

추사고택의 안채는 지형적으로 높습니다. 어떤 분들은 추사고택의 안채가 모자형이라 답답하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여기 마당을 좀 보세요. 빛이 구석까지 환하게 들어옵니다. 안채 마루에서 하늘을 보면 시원하게 내다보이죠. 지형의 경사를 따라 건물의 지붕들도 층을 달리했기 때문에 전망이 트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지은, 지금 봐도 훌륭한 설계예요.



옛날 양반 가옥들은 남녀 공간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동선도 서로 달랐죠. 이 집의 경우, 제사를 지낼 때 남자들은 사랑채에서 마당을 거쳐 사당으로 가는 구조입니다. 반면 여자들은 안채에서 음식을 준비해 별도의 셋문으로 빠져나와 곧장 사당으로 오갈 수 있었죠. 이 집은 여성들의 동선이 짧고 기능적입니다. 남자들은 좀 둘러서 가지요. 의전이라는 건 그렇게 불편함을 감수하며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성의 입장에서 안채 뒤편 길로 사당까지 가 봅시다. 길이 어때요? 폭이 좁지도 넓지도 않은 게 참 단정하지요? 이게 딱 소반을 들고 걷는 폭입니다. 날씨가 구애받지 않고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거죠. 이번에는 안채 중문과 사랑채가 이어지는 공간을 봅시다. 사랑채 뒤쪽 벽에 창문이 나 있지요. 왜 저 위치에, 저 높이와 저만한 폭으로 창문을 냈을까요? 이건 안채에서 사랑방으로 곧장 상을 들이던 통로입니다. 건물 앞까지 돌아가지 않아도 되니 기능적이죠. 여자들의 동선이 밀도 높고 합리적인 집입니다. 창의 위치를 보면 소반을 든 높이 등을 고려했음이 보입니다.

또한 창문턱의 경우, 그 높이가 안에서 상을 받으면 방 밖에

서 상이 보이지 않도록 높습니다. 밖에서 보면 딱 앉은 사람의 상반신만 보이지요. 깔끔하지 않습니까? 서로 예의를 갖추면서 감추고 지킬 것이 있는 거예요. 또한 이 문턱은 방 안에 사람이 누웠어도 밖에서는 사람이 보이지 않고, 창턱에 턱을 괴고 밖을 내다보기도 딱 좋은 높이죠. 세심하게 많은 점을 고려해 지은 집입니다. 서울 사대부 가옥도 이 정도로 꼼꼼히 만들어진 것이 드물죠. 실용성과 기능성, 아름다움을 두루 갖춰 지었다는 것이 추사고택의 미덕입니다. 자, 첫 번째 ‘길 위의 학교’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옛사람들의 삶을 상상해 보고, 그들의 멋과 지혜를 살펴보는 것, 우리 땅을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이 이 ‘길 위의 학교’의 수업 목표입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28. 안채(왼쪽 건물) 중문과 사랑채(오른쪽 건물) 뒤편 창문은 약간 비켜서 마주보고 있다. 즉 안채 중문에서 상을 들고 나오면 바로 사랑채 창문으로 들일 수 있는 합리적인 동선이다. 29. 여러 가지 상황을 세심하게 고려해서 높이를 정한 사랑채 창문. 30. 안채 마루에서 올려다본 하늘. 공간에 좀 더 답답할 것이라던 선임권과는 달리, 전망이 트여 시원한 느낌을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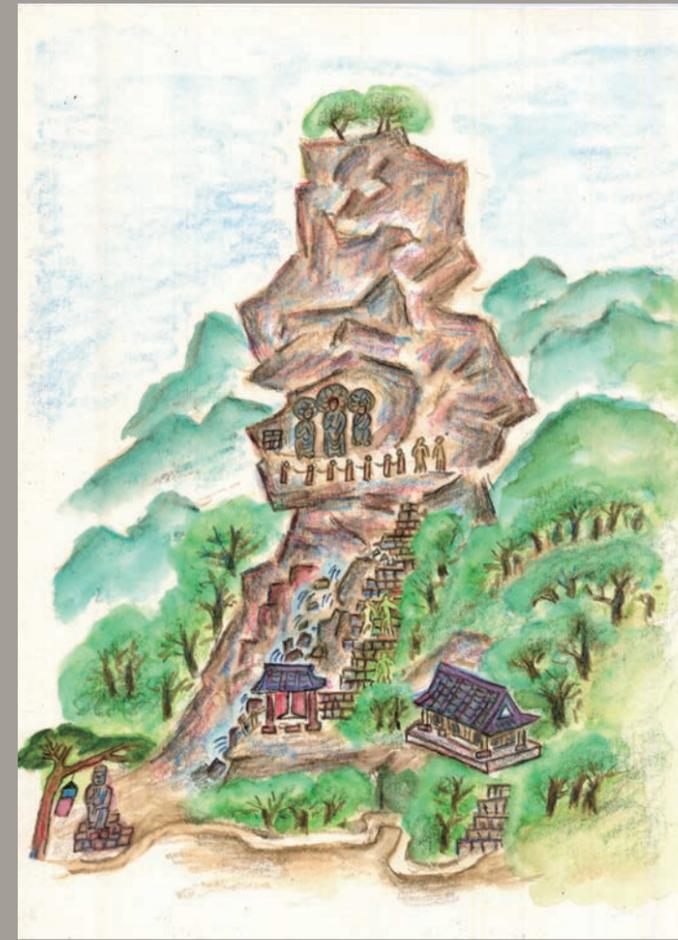
## 수업이 끝나고

금선희 이런 식의 답사는 많이 다녀보지 못해서, 그동안 저 혼자 볼 때 많은 것들을 놓쳤구나 싶습니다. 이번 답사에서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이, 한국 절들은 일본 절들에 비해 색깔이 다양하고 아름답다는 점입니다. 일본 신사나 절은 적갈색이나 진홍색 정도가 많은데, 한국 절의 ‘단청(丹靑)’은 훨씬 컬러풀하면서도 그것들이 모나게 튀지 않고 조화를 이룹니다. 단청의 푸른색이 수평의 목 기둥 색깔에서 유래했다는 점, 절의 기와지붕이 마치 새가 날개를 펴고 날아가는 것처럼 보이기에 지붕 아래에 화사한 색을 사용했다는 이야기들이 새롭고 재미있었습니다.

성재혁 수덕사 대웅전 앞에서 들은 장대석 이야기가 기억에 남습니다. 서양식 건물들 중에 적당한 크기로 돌을 쪼개거나 자갈을 골라서 외벽을 쌓고 칠망을 씌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리움미술관의 현대미술 전시실 바깥 편에 있는 축대 같은 게 그렇지요. 그 원리가 장대석을 쌓은 원리와 같습니다. 비 등

의 기후 조건을 반영한 것이지요. 이처럼 동서양이 같은 원인을 두고 디자인적으로는 다르게 표현한 점이 재미있습니다. 해미향교를 오르는 길에 나무로 세속과의 경계를 설정한 점이나 천원지방의 우주관을 담은 해미읍성의 감옥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식 ‘인본주의 디자인’의 다양한 걸을 본 것 같아요.

이상선 개심사를 오를 때 조금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다 오르고 나니, ‘그래, 어렸을 때는 절까지 이렇게 올라갔었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은 관광객들을 위한다고 길을 닦고 자동차로 절 앞까지 갈 수 있는 곳도 많은데 산길을 걸어 올라가면서 정말 마음이 닦이는구나 싶었어요. 추사고택 안채에서 바라본 지붕과 하늘도 좋았습니다. 이제까지 안마당이 좁은 한옥을 보면 지붕 사이로 보이는 하늘이 갑갑하게 느껴졌었는데, 그동안 제가 잘못 지어낸 집들만 봤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정기 ‘길 위의 학교’에 동행하며 그림을 그려 준 민정기 선생은 서양화에서 출발하여 동양의 산수나 무속화, 고지도의 방법론을 더해 새로운 스타일을 만들어낸 화가입니다. 1980년대에는 ‘현실과 발언’ 동인으로 활동했고, ‘이발소 그림’ 식의 키치 요소를 활용해 사회 모순과 삶의 구조에 대한 인식을 담아내기도 했습니다. 1990년대 이후부터는 주로 풍경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연을 그리되 평면적인 모사가 아니라 대상이 놓인 공간과 시간, 즉 장소의 구체성과 역사성을 화면에 담으려 합니다. 그래서 미술평론가 최민은 민정기 선생의 작업을 ‘동도서기(東道西器)’라 평가합니다. 서양의 방법론으로 동양의 정신을 담는다는 뜻입니다. 이번 여정의 일부를 담은 간단한 드로잉들에서도 그런 특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상을 닮게 그리는 것보다 그 장소에 깃든 관계와 핵심에 주목한다는 점에 선생의 혜안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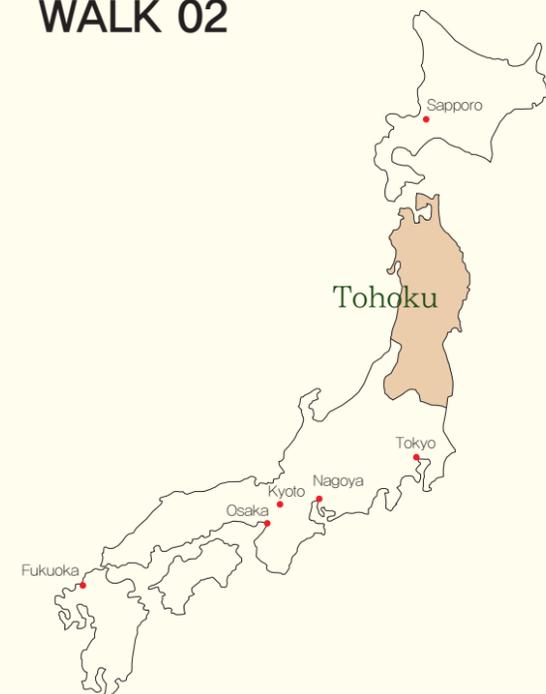


새롭고 화려한 것들도 많은 세상에 구태여 옛 건축을 만나러 가는 건  
 그곳에 담긴 옛사람들의 눈과 마음을 만나려는 뜻입니다.  
 우리 땅 구석구석을 천천히 걸으며  
 빠른 속도의 세상에서 우리가 놓친 것, 잃어버린 것들을 찾으려 합니다.  
 굳이 지식 삼아 어렵게 외우지 않아도 좋습니다.  
 우리 유전자에 새겨져 있으며 잠시 잊었던 기억들이  
 걸음걸음 떠올라 어느새 우리 마음을 비취 줄 테니까요.

수덕사 대웅전 앞마당에서 내려다본 풍경.



## WALK 02



# 마음이 움직이다

‘마음이 움직이다’는 『보보담』이 응원하고 싶은 것들을 소개하는 지면입니다. 지역과 전통, 자연과 사람 등 『보보담』이 손을 내밀 대상은 다양하지만 응원을 전하는 방식은 같습니다. 대상을 알고 이해하려 하는 시도가 그것입니다. 무엇이든 이해가 깊어지면 마음으로 한결 가깝게 느껴집니다. 정조 때 문장가 유한준의 말에 기대어 ‘마음이 움직이다’를 시작합니다. “알면 곧 참으로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면 참으로 보게 된다.”



아오모리에서 토와다로 가는 도중 펼쳐지는 토호쿠의 산세.



아오모리현 미사와시에 있는 고마키 온천 정원.

# 길의 끝, 마음의 시작, 토호쿠 기행 東北紀行

글 편집부, 사진 어상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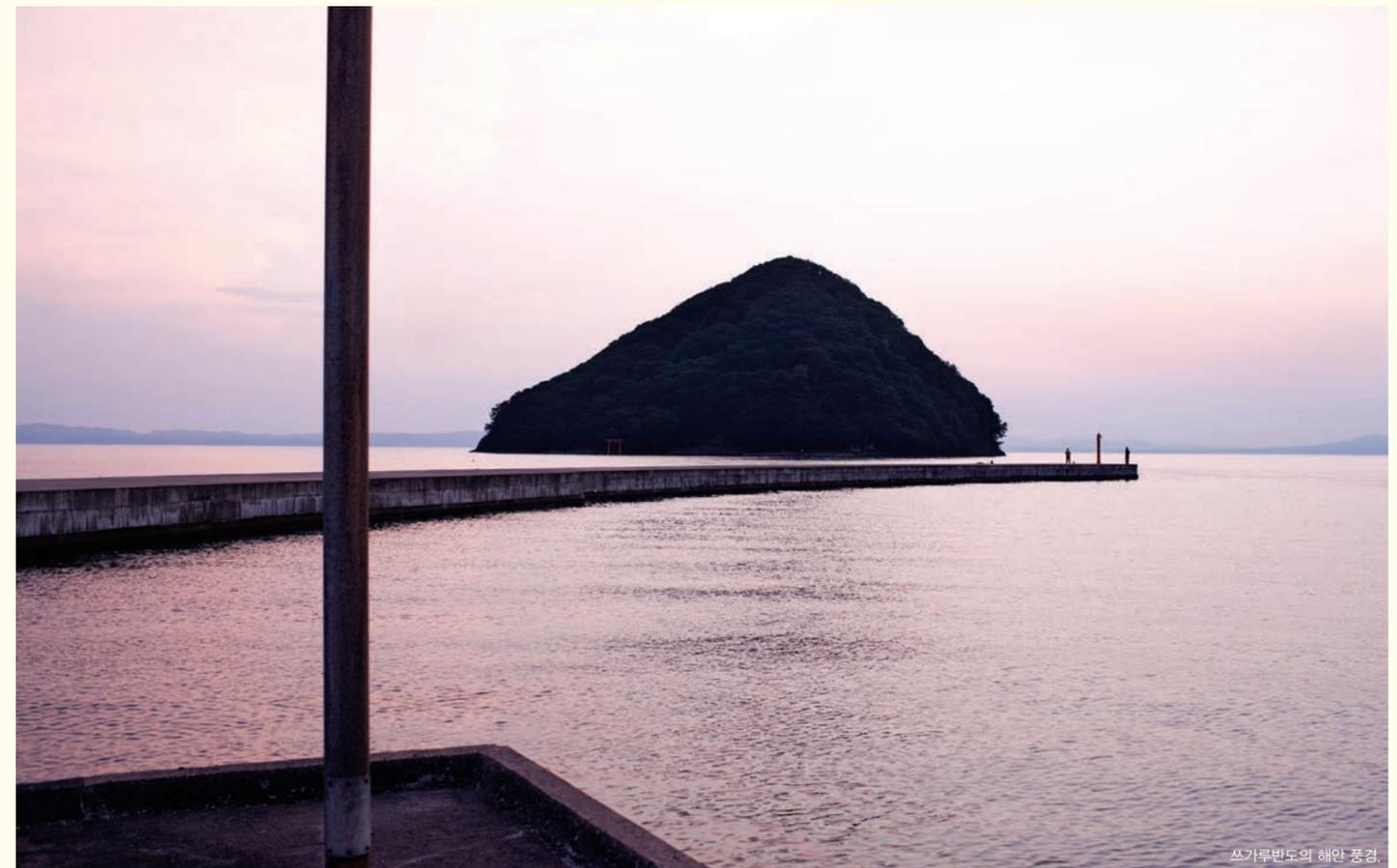
지난 3·11 일본 대지진 이후 많이 익숙해진 말이 있습니다. 일본 말로 동북(東北)을 가리키는 '토호쿠'입니다. 지진 이틀 후, 영국 일간지 「인디펜던트」가 일요일 자 신문 1면에 게재한 'がんばれ 東北!'(간바레 토호쿠!, 힘내 토호쿠!) 응원 광고는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토호쿠는 아오모리(靑森), 이와테(岩手), 미야기(宮城), 후쿠시마(福島), 아키타(秋田), 야마가타(山形) 등 6개 현을 아우릅니다. 2010년 기준으로 인구 978만 명에 면적은 66,889제곱킬로미터입니다. 남한의 2/3 정도 크기에 서울 인구보다 적은 수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2011년 3월 11일, 토호쿠의 동쪽 해안을 강타한 지진으로 2만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거나 실종되었습니다. 많은 마을들이 폐허가 됐고, 살아남은 사람들 중 일부는 대피소 생활을 하거나 아예 고향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주했습니다.

1997년 <하나비>로 베니스영화제 대상을 수상했던 배우이자 영화감독인 기타노 다케시는 이 비극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지진 재해를 2만 명이 죽은 하나의 사건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한 사람이 죽은 사건이 2만 건 일어난 것이다." 기타노 다케시는 숫자가 아니라 마음으로 토호쿠를 보자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으로 토호쿠를 보고 응원의 말을 전하는 방식은 여럿일 것입니다. '마음이 움직이다'는 그 하나의 방법으로 토호쿠의 문화를 소개합니다. 토호쿠를 일컫는 옛 지명은 '길의 끝'이라는 뜻의 '미치노쿠(みちのく)'입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 새로운 길이 시작되고, 마음이 시작됩니다.



쓰가루반도의 해안 풍경.



고마키 온천의 우서 깊은 료칸 아오모리아.



아오모리 현립미술관에 전시된 사갈의 <아레코> 연작 중 4막 배경 그림.

6월 18일부터 24일까지 토호쿠를 다녀왔습니다. 토호쿠 지역으로 떠나는 신칸센이 발차하는 도쿄역에는 임시 시간표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지진과 원전 피해가 가장 큰 후쿠시마현의 몇몇 도시들을 지나는 일부 지역선을 제외하면, 토호쿠 지역으로 지나는 대부분의 기차가 운행을 재개했습니다. 편수가 조금 줄고 시간이 더 걸리긴 해도 토호쿠로 가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도쿄 시내 곳곳에는 '부흥 지원'을 내걸고 진행하는 JR東日本(동일본여객철도주식회사)의 토호쿠 여행 홍보물이 걸려 있습니다. 기간 한정이지만 파격적인 할인 상품도 등장했습니다. 피해가 심한 후쿠시마와 미야기현의 일부 지역을 빼면 현지 분위기도 안정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전력 소비제한을 실시하는 도쿄보다 더 쾌적한 곳도 많습니다.

그동안 토호쿠는 스키나 온천 등의 여행지로 많이 소개됐지만 이곳의 진정한 매력 중 하나는 다채로운 문화 자산입니다. 사후 50여 년이 지나서도 여전히 유명 연예인 못지않게 대중의 추앙을 받고 있는 소설가 다자이 오사무,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연극·영화·시·산문 등에 걸쳐 시대 사조를 이끄는 전위로 활동했던 테라야마 슈지, 일본 불교미술의 전통을 현대적 목판화로 계승해 세계에 알린 무나카타 시코, 사회 문제를 고발하는 다큐멘터리 사진과 일본 문화의 아름다움을 기록한 예술 사진 모두에서 최고의 기량을 뽐낸 도문켄 등이 다 토호쿠 출신입니다. 또 토호쿠의 몇몇 미술관들은 일본 전역과 해외에서 일부러 방문하는 현대미술의 순례지이기도 합니다. '마음이 움직이다'가 준비한 토호쿠 예술 기행에서 그런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토호쿠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그 초대에 응할 때 이 인사말 하나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바레 토호쿠! がんばれ 東北!"



이와테현 히라이즈미시에 소재한 천태종 사찰 추손지.

| 토호쿠의 예술가 1 |

# 시대와 격투한 사진가가 있다!

도몬 켄 土門拳



2009년, 일본을 대표하는 다큐멘터리 사진가인 도몬 켄(土門拳)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한 대규모 전시회가 도쿄 니혼바시에 있는 미츠코시 백화점 본점에서 열렸다. 전시회 제목은 <도몬 켄의 쇼와>. 전시를 알리는 대형 포스터와 플라이어, 도록 등에는 담배를 피워 물고 아래를 응시하는 도몬 켄의 사진과 함께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다. "격동의 일본과 격투한 사진가가 있다." 도몬 켄은 메이지 시대(1868~1912) 끝자락인 1909년에 태어났다. 그리고 쇼와 시대(1926~1989)에 왕성하게 활동하다 새로운 연호인 헤이세이가 시작된 이듬해, 1990년에 타계했다. 향년 80세였다.

사진에 대한 도몬 켄의 생각은 그에게 영향을 받은 이들이 자주 인용하면서 일본 사진가들의 경구가 되었다. 말을 살짝 바꾸고 도몬 켄이라는 출처를 지운 채 한국 사진가들도 따라하게 된 말. "사진가에 있어서 촬영이란 피사체와의 진검승부다. 생각한 그대로의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타협이란 것은 용서되지 않는다. 상대방이 어른이거나 아이일지라도. 물건이든 풍경이든. 만반의 준비를 하고 현장으로! 그리고 스스로 납득할 때까지 계속 찍었다."

고향인 야마가타의 사카타에서 도몬 켄 기념관 관광을 맡고 있는 도몬 켄의 큰딸은 아버지가 '가정적인' 사람은 아니었다고 이야기한다. 도몬 켄의 부인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가족 사진이요? 그런 것 찍을 이유가 없지요. 작품이 될 정도로 제가 미인이었다면 모를까. 재료가 아깝지 않습니까. 작품으로 환원되지 않는 것은 찍지 않았어요. 구두쇠는 아니었지만 일에 드는 비용이 아까웠기에 가족사진 같은 것은 찍지 않았어요."

가족사진 비용도 아까워하던 그였지만, 1960년 류슈 탄광마을 지쿠호의 실상을 고발한 『지쿠호의 아이들(筑豊の子どもたち)』을 '100엔짜리 사진집'으로 발간해 큰 반향을 일으켰다. 지금으로 따지면 1,000엔에 해당하는, 학생들도 며칠 용돈을 아끼면 살 수 있는 가격이었다. 더 많은 이들이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한 도몬 켄의 배려였다. 탄광은 결국 폐광됐지만 도몬 켄의 사진은 당대의 어두운 면과 맞섰던 정면 대결의 상징으로 기억되고 있다.

사진가에게 있어서 촬영이란 피사체와의 진검승부다. 생각한 그대로의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서 타협이란 것은 용서되지 않는다.

01. 탄생 100주년 기념 전시회 도록인 '도몬 켄의 쇼와', 쇼와 10년(1935)부터 54년(1979)까지 찍은 사진들 중 304점이 수록되어 있다. 촬영한 지 수십 년이 지나서야 공개된 사진들도 있는데 요코스카 해병단이나 이바라키 해군항공대를 촬영한 사진의 경우, 전쟁에 회의적이었던 도몬 켄이 공개를 원하지 않아 통째로 버려둔 작품들이다. 02. 『고사순례』는 전쟁 때부터 시작해 뇌출혈로 쓰러진 이후에도 휠체어를 타면서까지 찍었던 '고사순례' 시리즈를 결산하는 도록이다. 40여 년에 걸쳐 찍었던 수많은 사진 중 171점이 수록되었다. 03. '100엔짜리 사진집' 『지쿠호의 아이들』을 새롭게 양장본으로 발간한 것. 표지에 등장하는 소녀는 전후 일본의 가난과 사회 갈등을 상징하는 하나의 이미지가 되었다.



도몬 켄 기념관 土門拳記念館  
09:00~16:30 | 4월~11월 무휴, 12월~3월 월요일 휴관,  
12월 28일~1월 14일 휴관  
www.domonken-kinenkan.jp

04, 05. 도몬 켄 기념관은 1983년, 그의 사진과 관련 유품을 중심으로 설립된 일본 최초의 사진 전문 미술관이다. 뉴욕근대미술관을 설계한 다니구치 요시오(谷口吉生)가 설계를 맡았다. 도몬 켄의 전 작품 7만여 점을 소장하고 있으며, 3개 전시실에서 연간 10여 회 이상의 기획 전시를 열고 있다.

06. 도몬 켄이 "천하 제일의 미남 부처님"이라고 불렀던 나라현 무로지(室生寺) 미륵당의 석가여래좌상 얼굴 부분. 도몬 켄은 평생에 걸쳐 무로지를 여러 번 찾으며 일본 문화의 원형을 찾고자 했다. 07. 쇼와 시대 인물들의 초상을 담은 사진집 『풍모』에 실린 소설가 가와바타 야스나리의 모습. 08. 1955년에 도쿄 예도가와 동쪽 마을에서 찍은 아이들 사진. 혼자 외롭게 자랐던 도몬 켄은 아이들을 좋아해 늘 동네 아이들을 물고 사탕이며 과자를 사 주곤 했다 한다. 09. 1936년 이즈반도의 한 섬에서 찍은 사진. 당시 직장이었던 '일본공방'의 의뢰로 찍었다.



## 【토호쿠의 예술가 2】

# 나무 위에 새긴 마음, 마음

무나카타 시코 棟方志功

“고호가 되려고 상경한 가난한 청년은 그러나/ 고호가 되지 않고/ 세계적인 무나카타가 되었다/ 칠순이 된 그는/ 일본 종이로 끈 머리카락을 하고/ 나무판 가까이 애슬애슬하게/ 애꾸눈과 근시의 안경을 대고 번쩍거리며/ 조각하는/ 무나카타 시코를 새기고 있다.”

시인 구사노 신케이(草野心平)가 무나카타 시코(棟方志功)의 칠순 생일을 맞아 지은 시의 한 구절이다. ‘세계의 무나카타’라는 애칭으로 불리는 무나카타 시코는 1903년에 태어나 1975년에 죽은 일본 판화작가다. 납작한 나무판이나 금속판에 작품을 새기는 것을 뜻하는 ‘판화(版畫)’ 대신 커다란 널빤지에 작업한다는 점을 강조해 자신의 작업에 ‘판화(板畫)’라고 새로 이름을 붙였다. 독자적인 대형 목판화로 1955년 상파울로 비엔날레 판화 부문 최고상, 1956년 베니스 비엔날레 판화 부문 대상 등을 수상하는 등 세계적으로도 인정받았다.

대대로 대장장이를 하던 집안에서 태어난 무나카타 시코는 아오모리 지방재판소의 변호사 대기실 급사로 일하던 틈틈이 그림을 그리곤 했다. 1921년, 친구가 보여준 잡지 표지에서 반 고호의 〈해바라기〉를 보고 정식으로 화가가 되겠다 결심하고 도쿄로 향한다.

미술학교에 다닌 적도 없고, 학력도 인맥도 없던 무나카타 시코는 도쿄에서도 줄곧 독학으로 공부했다. ‘스승이 있으면 스승 이상으로 성장할 수 없다’고 생각한 그는 대신 여행을 하고 미술관, 박물관, 사찰 등을 다니며 거기에서 보고 만난 것들을 통해 자기 스타일을 만들어냈다. 기존 화단과는 교류하지 않았지만, 사람들과의 인연은 소중히 여겼다. 여행하고 사람을 만나면서 단지 정보를 수집하는 ‘안테나’만 세웠던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기 안에 깊숙이 새겨 작품으로 만들었다.



01. 무나카타 시코 기념관에서 발간한 소장 작품 도록 표지에 사용된 이미지는 쇼와 36년(1961)에 제작된 〈弘仁の册〉이다. 무나카타 시코는 1950년대 후반부터 미인도를 많이 제작하였는데 이 작품도 그 연작 중 하나다.  
02. 1939년 작 〈두 보살과 석가 10대 제자(二菩薩釋迦十大弟子)〉. 보현보살을 왼쪽 끝에 문수보살을 오른쪽 끝에 두고 그 사이 석가의 제자들 열 명이 담았다. 지혜에 이르는 길에서 지을 수 있는 온갖 표정과 자세들이 출몰하는 작품이다.



‘스승이 있으면 스승 이상으로 성장할 수 없다’고 생각한 무나카타 시코는 대신 여행을 다니며 거기에서 보고 만난 것들을 통해 자기 스타일을 만들어냈다.

1930년대 후반 무나카타 시코는 한 달 동안 교토를 여행한 적이 있는데, 그때를 이렇게 회고한 바 있다. “나의 영혼이 살찌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기회와 관계를 통해 무언가가 만들어지고 몸이 점점 부풀어 오르는 것 같은 기분 좋은 느낌이 들면서, 혼자 미소 짓게 만들 정도로 어떤 느낌이 솟구쳐 오르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기회와 관계’를 통해 배웠던 것이 그 한번의 여행에만 한정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언제나 눈앞의 배움에 기뻐하며 혼자 미소 지었던 무나카타 시코였기에, 그의 작품을 보는 사람들도 함께 유쾌해진다. 배움의 기쁨은 감출 수가 없다. 그것이 무나카타 시코의 작품이 갖는 가장 큰 미덕이다.



03. 도쿄의 무사시노 시립 키치조지미술관에서 열린 무나카타 시코의 전시회 포스터.  
04. 작품 〈삼색 병풍도〉. 05. 도문 켄이 촬영한 무나카타 시코의 작업 모습. 06. 전시장에서 자신의 작품을 보고 있는 무나카타 시코. 그가 보고 있는 작품은 왼쪽 위의 포스터에 사용된 것과 같은, 1954년 작 〈화수승(華狩僧)〉이다. 강인함과 날림함이 어우러져 경쾌하다. 고구려 고분 ‘무용총’에 그려진 수렵도에서 영향을 받은 작품이다.



02

【 토호쿠의 예술가 3 】

# 나의 직업은 테라야마 슈지입니다

테라야마 슈지 寺山修司



언젠가 한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테라야마 슈지(寺山修司)는 직업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나의 직업은 테라야마 슈지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직업 삼아 살았던 예술가. 그는 이 대답이 어색하지 않을 만큼 열정적으로 살았다. 1967년, 자신의 극단 ‘텐조사지키(天井敷)’를 만든 이후 극본을 쓰거나 연출에 참여한 연극만도 30여 편, 연극 이외에도 18편의 독립영화, 7편의 장편영화, 200여 권에 가까운 저서를 남겼다.

테라야마 슈지는 1935년에 태어나 1983년, 47세의 이른 나이에 죽었다. 그가 활동하던 1960년대 후반과 1970년대는 일본 문화계가 요동을 치며 언더그라운드 문화가 창조적 역량을 뽐내던 때였고, 테라야마 슈지는 그 전위에 서 있었다. 일본의 소설가로 1994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했던 오에 겐자부로도 그를 추억하며 이렇게 썼다. “그가 내 소설의 한 부분을 인용하면 그 문장은 어느새 시로 바뀐다. 우리들은 낯선 영역의 선구자로 테라야마 슈지를 그리워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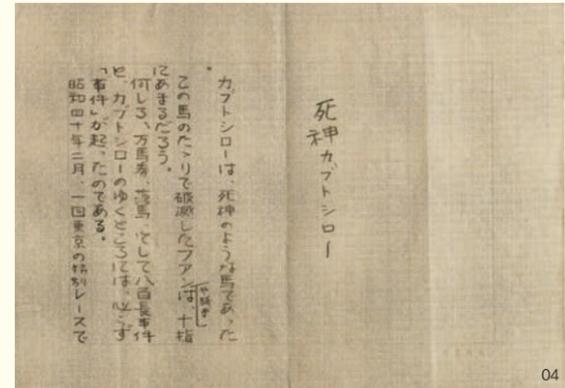
테라야마 슈지는 연극, 영화, 소설, 시, 평론, 사진 등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에서 실험적인 시도들을 했고 대중적인 성공도 거두었다. 또한 그는 다른 이의 재능을 발굴하는 데도 숨씨가 있었다. 텐조사지키 극단 포스터 디자인을 하던 요쿠 타다노리나 우노 아키라는 일본 현대미술과 디자인계의 중요 인물이 되었고, 음악을 담당하던 줄리어스 시저(J. A. Seazer)는 테라야마 슈지 사후 극단 ‘만유인력’을 만들어 그의 실험정신을 계승하고 있다.

흔히들 테라야마 슈지를 요절한 천재라 부른다. 하지만 그와 함께 살았던 적이 있는 사람은 그를 이렇게 기억한다. ‘새벽 두 시에 일이 끝나도 그후 책을 읽고 메모하고 여섯 시에 일어나 원고를 쓰는 사람.’ 재일교포 소설가 유미리는 이 기억을 인용한 후 이렇게 덧붙인다. “그렇다면 너무 빠른 죽음이라고는 할 수 없다. 테라야마가 일 년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몇 년분을 살았다고 한다면 아마 몇 번이나 죽은 게 틀림없다.” 물리적으로는 47년이라는 시간 안에 간헐지만, 보통 사람들이 느끼는 삶의 속도감을 몇 배로 뛰어넘어 1분 1초까지 맹렬히 살았다는 것이다.

청바지 옷감으로 만든 10센티미터 높이의 슬리퍼를 즐겨 신던 테라야마 슈지에게 누군가 불편하지 않느냐 물어보았을 때 그는 이렇게 답했다. “시선을 10센티미터 높이면 세계관이 달라지게 마련이다.” 일상을 다르게 보는 습관은 그렇게 시작된다.



01. 테라야마 슈지가 찍은 사진. 1976년 작품. 02. 가짜 엽서 시리즈 중 하나. 테라야마 슈지는 “진실의 최대의 적은 사실이다.” 라는 믿음을 지니고 있었다. 그는 ‘카메라는 말을 거는 도구’라는 관점에서 극히 작위적인 이미지들을 연출했다. 현실에 존재할 수 없는 부조리하고 위협적인 이미지들이 오히려 삶의 진실을 더 잘 보여준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가짜 엽서 시리즈는 엽서 종이에 사진을 인화한 후 거기에 글을 쓰고, 자신이 오래전에 모았던 우표들을 모아 지인들에게 보내곤 했던 것들이다. 1976년 작품. 03. 테라야마 슈지의 초상.



04. 1976년에 쓴 「사신 카부토시로」의 원고. 테라야마 슈지는 타자기를 사용하지 않고 언제나 원고지 위에 육필로 글을 쓰곤 했다. 05. 06. 아오모리 미사와시에 있는 테라야마 슈지 기념관. 아오모리 현립미술관의 테라야마 슈지 전시실과 함께, 테라야마 슈지 팬들의 순례지다. 07. 훗날 연극과 영화로도 만들어졌던 테라야마 슈지의 신문집 「책 버리고 거리로 나가자」의 표지 및 본문 디자인. 디자인은 요쿠 타다노리가 맡았다.

10cm 높이의 슬리퍼를 즐겨 신던 테라야마 슈지에게 불편하지 않느냐 물어보았다. “시선을 10cm 높이면 세계관이 달라지게 마련이다.”



테라야마 슈지 기념관 寺山修司記念館  
09:00~17:00 | 월요일 휴관  
www.terayamaworld.com





01

## | 토호쿠의 예술가 4 |

# 북방의 하늘과 땅, 그 사이 사람

코지마 이치로 小島一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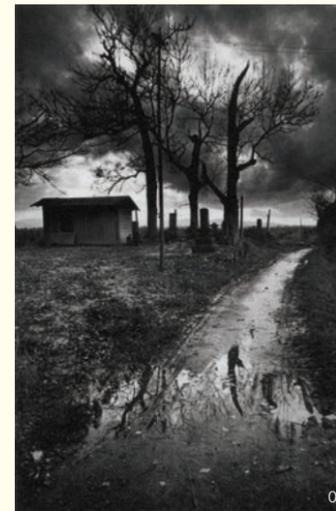
아오모리현 출신의 사진가 코지마 이치로(小島一郎, 1924~1964)의 작품을 대하면 떠오르는 구절이 있다. 『인간실격』으로 유명한 일본 소설가 다자이 오사무가 쓴 여행기 성격의 장편소설 『쓰가루』에 나오는 문장들이다.

“그건 우리가 보통 말하는 풍경과는 완전히 다른 무엇이었다. 보통 풍경이라고 하는 것은 오랜 세월 동안 다양한 사람들의 눈에 비쳐서 형성되는 것이다. 인간의 눈에 익숙해져서 인간의 취향에 길들여지는 게 보통이다. (...) 옛날부터 유명한 그림이나 노래, 그리고 하이쿠에는 모두 인간의 표정이 녹아 들어가 있다고 보는 게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이 혼슈 북단은 그야말로 풍경이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하지 않았다. 풍경 속에 인물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만일 이런 풍경에 사람이 존재한다면 그 사람은 흰옷 차림의 아이누족 노인이 적합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이런 풍경에 보랏빛 점퍼를 입은 사람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다자이 오사무, 『쓰가루』 중



01. 코지마 이치로가 만들어 쓴 일종의 사진 아카이브. 명함 크기로 작게 뽑은 이미지들을 종이에 붙여 정리했다. 작품마다 번호가 있고, 연재하던 잡지 『카메라 마이니치(カメラ 毎日)』에 이미 게재한 것과 게재 예정인 것을 별도로 표시했다. 수작업으로 모든 일을 했던 쇼와 시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풍경화. 02. 아오모리 현립미술관에서 발간한 코지마 이치로의 사진집 『小島一郎写真集成』. 표지 사진은 1958년에 쓰가루시 외곽에서 찍은 작품이다.



03



04

스스로 풍경이 된 사람들은 생활을 다져나갈 뿐이어서 종종 인물 사진들이 범하기 쉬운 연민 같은 걸 자극하지 않는다. 나약하지 않고 강인한 느낌을 준다. 그 강인함의 비밀은 어둠에 있다.

03. 1957년작 《北の空》. 04. 1960년 작으로 따로 제목이 달려 있지 않다. 05. 1959년 작 《소꿉놀이(ままごと)》. 코지마 이치로는 영화 수십 도 아래로 기온이 내려가고 눈보라가 거센 날에도 꾸준히 촬영을 다녔다. 그는 독자적인 암실 기법을 개발하기도 했는데, 음영이 선명하게 대비되면서도 서로에게 스미는 효과로 인해 더 깊이 있는 사진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

코지마 이치로의 사진들은 시기적으로 쇼와(昭和) 30년대, 서력으로 1950년대 후반과 1960년대 초반 풍경을 담고 있다. 공간적으로는 토호쿠 북서쪽 끝인 쓰가루 반도가 중심이다. 2차대전 패전 이후 고난의 행군을 벌이던 일본에 바야흐로 경제 발전과 부흥이 시작되던 시기였다.

하지만 일본 내에서도 오지 중의 오지로 꼽히던 쓰가루는 전쟁 전이나 후나 큰 변화가 없었다. 아직 경제 부흥의 여파가 당도하지 않았던 쓰가루에서는 트랙 대신 말이 짐을 나르고, 기계의 도움 없이 농사를 지었다. 아이들은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대신 부모들의 가난한 세간을 닮은 소꿉놀이를 했다.

코지마 이치로는, 세련되고 다듬어진 도시인의 미감에 길들지 않은 풍경을 기록했다. 인물이 등장할 때도 관습적 인물 사진에서 한 걸음 떨어져 찍는다. 사람이 곧 풍경이 되는데 그 방식이 예쁘거나 박력 있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스스로 풍경이 된 사람들은 생활을 다져나갈 뿐이어서 타인의 연민을 자극하지 않는다. 나약하지 않고 강인하다.

강인함의 비밀은 어둠에 있다. 코지마 이치로는 빛보다 어둠 쪽에 다가가 찍었다. 네덜란드 화가 렘브란트가 어둠을 통해 '빛'의 존재를 각인시킨 것처럼, 코지마 이치로 역시 어둠의 강인함에 기반함으로써 '빛'의 가치를 일깨웠다.



05

# 토호쿠의 미술관들

## 아오모리 현립미술관 青森県立美術館

09:00~18:00(6월~9월), 09:30~17:00(10월~5월) | 매일 둘째 넷째 일요일 휴관, 12월 27~12월 31일 휴관  
www.aomori-museum.jp

넓이와 높이가 적절히 조화를 이룬 큰 공간은 그 자체로 매력적이다. 런던 테이트 모던의 터빈룸이나 베를린 페르가몬박물관의 이슈타르 전시실 같은 곳이 좋은 예. 아오모리 현립미술관의 아레코홀 또한 그런 공간을 마주할 때 느낄 수 있는 감격을 주는 곳이다.

여느 미술관처럼 작게 구획된 전시실을 걷다 보면 문득 시원한 공간이 열린다. 4층 건물에서 중앙부를 맡끔하게 도려낸 공간, 미술관 전체 높이에 해당하는 19미터 높이의 아레코홀이다. 흰 벽들로 벽을 두른 그곳에 마르크 샤갈의 대형 그림 세 점이 걸려 있다. 미국 망명 중이던 샤갈이 1942년 뉴욕발레단의 <아레코> 공연에 맞춰 제작한 무대막 그림 <아레코> 연작이다. 전체 4막 중 1막, 2막, 4막 그림이 소장되어 있

다. 그림 크기는 각기 가로 15미터, 세로 9미터. 1막 그림 배경색은 파랑, 2막은 노랑, 4막은 검정이다. 순백색 홀 내벽은 그림을 위한 배경으로 딱 제격이다. 그 하얀 스크린 위에 빨간 닭이 날고, 푸른 배경색에 녹아든 청년이 연인을 안고 있다. 바이올린을 치켜든 꿈, 수풀에서 나오려는 검은 원숭이, 그리고 붉은 도시 위로 검은 하늘을 날고 있는 하얀 말이 공간을 채운다. 그림 앞에는 쿠션 좋은 의자 몇 개가 단정하게 버티고 있다. 의자에 앉아 그림을 본다. 몸을 조금만 움직이면 의자가 스르르 방향을 바꾼다. 바퀴가 달린 의자라 굳이 일어나지 않아도 세 점의 그림을 모두 편히 볼 수 있다. 연작 중 3막의 그림은 어디에 있을까? 그림 속 꿈보다 작은 직원에게 물어본다.



“3막 그림은 미국 필라델피아 미술관에 있습니다. 언젠가 그 그림을 빌려와서 <아레코> 연작 전체를 함께 전시하는 게 우리 미술관의 꿈입니다.”

01. 아오모리 현립미술관 입구. 02. 울트라맨 등 로봇물, 괴수물의 캐릭터 디자이너로 유명한 나리타 토오루 전시실. 03. 샤갈의 <아레코> 연작 중 1막 배경 그림. 04. 개를 조각한 나라 요시토모의 작품 <아오모리-켄>. 관람객들의 요청으로 지난해에 밥그릇을 만들어 주었다. 05. 테라야마 슈지 전시실. 연극실험실 텐조사치 키 극단의 무대 뒤 모습을 모티브로 삼았다.



## 토와다시 현대미술관 十和田市現代美術館

09:00~17:00 | 월요일 휴관  
www.city.towada.lg.jp/artstowada/index.html

미술관에 가는 이유가 꼭 그림 때문만은 아니다. 이시카와현 카나자와에 있는 '21세기 현대미술관'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곳을 설계한 건축사무소 SANAA에 관심을 가지는 이들이 많다. 작품보다 건축물이 마음을 끄는 것이다. 세지마 카즈요(妹島和世)와 니시자와 류에(西沢立衛)가 함께 운영하는 SANAA는 미니멀리즘적이며 선(禪, zen)적인 스타일의 건축을 추구하는데, 각 층을 박스 형태로 엮갈리며 쌓은 뉴욕의 '뉴 뮤지엄'으로 이미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세지마 카즈요가 2010년 베니스 건축비엔날레에서 강의를 했을 때는 유명 록스타를 대하듯 수천 명이 모여들어 입장을 제한하기도 했다.

이 두 사람은 각자 독자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한다. 토와다시 현대미술관은 니시자와 류에의 작품이다. 21세기 현대미술관이 원형 유리통의 단면 안에 전시실을 집어넣은 형태라면, 토와다시 현대미술관은 높이와 크기가 다른 직육면체 상자 여러 개를 툭툭 던져놓은 모양이다. 그러나 건물들 사이가 부드러운 곡선의 유리 회랑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떨어져 있는 건물들 사이를 오가면서도 분리되어 있다는 느낌을 들지 않는다.

높이 4미터에 이르는 론 무엑(Ron Mueck)의 <Standing Woman>이나 토와다시 인구보다 많은 10만 개의 수지 인형 조각을 매단 한국 작가 서도호의 <Cause and Effect> 등도 좋지만, 특히 재미난 작품은 벨기에 작가 한스 옵 드 비크(Hans Op de Beeck)의 <Location(5)>이다. 더듬거리며 들어가야 할 정도로 어두운 공간에는 미국 어느 고속도로변 다이닝 카페를 재현한 듯한 풍경이 펼쳐진다. 창가 테이블에 앉아 저 아래로 길게 뻗어나가는 도로와 가로등을 내려다보게 되어 있는데, 모든 것은 시각적 오해를 유발하도록 정교하게 계산한 연출의 효과다. 기분 좋게 속을 수 있는 곳으로, 추천!

01. 토와다시 현대미술관을 위에서 내려다 본 모습. 02. 미술관 주변 수목과 조화를 이룬 전시실 외관. 03. 카페테리아 건물 외벽에 그린 폴 모리슨의 <Ochrea>, 신화에 등장하는 사과나무 모티브를 흑백으로 그렸다. 04. 건물과 건물을 잇는 유리 회랑. 05. 정면 입구 앞쪽에 설치된 한국 작가 최정화의 <Flower Horse>. 06. 보는 이의 마음 상태에 따라 수천, 수만 가지 표정으로 읽히는 론 무엑의 <Standing Woman>.





## 데와자쿠라 미술관 出羽桜美術館

09:00~17:00 | 월요일, 연말연시, 전시 교체 기간은 휴관  
www.dewazakura.co.jp/museum.htm

일본 술 사케에 대한 명언이 있다. “로마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듯 좋은 술도 결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좋은 술은 좋은 문화가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 맛을 음미할 줄 알고, 어느 음식과 어떤 사케가 어울리는지 구분할 수 있는 안목도 있어야 한다. 매년 열리는 술 품평회에서 토호쿠 지역 브랜드들이 상위권을 차지하는 건 토호쿠의 쌀과 물이 좋은 덕도 있겠지만, 그 술 밑바탕에 있는 좋은 문화 덕분이기도 하다.

데와자쿠라 미술관은, 1893년 설립되어 4대째 사케를 만드는 데와자쿠라 주조회사 소유의 개인 미술관이다. 이 회사는 3대 사장 세이지로우 때 니혼슈 품평회에서 1위부터 3위까지를 휩쓰는 등 야마가타현을 넘어 전국적인 명성을 얻은 기업이다. 데와자쿠라 미술관 소장품과 뒤뜰 정원은 훌륭한 안목을 보여주는데, 현재 이곳에서 제일 귀한 대접을 받는 작품이 조선백자다. 3대 사장이 대학에 다니던 때부터 하나둘 사 모으기 시작한 조선 도자기들이 750

여 점에 이르며, 달항아리부터 연적과 명기까지 종류도 제법 다양하다. 뒤뜰 정원은 틈새 정원처럼 작은 것과 적당한 크기의 것 둘이 있는데 돌조각과 화초, 초목의 어울림이 좋다. 술 만드는 회사답게 다양한 종류의 술잔들도 모아 놓았다.

01. 미술관 외관. 02. 6월 말부터 새로 전시를 시작한 '조선백자 전'의 전시 모습. 03. 수천 개의 술잔 컬렉션 중 일부. 04. 국가등록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메이지 후기 양식의 100년 묵은 고택답게 내부와 외관 모두 정갈한 느낌이다.



## 다자이 오사무 기념관 <샤요칸> 太宰治記念館 <斜陽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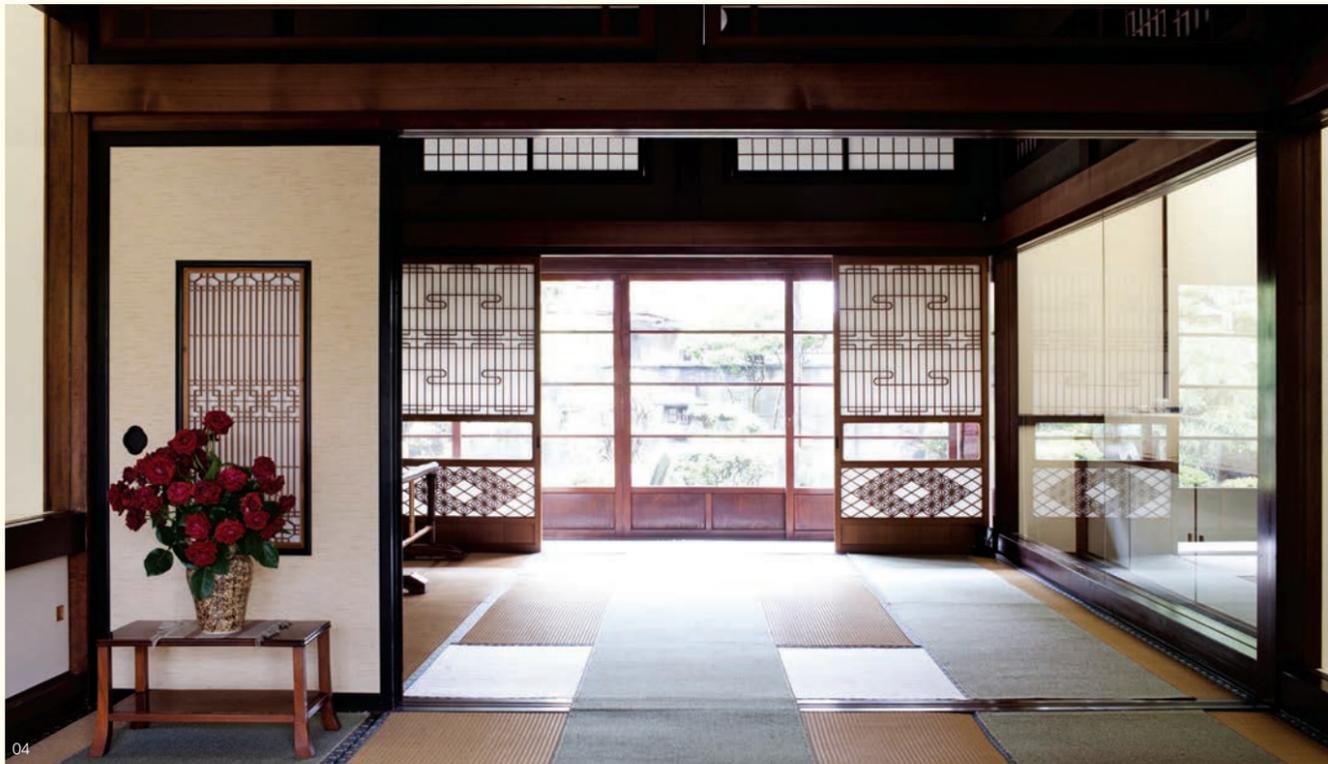
08:30~18:00(5월~10월), 09:00~17:00(11월~4월) | 12월 29일 휴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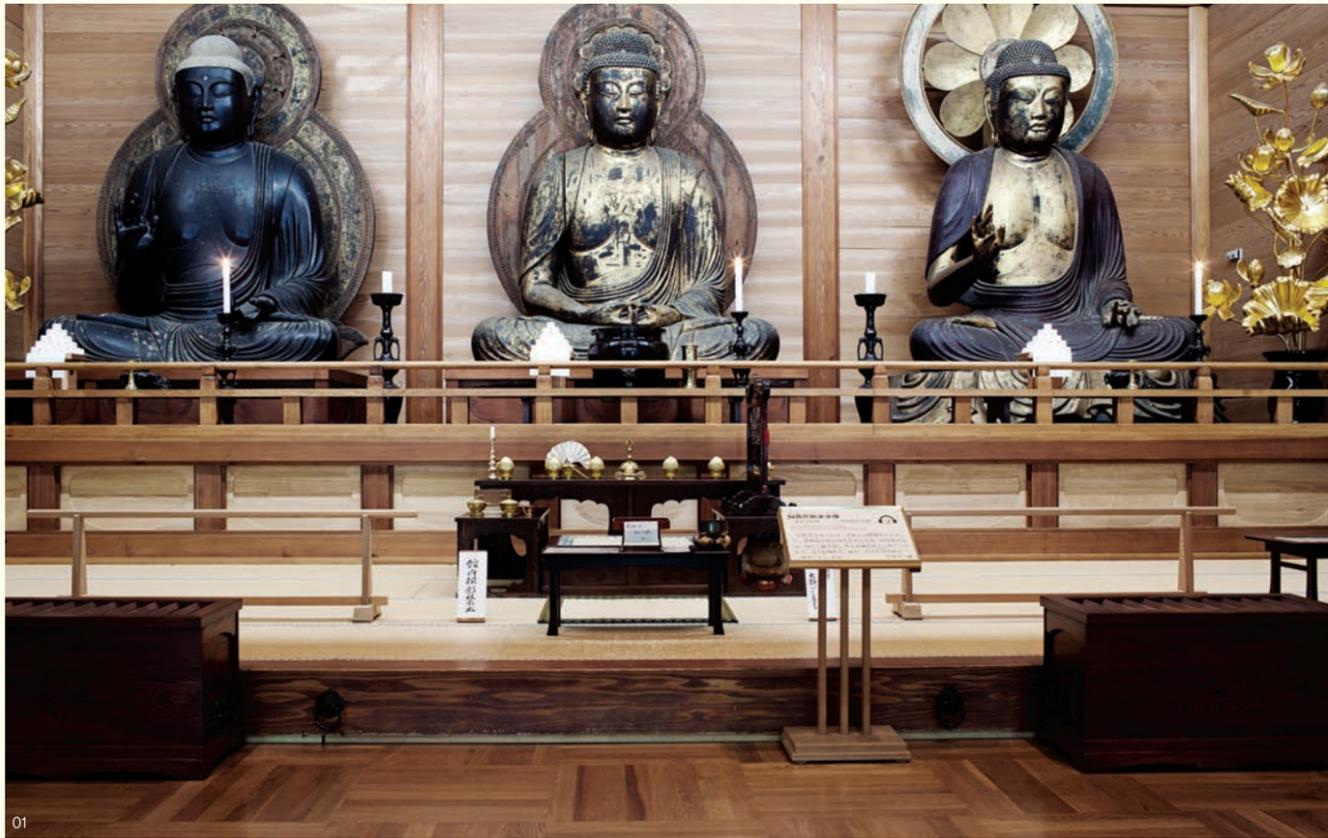
일본에서 다자이 오사무는 여전히 연예인 못지않게 인기가 높다. 아오모리 곳곳에 다자이 오사무 문학비와 그와 관련된 건물들이 있는데, 그중 제일은 고향 카나기초에 있는 기념관이다. 샤요칸(斜陽館)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기념관은 다자이 오사무의 생가를 개조한 것으로, 관람객이 너무 많아 휴관일은 1년에 단 하루뿐이다. 다자이 오사무는 “이 집은 멋대가리가 없다. 그냥 크기만 하다.”라고 했지만 기념관 구축구석을 채우고 있는 그림이나 방마다 달라지는 인테리어 디테일을 통해 메이지-다이쇼 시대의 지역 대지주들의 삶을 엿볼 수 있다.

그의 작품 『쓰가루』에는 가족들과 관계가 소원한 다자이 오사무가 오랜만에 이 집을 찾았을 때의 일이 자세히 묘사되어 있다.

특히 큰형이 사위에게 금병풍에 그려진 두 점의 그림을 보여주는 대목은 인상적이다. “하나에는 산의 벚꽃 풍경, 다른 하나에는 전원의 산수화가 한가로운 필치로 그려져 있었다.”는 구절에서 그는, 그림을 살피는 본인의 안목이 형에 미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자조를 솔직하게 내비친다. 다자이 오사무의 팬이라면 소설에 언급된 그림이 지금 기념관에 남아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재미있을 테다. 『쓰가루』는 한국에서 별도로 출간되지는 않았고, 단편집 『여자의 결투』 말미에 수록되어 있다.

01, 02, 03. 다자이 오사무 기념관의 내부. 1층에 11개, 2층에 8개의 방이 있고 부속 건물을 포함하면 총 면적이 2,247제곱미터에 이른다. 다자이 오사무가 태어나기 2년 전에 지어진 건물로 주로 노송나무를 썼다. 04. 기념관 외관. 2004년 12월 국가중요문화재로 지정되었다.





01

## 추손지 中尊寺

08:30~17:00(3월~11월 3일), 08:30~16:30(11월 4일~2월) | 연중 무료  
[www.chusonji.or.jp/index.html](http://www.chusonji.or.jp/index.html)

천태종의 사찰인 추손지(中尊寺)는 이와테현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꼽히는데, 이곳을 더욱 유명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일본 국보 1호인 곤지키도(金色堂)이다. 극락정토를 모방했다는 곤지키도는 1124년에 완공되어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건축물로, 당의 안팎을 옷칠과 나전, 금박으로 화려하게 장식하여 가히 당대 공예 기술의 집약이라 부를 만하다. 물론 보는 사람에 따라서 이런 장식에 대한 호불호는 나뉘겠지만 오래전부터 토호쿠의 순례자와 참배객, 여행자들에게는 '로망' 같은 장소였다.

1689년 하이쿠 시인 바쇼가 추손지를 찾아 이런 기록을 남겼다. "지난날 기둥과 서까래에 칠했던 칠보 장식은 지워지고, 옥을 박아서 장식했던 문도 긴 세월 동안의 바람에 상했으며, 금박을 입혔던 기둥 또한 서리와 눈보라에 벗겨지는 등 모든 것

이 무너져 무상한 풀밭으로 변해 버리고 말 형편이었던 것을, 사망을 새로이 두르고 지붕에 기와를 얹어서 건물을 지은 덕에 비바람을 견딜 수 있게 되었다." 바쇼가 다녀가고도 300여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여전히 곤지키도는 그 자리에서 '옛날을 엿볼 수 있게' 해 준다. 그리고 2011년 6월, '히라이즈미(平泉)-불국토(佛國土)를 꿈꾸는 건축, 정원 및 고고학적 유적군'이라는 이름으로 일본에서는 열두 번째, 토호쿠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다.



02



03



04

01. 추손지 보물관인 산코조(讚衡藏)의 첫 번째 전시실에 있는 삼존불상. 가운데 아미타여래좌상을 두고 좌우로 약시여래좌상을 모셨다. 모두 12세기 작품이다. 02. 03. 04. 산코조의 공예품 전시 풍경. 이곳에는 국보와 중요문화재를 포함해 오수 후지와라 시대부터 전해지는 3천 점 이상의 유물들이 있다.

LS네트웍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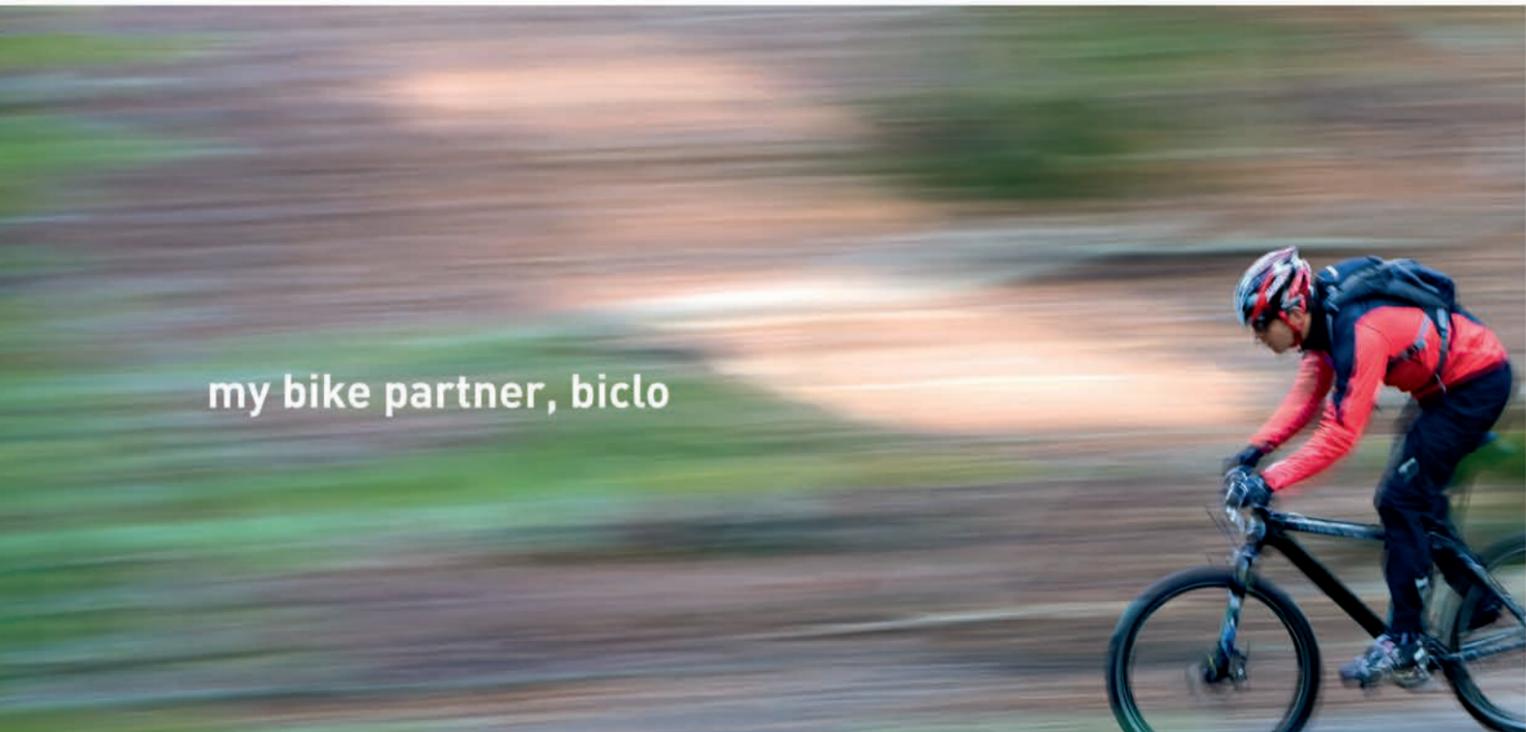
# 걷자, 제대로, 11자 워킹으로 프로스펙스W



NEW W POWER 415

흔들리는 발을 잡아주는 32개의 무브 프레임 셀

PROSPEC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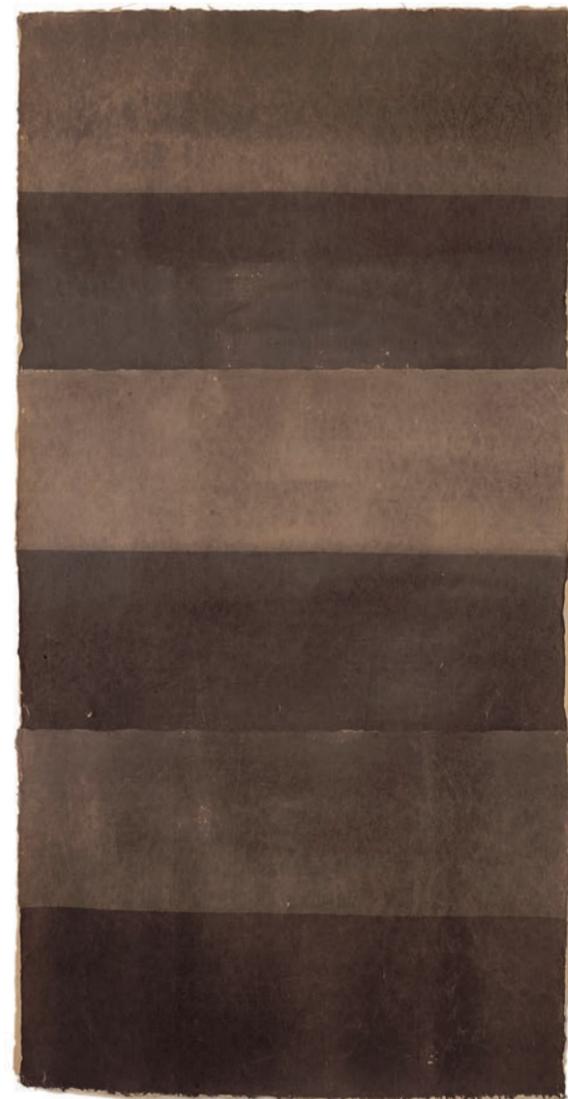
my bike partner, biclo

다양한 자전거 선택에서부터 정비, 함께 하는 라이딩까지  
**자전거 생활의 든든한 파트너**  
**바이클로와 함께 하세요**

LS네트웍스의 eco friend, eco business의 철학으로 탄생한 바이클로-  
 정찰가격제와 표준화된 정비 시스템으로 전국 어느 매장에서도  
 똑같은 가격, 똑같은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biclo** 바이클로

TALK 01



Untitled 97-01, 이정진,  
 100x197.5cm, edition 1,  
 2000

'공부, 평생토록 해야 할 일'에 삽입된 작품 사진들은 사진가 이정진의 <Untitled> 시리즈 중 일부이다. 모두 한지에 사진감광유제를 발라 인화한 뒤 뒷면을 같은 한지로 배접했다.

**공부(工夫),  
 평생토록  
 해야 할 일**

사람이 한평생 사는 데 중요한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평생 할 일, 평생 사랑할 사람, 그리고 평생 할 공부. 이 세 가지를 찾으면 행복한 인생이라 합니다. 이제 와 새삼 공부라니, 더구나 평생토록 해야 한다니 말만 들어도 손사래를 칠 법합니다만, 당장의 쓸모가 아니라 자신의 행복을 위해 공부를 해 본 경험이 우리에게 있었던가 싶습니다. '공부, 평생토록 해야 할 일'에서는 우리의 앎을 조금씩 넓혀 줄 동서양의 지식을 만납니다. 연재가 끝날 때쯤, 저마다 즐거운 공부거리 하나씩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Untitled 97-07, 이장진, 100x197.5cm, edition 1, 2000

博學之 審問之 慎思之 明辯之 篤行之  
 지식을 넓게 배우라. 깊게 캐물으라. 삼가며 생각하라.  
 밝게 분별하라. 신실하게 실천하라.

주희(朱熹), 『중용장구(中庸章句)』 제20장

# 수양론 옛 선비의

수양(修養)이라는 말은 몸과 마음을 단련하여  
 품성, 지식, 도덕, 인격 등을 닦는다는 뜻입니다.  
 그 안에는 몸과 마음이 하나라는 생각,  
 지식·인성·체력·행동거지가  
 모두 이어져 있다는 믿음이 담겼습니다.  
 몸은 몸대로, 마음은 마음대로  
 또 지식은 지식대로인 세월입니다.  
 오늘날 굳이 다시 수양을 둘러싼  
 옛 동아시아의 지혜를 배우려는 이유입니다.

## 글 편집부

한국의 옛 선비라고 하면 어떤 모습이 생각나십니까? 검소한 사랑방에 꼳꼳하게 앉아 낮이나 밤이나, 추위나 더위에나 아랑곳 않고 책을 읽거나 글을 쓰는 모습이 아닌가요. 물론 글 읽기는 선비들의 가장 중요한 공부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공부의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공자가 말한 '유어예(遊於藝)'라는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논어(論語)』 「술이(述而)」편에 등장하는데 원래 구절은 이렇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군자는 도에 뜻을 두고 덕을 닦으며 인에 의지하고 예에서 노닌다고 하셨다(子曰 志於道 據於德 依於仁 遊於藝).” 여기 '예에서 노닌다'의 예가 바로 '육예(六藝)' 즉 군자가 마땅히 익혀야 할 여섯 가지 기예입니다.

육예는 유학의 근본이 되는 오랜 책 중 하나인 『주례(周禮)』에 등장합니다. 예(禮), 악(樂), 사(射), 어(御), 서(書), 수(數)의 여섯 기예로, 각각 순서대로 예학, 음률, 활쏘기, 말타기, 글씨 쓰기, 수리학을 가리킵니다. 하나하나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나름의 복잡한 개념과 역사가 숨어 있는 기예들입니다. 몸과 마음을 움직이는 바탕이 되는 예학부터 시작해, 음악과 체육, 서예와 수학까지 포함하고 있으니 요즘 개념으로는 문과와 이과, 예능과 체육까지 고루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공자가 길러낸 삼천 명의 제자 중 육예에 통달한 사람은 고작 72명이었다고 하니 군자 되기의 어려움을 짐작할 만합니다.

유학은 이렇게, 주나라 때나 공자 당시에도 이론 교육이 아닌 생활 교육을 꿈꾼 학문이었습니다. 유학의 기본 교과서로 글공부를 시작하면서 거의 처음에 읽던 『소학(小學)』 역시 '비밀하고 물 뿌리는' 법도부터 충실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몸과 마음을 두루 연마하고, 일상에서 예의와 절도를 차리고, 부모님을 공경하며 가족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공부의 기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유학에서 '공부'나 '수신' '수양'이라는 말이 나오면 단순히 이론적인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폭넓은 바탕 위에 쌓아가는 인격 도야 과정이라고 이해하는 편이 더 낫습니다.

## 사람의 몸은 공부의 바탕이니

동양 고전 『대학(大學)』이나 『논어』에서 수신(修身), 수기(修己)라고 할 때 '몸 신'자와 '몸 기'자를 씁니다.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말에서도 '수신'이 나오지요. 이때의 몸은 정신과 분리된 몸뚱이가 아니라 인간의 개체성을 아울러 가리킵니다. 서양에서는 옛날의 플라톤 식으로 육체를 '영혼의 감옥'이라고 보는 전통이 있습니다. 물질과 정신을 이분법적으로 보기에 나온 시각입니다. 하지만 동양의 수신 즉 몸 닦음은 이런 이분법을 넘어섭니다. 몸은 마음과 이어져 있



“홀로 걸어갈 적에는  
그림자에게 부끄러운 짓을 하지 말고,  
혼자 잘 적에도 이불이 보기에  
부끄러운 일을 하지 말라”

**산책, 대책을 생각하며 내딛는 걸음걸이**

옛날에는 오늘날에 비해 사람들의 운동량과 노동량이 필연적으로 많았을 겁니다. 공부하는 선비라고 해도 집 안에서나 집 밖 이동을 위해 많이 오르내리고 걸었겠지요. 일도 하지 않고 세상 경험 없는 ‘백면서생(白面書生)’이라 한들, 요즘 사람들만큼 꼼짝하지 않았을라고요. 요즘은 동선을 최대한 줄인 편리한 구조의 집에 살면서, 집 밖만 나서면 곧장 탈 것이 흔하디 흔한 세상이지요. 운동을 위해 부러 시간을 내고 돈을 들여야 할 만큼, 일상생활과 움직임이 떨어져 있는 우리입니다. 요즘 사람들의 공부가 머리에만, 말에만 그치기 쉬운 것도 어쩌면 이처럼 몸을 쓰지 않는 세태와 관련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여기에서 우리 시대의 선비, 김열규 선생의 말을 빌어봅시다. 그는 『공부』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인간의 육체를 보는 시각은 그만큼 달라져 있다. 육체를 통한 시각은 육체에 의한 사고에까지 높여져 있다. 인간은 머리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육체로도 사색하고 사고한다. 그러니 육체가 공부에 관여하지 않을 수 없다. 사물이며 세계를 살펴보고 알아봄으로써 깨달음을 얻고, 그래서 지식을 갖추게 되는 일에서 육체는 단단히 한몫을 해내고 있다. 따라서 생각하는 것은 머리만이 아니다. 가슴과 살갓, 그리고 손발뿐만 아니라 다리를 통해서도 우리는 감각하고 생각하고 공부하게 된다. 그런 사실을 우리는 산책(散策)을 하면서 깨닫게 된다. 산책의 ‘책’은 계책(計策)이나 책략(策略)의 ‘책’이라서 사색(思索)의 ‘색’과도 그 뜻이 통한다. 책은 채찍이고 지팡이인 동시에 생각을 꾸미고 머리를 쓰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산책은 대책을 생각하고 사색을 하면서 내딛는 걸음걸이라는 뜻이 될 것이다. 그렇다.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면서 생각에 잠기면 그 걸음걸음이 머리에 작용하여 생각의 매듭을 엮어나가는 것을 느끼게 된다. 발걸음의 옮동이 생각의 움직임을 거두고 나서는 것이다. 그러다가 거꾸로 생각의 옮동이 발걸음의 옮동에 변화를 준다는 사실도 깨닫게 된다. 산책을 나가 걷다 보면 불현듯이 발바닥에 닿는 흙의 촉감마저도 생각을 일깨운다는 사실을 느끼게 된다. 다리와 머리가 단짝이 되어서 생각을 엮는다. 그래서 우리는 다리로도 생각하고 공부하게 된다. 이미 말한 대로 사람은 온몸으로 감각하고 사고하고 공부하는데, 몸을 온전히 떠맡치고 있고 몸을 거의 전적으로 이동시키는 다리가 생각과 공부에 관여를 하지 않을 수는 없다. 사람은 다리 로 걸으면서도 공부한다.”

고, 몸을 올바르게 가지지 않으면 마음도 올바르게 가지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나라나 다른 동아시아 국가의 선비들은 학문을 닦는 공부를 할 때 몸도 함께 닦았습니다. 수양에서 ‘몸을 닦는다’는 것은 건강 관리를 한다든가, 운동을 한다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개념입니다. 언제든 예의와 격식에 맞게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매사 삼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물론 그런 수양이 가능하기 위해선 몸의 건강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동아시아 옛 학자들이 남긴 책 속에는 먹고 마시고 잠자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등장합니다. 배불리 먹지 말고, 법도에 맞는 음식을 예학에 맞게 차리고, 술이나 여색(女色) 같은 유희에 빠지지 말라고 합니다. 도덕률이기 이전에 생활 관리법인 셈입니다. 이런 옛 학자들의 공부법을 대하면 시시콜콜한 규칙과 원칙 앞에서 답답함을 느낍니다. 공부만 하면 될 일이지, 자세며 생활 태도, 주위 정돈에 무어 그리 신경을 써야 하나 싶습니다. 공부의 내용만큼 공부에 임하는 마음 자세와 몸가짐, 그를 위한 생활 속의 섭생이 중요했음을 모르기 때문에 드는 생각입니다. 책을 읽고 외우고 글을 쓰는 것뿐 아니라 시시콜콜해 보이는 모든 제반 사항들을 다 포함한 것이 공부임을 알지 못하는 까닭입니다. 오늘날 아이들을 키우면서 ‘공부만 잘하면 된다’는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제대로 ‘공부만 잘하기’ 위해선, 학과 공부뿐 아니라 예의범절이며 문학·그림·음악 같은 예술 취미, 과학 지식, 걷고 움직이는 운동까지 고루 연마해야 하는데 말입니다. 그러니 ‘공부는 잘하는데 인성 교육이 부족하다’는 표현은 따지자면 절반만 옳습니다. 공부라는 말에는 인성 연마까지 이미 포함되어 있으니깐요.

《사인삼경도첩(士人三景圖帖)》. 강희언(姜熙彦, 1710?~1784?), 21x26cm, 수묵에 담채, 18세기 중엽, 개인 소장. 선비들이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며 활을 쓰는 모습을 담은 세 폭의 그림으로 이뤄졌다. 문·무·예를 함께 익혔던 선비들의 일상을 엿볼 수 있는 작품들이다. 각 폭마다 강세황의 발문이 있다. 01. 《사인시음(士人詩吟)》 여름날 선비들이 느티나무 아래 모여서 시를 짓는 모습이다. 02. 《사인취호(士人擲毫)》 대청마루에 모인 선비들이 그림을 그리고 있다. 03. 《사인사예(士人射藝)》 선비들이 모여 활을 쓰는 모습을 그렸는데, 화면 왼쪽 상단에 김홍도의 《빨래터》와 거의 유사한 장면이 보여 이채롭다.

## 남명이 방울과 칼을 지닌 까닭

‘하학상달(下學上達)’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가 있는 곳은 바로 현실 세계이니, 이 삶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형이상학적 진리, 자연의 원리까지 깨달을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논어』 「헌문(憲問)」편에 나오는 이 개념은 공자의 학문 정신인 동시에 공부하는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 개념은 성리학으로 이어져 유학의 고유한 공부론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옛 학자들의 공부법은 일상에서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인가를 묘사하면서 드러나곤 합니다.

퇴계 이황의 제자는 스승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계시는 곳은 깔끔하고 조용했고, 책상은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으며, 책이 벽을 가득 채우고 있으나 늘 가지런하여 어지럽지 않았다. 새벽에 일어나면 향을 피우고 고요히 앉아 정신을 가다듬었으며, 종일토록 책을 읽어도 게으른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다.”

남명 조식의 생활은 또 이러했다고 합니다. “닭 울음소리를 듣고 새벽에 일어나 의관을 갖추고 띠를 매고는 자리를 바로 하여 깨끗이 앉아서 어깨와 등을 뻗뻗이 펴니 바라보면 그림이나 조각상 같았다.” 가히 수도자의 자세와도 같지 않습니다. 남명은 밤을 새워 공부하면서 물 대접을 손으로 받친 채로 글을 읽었다고 합니다. 바르게 앉아 있지 않으면 물이 쏟아질 테니, 긴장을 풀지 않고 깨끗이 앉아 공부를 했다는 거지요.

한편 남명은 일생 동안 칼과 방울을 차고 다녔다고 전합니다. 그의 칼에는 “內明者敬 外斷者義(안으로 마음을 밝게 하는 것은 경이요, 밖으로 시비를 결단하는 것은 의다)”라고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안으로 스스로의 마음 자세를 굳게 하고, 밖으로 행동을 조심하려는 결의입니다. 칼이야 그렇다 치고 방울이라니 뜬금없다 싶습니다. 이 방울에는 ‘성성자(惺惺子)’라는 이름까지 있었습니다. ‘성성(惺惺)’은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것을 가리키니, 언제나 정신이 깨어 있음을 뜻합니다. 쇠로 만든 방울 소리를 들으면서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경각심을 일으키며 긴장이 흩어지지 않게 하려는 의도였을 겁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혼자서도 마음을 추스르는 이런 태도가 바로 ‘신독(慎獨)’입니다. 『대학』 「성의(誠意)」장과 『중용』 제1장에도 등장하는 신독은, 올바르게 못한 생각이 일어났을 때 바로 물리치겠다는 마음입니다. 16세기의 학자 임숙영(任叔英)은 신독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독 공부가 어찌 어렵지 않겠는가? 만약 신독을 능히 한다면 집 안의 은밀한 곳에서도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게 하는 것이 상등이 될 것이다. (...) 자기 아내에게 부끄럽지 않게 하는 것이 그다음이다.” 혼자 있을 때에도, 아내와 둘이 있을 때에도 부끄러운 언행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송나라 때의 학자 진덕수(眞德秀)는 한층 더해서 “홀로 걸어갈 적에는 그림자에게 부끄러운 짓을 하지 말고, 혼자 잘 적에도 이불이 보기에 부끄러운 일을 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이 아닌 사물을 놓고도 삼가며 경계하라는 말입니다.

한편 송나라 때의 유학자 정자(程子) 형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욕심을 막기를 구덩이 메우듯이 하라. 분노를 징계하기를 산을 깎아 버리듯이 하라. 배운은 남이 보지 않는 어두운 방 안에서 자신을 속이지 않는 데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신독이 왜 필요한지를 말해주는 구절입니다. 나의 욕심과 분노를 다스리는 것, 스스로에게 정직한 것에서 공부가 시작됩니다. 마음을 올바르게 세우면 몸이 저절로 곧아집니다. 몸이 곧아지면 마음은 다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혼자서도 떳떳하게, 멈추지 않고 갈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길을 함께 가는 도반이 있다면야 더 바랄 나위가 없겠지요.

## 어려운 길, 하지만 나만이 할 수 있는

이런 자세로 해야 하니 공부가 쉬울 리가 없습니다. 차라리 요즘 말하는 공부가 속이 편할 지경입니다. 그러니 퇴계 학맥의 학자 이광정(李光靖)이 아들을 간곡하게 타이른 것도 당연한 일 같습니다.

“독서는 또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발분하여 스스로 노력해 굳세고 고달픈 공부를 하지 않으면 끝내 성취하는 것이 없게 될 것이다. 또 한갓 글을 외우고 읽는 것으로는 불가하다. 글의 뜻을 조용히 음미하며, 의리에 침잠해야 한다. 낮에는 글을 읽고 밤에는 그 뜻을 생각하면 거의 가망이 있을 것이다.”

‘진실심지 각고공부(眞實心地刻苦工夫)’라는 말도 있습니다. 주자의 문인인 황간(黃幹)이 한 말입니다. ‘진실한 마음 자세와 뼈를 깎는 노력’이란 뜻입니다. 이 둘이 합해져야 공부를 이룰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나라에도 많은 영향을 끼쳐서, 조선 시대 학자들 가운데에는 이 여덟 글자를 걸어 놓고 공부에 매진한 사람도 여럿이었습니다.

이쯤에서 지레 마음을 접고 “그래, 난 역시 공부 체질이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분도 더러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평범한 우리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글이 있습니다. 다산 정약용이 제자 황상(黃裳)을 처음 만났을 때 해 준 이야기입니다. 황상은 스승을 처음 만난 날부터 60주년이 되는 때, 스승과의 만남을 회상하며 이렇게 썼습니다. 스승이 ‘문사(文史)’를 공부하라고 하자 황상이 이렇게 말했다지요.

“세계 세 가지 병통이 있습니다. 첫째는 둔하고 둘째는 꼭 막혔고 셋째는 미웍하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다산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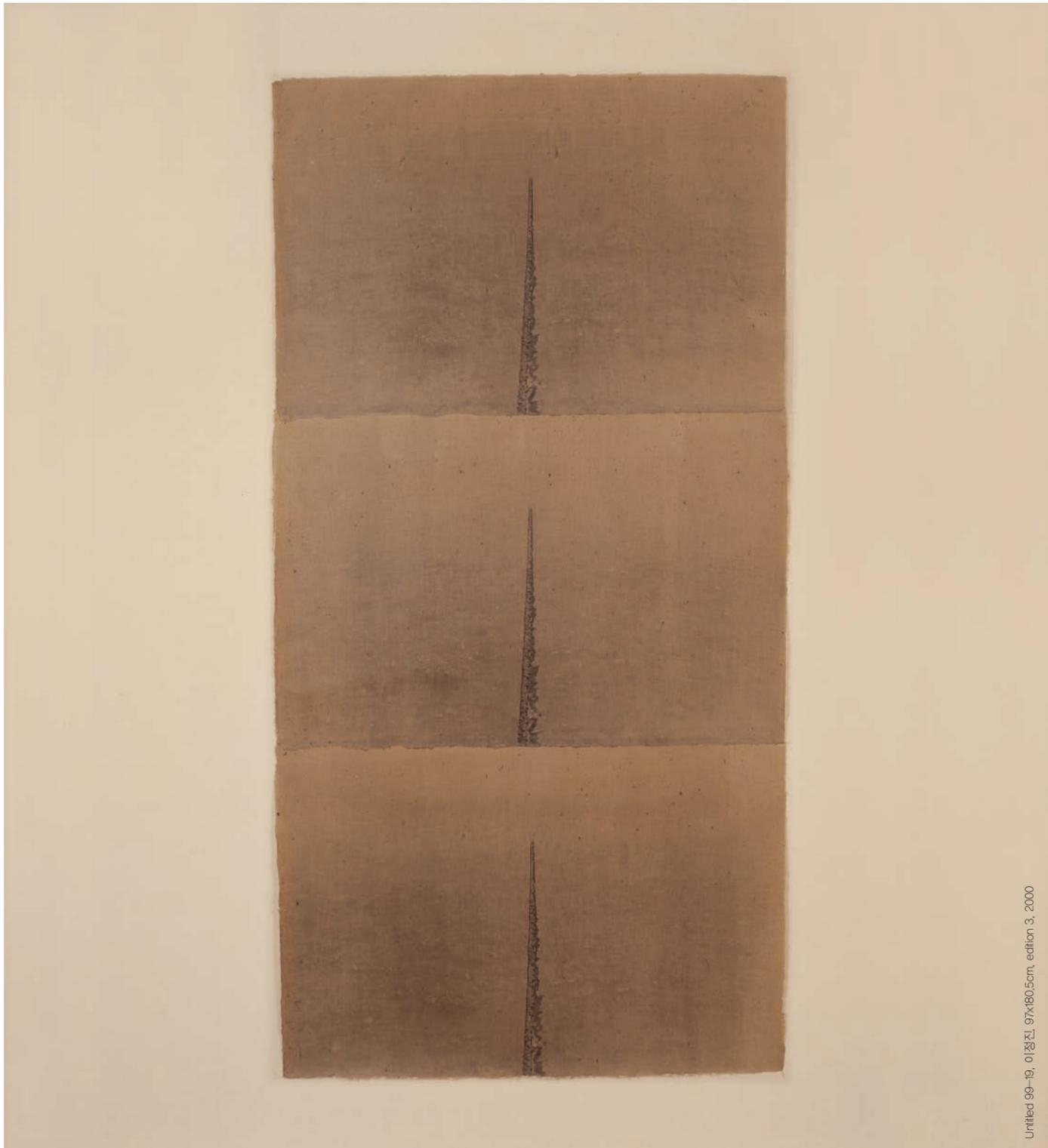
“공부하는 자들이 갖고 있는 세 가지 병통을 너는 하나도 갖고 있지 않구나! 첫째는 기억력이 뛰어난 병통으로 공부를 소홀히 하는 폐단을 낳는다. 둘째는

글 짓는 재주가 좋은 병통으로 허황한 데에 흐르는 폐단을 낳는다. 셋째는 이해력이 빠른 병통으로 거친 데에 흐르는 폐단을 낳는다. 둔하지만 공부에 파고드는 사람은 식견이 넓어지고, 막혔지만 잘 뚫는 사람은 흐름이 거세지며, 미웍하지만 잘 닦는 사람은 빛이 난다. 파고드는 방법은 무엇이나. 근면함이다. 뚫는 방법은 무엇이나. 근면함이다. 닦는 방법은 무엇이나. 근면함이다. 그렇다면 근면함은 어떻게 지속하느냐. 마음가짐을 확고히 갖는 데에 있다.”

어떻습니까. 이 정도면 우리도 한번 해봄 직하지 않겠습니까?



04. <독서당계회도(讀書堂契會圖)>, 작자 미상, 57.5x 102cm, 비단에 수묵, 1570년 적으로 추정, 서울대학교 박물관 소장. 조선 시대에는 나라에서 문신들에게 휴가를 주어 책을 읽도록 하는 사가독서(賜暇讀書) 제도가 있었다. 이는 나라의 인재 양성을 위한 정책이었다. 독서당은 사가독서에 선발된 사람들을 위한 일종의 전용 연구 기관이었다. 성종 때 처음 생긴 독서당은 풍광이 좋았던 현재의 용산에 있었고 중종 때 동호(東湖)에 새로 독서당을 지어 옮겼다. 동호 독서당 위치는 약간의 논란이 있지만, 한강이 보이는 경치가 좋은 곳이었으리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이 그림은 독서당에서 열린 선비들의 모임을 그렸는데 정철·이이·유성룡 등 9인이 참석한 회회를 묘사했다.



# 퇴계의 『활인심방』 마음이 몸의 주인

마음이 고요하지 못하면  
기혈의 흐름이 고르지 못하고 탁하여  
온갖 병의 원인이 된다.

글 편집부

『활인심방』은 퇴계가 필사한 책 『활인심』의 다른 이름이다. 퇴계 이황은 명나라 주권이 쓴 『구선활인심법』을 원본으로 직접 필사를 했는데, 원전의 상하 2권 가운데 상권을 옮겼다. 퇴계의 『활인심방』은 서문과 본문으로 나뉘는데, 서문에서는 양생의 중심은 예방에, 의학의 중심은 치료에 있으며 그 근원이 상고시대 성인과 황제들에서 시작한다는 점, 마음의 중요함과 책을 쓰게 된 유래 등을 밝혔다. 본문에서는 병의 종류를 논하면서 병의 원인이 마음에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한 후, 마음을 다스려 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대강을 밝혔다. 그리고 기를 다스리는 치료법과 여러 양생법, 기공법 및 보양 음식 등이 차례로 등장한다.

퇴계 이황은 스무 살 때부터 주역 공부에 지나치게 빠져들며 건강을 해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책을 많이 읽고 생각을 많이 하다 보면 소화도 안 되고 몸이 전체적으로 약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인지 퇴계의 문집에는 병으로 고통을 겪는다고 털어놓은 대목이 꽤나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 퇴계에게 중국 양생서인 『구선활인심법(脩遷活人心法)』과의 만남은 참 반가운 것이었나 봅니다. 책을 직접 베껴 써서 『활인심』이라고 이름 짓고, 그 안에 등장하는 양생법을 직접 실천했으니 말입니다. 『활인심』의 원본인 『구선활인심법』은 중국 명나라 사람 주권(朱權, 1378~1448)이 쓴 책입니다. 도교의 양생법을 담은 책이라서, 성리학을 중심에 두었던 조선의 선비가 이 책을 받아들였다는 사실이 좀 이채롭기도 합니다.

퇴계가 이 책을 언제 필사했는지는 분명치 않습니다만, 연구에 따르면 아마 그의 나이 33세 이후 40대 초반 사이에 『구선활인심법』을 접했을 것이라고 합니다. 퇴계의 나이 50대에 친구에게 쓴 편지 속에 “평소 익힌 도인 기공법의 이치에 힘입어” 지병이 크게 도지지 않고 견뎌냈다는 구절도 등장하니, 꽤 오랜 기간 동안 『활인심방』의 도인 기공법을 활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활인심방』에서 주목할 만한 구절이 바로 공부와 개인의 수양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람의 병을 다스리고 고치려는 사람은 먼저 병의 원인을 잘 알아야 한다. 특히 사람이 일생을 통해 공부를 한다고 하면, 자신의 수양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공부하는 사람이라고 자처하는 사람은 자신을 살리는 방법, 즉 자신의 결점과 단점을 보완하고 그것을 고쳐 나갈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그래야 세상에 뒤흔히게 나설 수 있으리라.”

공부를 하는 사람은 모름지기 자신의 건강 관리와 섭생법에 대해 스스로 통달하고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몸에 문제가 생겼다면 그 원인을 알아차리고, 고칠 방법을 고민하는 것이 모두 수양의 일환이라 했습니다.

요즘도 공부나 일에 골몰하느라 건강을 해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공부의 바탕, 깨달음의 근원인 자신의 몸을 이해하고 보살피는 것에서부터 공부가 시작됨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일을 하는 주체인 나 자신을 망각하고, 일이라는 대상에만 빠지는 실수를 범한 것이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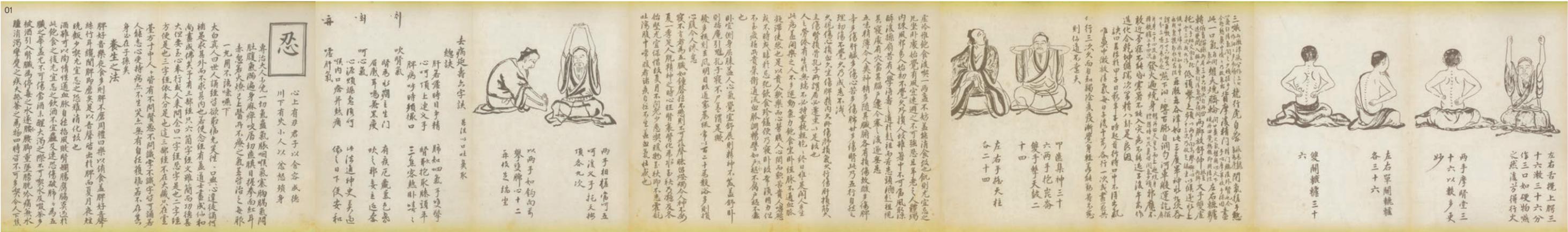
뒤늦게라도, 내 몸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상태와 변화를 예민하게 살피는 것도 공부요, 일이라는 사실을 자각해야 옳습니다. 내 몸과 공부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내 일과 내 몸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又曰 病中有病中工夫 馬上有馬上工夫 以至枕上廁上  
坐臥行步 亦各有當然之工夫 何處非用工之地也

또한 말씀하시기를 ‘병중에는 병중 공부가 있고 말을 탔을 때는 마상 공부가 있다. 심지어 베갯머리, 측간, 앉은 도중, 누운 도중, 실천할 때, 걸을 때에도 각기 그에 합당한 공부가 있다. 어느 곳인들 공부하는 곳이 아니겠는가?’ 하셨다.

윤동원(尹東源), 『일암유고(一庵遺稿)』 권3, 「가장(家狀)」, 『조고문성공가정(祖考文成公家狀)』

United 99-19, 이장진, 97x180.5cm, edition 3, 2000



## 오래 살고 싶다면 우주에 순응하라

『활인심방』은 병을 다스리는 방법으로 예방과 치료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병의 근원은 하나, 즉 모든 것이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모든 일에 태연하고 맥박의 흐름이 활발하다. 그러나 마음이 고요하지 못하면 기혈의 흐름이 고르지 못하고 탁하여 온갖 병의 원인이 된다. 그러므로 성품이 차분하면 정신이 평안해지고, 마음이 산란하면 정신이 피로하다. 따라서 참됨을 지키면 저절로 뜻이 가득하게 된다. 여러 가지 일을 복잡하게 추구하면 생각이 얽히고설키며 정신이 산란하게 되고, 정신이 산란하게 되면 기운이 흩어져 병이 생기게 되며, 결국은 죽게 된다.”

그러니 훌륭한 의사는 사람의 마음을 살펴 병증을 다스립니다. 병의 원인을 고쳐야 하니 말입니다. 행동이나 습관으로도 병이 생기지만, 그 행동 역시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하지요. 건강이 좋아지기를 바라는 사람이라면 먼저 마음을 다스리는 게 당연해집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의심과 걱정, 잡념 등을 버리고 불평과 차별심을 버려야 몸과 마음이 자연에 가까워진다는 것입니다. 『활인심방』에서는 사람의 마음을 우주의 원리와 연결시켜 생각합니다. 자연 즉 우주의 원리와 질서에 순응하여 그것을 자신의 마음으로 삼는 것이 옳은 삶이라고 합니다. 그런 이치를 깨달은 사람은 병도 없�지며, 다른 사람의 병도 고칠 수 있다고도 합니다.

물론 현대를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에게 이런 경지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도, 마음이 평온해지면 일상의 온갖 경쟁과 스트레스가 가볍게 느껴지기는 할 듯합니다. 몸도 활가분해지고, 나 자신에게 좀 더 충실해질 수 있을 듯도 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고 그 길을 잘 지키고 산다면, 무리하거나 욕심내지 않고 자신의 수명만큼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체조가 아니라 공부입니다

『활인심방』에서는 운동 부족을 경계합니다. “사람이 할 일이 없으면 몸이 노곤해진다. (….) 한 가로이 노는 사람은 기운을 쓰는 일이 적다. 또한 배부르게 먹고 앉아 있거나 누워 있는 때가 많다. 그러므로 경맥이 통하지 않고 혈맥이 응어리져서 그렇게 된다.” 누가 보아도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것이 ‘도인법(導引法)’입니다. 도를 이뤘다는 도인(道人)이 아니라, 마음으로 몸속의 기를 이끌어서 필요한 곳으로 흐르게 하는 기공 방법을 의미합니다. 『활인심방』에

01. 좌식팔단금의 그림은 퇴계 이전에 도 중국의 여러 문헌에 등장한다. 위에 보이는 그림은 퇴계학연구원에서 1973년 영인 배포한 퇴계 필사본 『활인심방 퇴계선생 유묵(遺墨)』에 나오는 것이다. 『활인심방』 원문에서는 도인법 동작을 설명하면서 ‘하늘의 북’ ‘하늘 기둥’ ‘붉은 용’ ‘신비한 물’ ‘도르래’ ‘물 푸는 수레’ 등의 비유적인 표현을 쓰고 있다. 책에서는 이 도인법을 오래 계속하면 모든 질병이 깨끗이 제거됨을 스스로 알게 되고 차츰 몸이 가벼워짐을 느끼며, 부지런히 애써 게으르지 않으면 신선의 길도 멀지않은 않다고 말한다.

있는 도인법은 ‘좌식팔단금(坐式八段錦)’이라는 기공법입니다. 앉아서 하는 체조 비슷한 여러 동작들을 설명해 놓고, 소박한 그림들도 곁들였습니다. 퇴계가 직접 그린 삽화라고 합니다.

눈을 감고 마음이 캄캄한 상태로 앉아서 시작되는 이 도인기공은 어금니 마주치기, 두 손으로 정수리 감싸기, 손으로 머리를 치기, 목과 척추 비틀기, 허로 양치질하기, 손바닥 비비기, 허리 문지르기, 어깨 돌리기, 다리 뻗기, 각지 꺾서 팔 올리기, 다리 뻗고 몸 앞으로 굽히기 등으로 이어집니다. 요즘의 요가 동작이나 스트레칭 체조와도 비슷해 보입니다만, 원문에는 조금 더 개념적인 설명이 덧붙어 있습니다. 갑자일 한밤중 자시에 처음으로 시작하고, 매일 자시 이후 오시 이전에 한 차례씩 실행하거나 낮밤을 합하여 세 차례씩 실행하라는 충고도 있습니다.

마음이 병의 원인이며,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고 말하는 『활인심방』에 이런 도인법이 들어 있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퇴계 본인이 직접 동작을 설명하는 그림까지 곁들일 만큼 책 속에서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는 것을 보면 그 이유가 더 궁금해집니다.

우리가 조선의 대표적인 성리학자로 꼽는 퇴계도 아마, 학문에 전념하고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 몸의 건강이 우선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싶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건강을 지켜가는 방법의 하나로 좌식팔단금 도인기공을 실천하면서, 퇴계는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스스로 떳떳해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활인심방』에 등장하는 도인기공은 모르고 보면 그냥 단순한 체조입니다. 하지만 그 의미를 차분히 살펴보면 동작 속에 우주의 이치와 에너지의 순환을 담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같은 동작을 하더라도 심오한 의미를 부여하면서, 이런 작은 실천이 내 공부의 하나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옛 유학자들의 과장된 의미부여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도 지금 내가 몸을 움직이고 호흡하는 동작들이 단순한 심박수나 근지구력 수치가 아닌, 자연의 순환 속으로 스며드는 마음 공부의 하나라고 생각한다면 나의 일상이 조금씩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꼭 책을 읽어야 공부인가요. 스트레칭 하나에도 정성을 담아, 의미와 깊이를 담아 실천한다면 벌써 공부의 세계로 성큼 걸어들어간 셈입니다.

# 서로 다른 방향의 수양책



01 글 편집부

학교 다닐 때 누구든 역사 시간에 이름을 들어보았을 책으로 『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와 『성학십도(聖學十圖)』가 있습니다. 이 두 책은 전혀 다른 독자를 위해 만들어졌지만, 독자가 책 내용을 좀 더 쉽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 그림을 곁들였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책 모두,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가르쳐 주는 ‘수양 교과서’ 역할을 했다는 공통점도 있습니다.

## 사대부에서 서민까지 널리 읽던 윤리 교과서, 『삼강행실도』

『삼강행실도』는 조선 시대 동안 가장 많이 출판된 책으로 꼽힙니다. 이 책은 지식인층뿐 아니라 한자를 읽지 못하는 서민들에게까지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삼강행실도』는 세종 13년인 1431년, 왕의 명령으로 집현전 부제학 설순이 편찬·간행한 책입니다. 효자와 열녀·충신 가운데 남달리 뛰어난 사례들을 뽑아서 소개하고 시와 그림을 덧붙인, 일종의 수양 교과서입니다.

세종은 이런 교과서가 발간되어 널리 읽히면, 사대부는 물론이거니와 일반 백성들의 풍속도 크게 바뀌어서 백성들이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할 것이라 기대했다 합니다. 그래서 책 제목부터 인쇄며 배포, 교육에까지 왕이 직접 많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삼강행실도』가 유학적

인 가치를 굳건하게 다져주면, 곧 왕조의 통치 이념도 반석에 오를 것이라 보았기 때문이지요. 『삼강행실도』에서 독특한 점은 중국의 효자·충신·열녀를 소개하면서 각각 마지막에 우리나라의 사례를 첨가했다는 사실입니다. 독자들에게 이 책이 좀 더 친근하게 느껴지기를 바라서였을 것입니다. 이 책에 그림이 들어간 것은 명목상으로는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내용을 쉽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만, 실은 그림을 통해 내용을 더욱 강하게 각인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 그림만으로는 내용을 짐작할 수 없고, 그것과 함께 있는 글을 읽어야만 비로소 그림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삼강행실도』가 처음 편찬되던 당시 조선은 안정적인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진주에 살던 김화

유교적인 통치 이념의 수양 교과서  
『삼강행실도』는  
수도에서 지방으로, 상층에서 하층으로  
번져나갔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02



03

라는 사람이 아버지를 살해하는 사건이 일어나 유교적인 충효의 가치를 국가적으로 강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 아직 왕실의 기반이 확고하지 않아 새로운 왕조의 통치 이념과 정책을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책이 편찬되고 세월이 흘러, 조선에는 점점 효자와 열녀가 늘어났습니다. 종종 때 나라에서 표창을 받은 효자와 열녀 47명 가운데 여러 사람이 『삼강행실도』를 언급했습니다. 책을 보고 부모의 병을 고치기 위해 손가락을 자른 효자, 평상시에 『삼강행실도』를 암송하며 생활하던 중 지극한 정성으로 남편의 병을 완쾌시킨 열녀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실들에서 유교 통치 이념의 수양 교과서가 수도에서 지방으로, 상층에서 하층으로 번져갔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04

05

02~05. 『삼강행실도』에 등장하는 삼강오륜의 사례들은 현대인의 시각으로 보기에는 자못 극단적인 것이 많다. 부모가 깊은 병이 들자 자식이 손가락이나 신체를 훼손하여 봉양했다든가,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 호랑이를 죽였다든 등의 이야기들이 그렇다. 하지만 중세 사람들에게 이 책은 가장 인기 있는 윤리 교과서였고, 판본을 고쳐가며 거듭 출판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륜행실도』, 『오륜행실도』, 『속삼강행실도』, 『동국신속삼강행실도』 등 관련 작품들의 출판도 이어졌다.

## 왕을 위한 수양책, 『성학십도』

『성학십도』는 『삼강행실도』와는 전혀 다른 독자층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 책은 퇴계 이황이 68세 되던 해에, 17세의 어린 임금 선조를 위해 쓴 책입니다. 제목을 보아 알 수 있듯이 ‘성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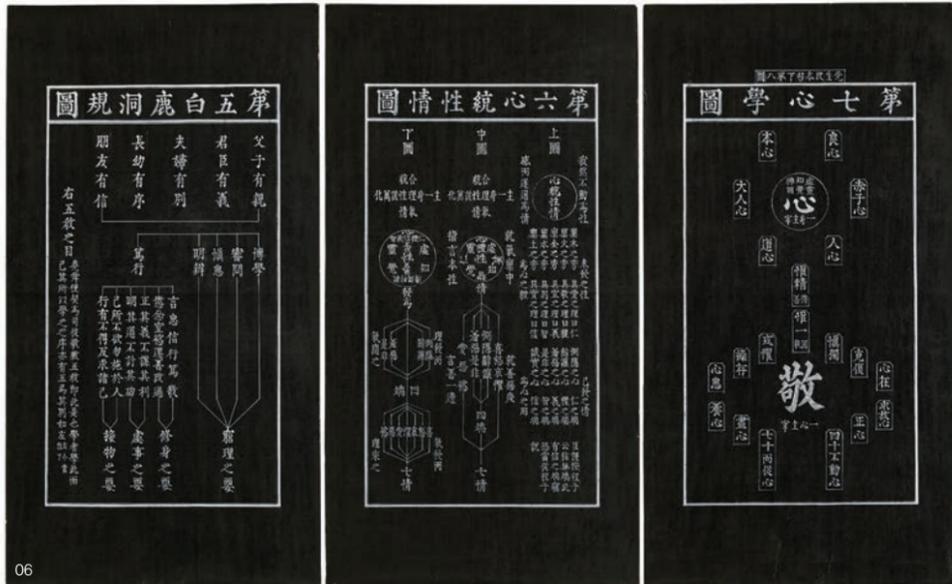
(聖人)이 되기 위해 알아야 할 성리학의 핵심 내용을 열 장의 그림을 통해 요약 정리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그림으로 보는 성리학 요점 정리 교재인 셈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그림 10장으로 보는 성리학' 정도의 제목이 어울리겠지요?

이 책에 등장하는 10장의 그림은 대부분 퇴계 이전부터 전해오던 것입니다. 제6도인 <심통성정도>는 옛 그림을 바탕으로 퇴계가 보충했고, 제5도인 <백록동규도>와 제10도 <숙흥야매잠도>는 내용만 있던 것에 퇴계가 직접 그림을 그렸습니다. 처음 다섯 장의 그림은 하늘의 도에 근거하여 우주의 원리를 밝히고 이를 통해 인간의 도리를 밝히는 내용입니다. 뒤 다섯 장은 인간 심성에 근거하여 일상생활에서 힘써야 할 일을 말했습니다. 열 장을 통틀어 말하면 '경(敬) 중심의 철학 체계'가 됩니다.

'성학'이란 성인이 되기 위한 학문을 의미하는 동시에, '성인의 참모습을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성인을 존경하면서 나 스스로 그런 성인이 되기 위해 노력하라는 뜻이 책 속에 담겼습니다. 만물의 근원을 담은 태극도에서 시작해, 『소학』과 『대학』, 학문하는 방법, 인간 마음의 본성, 감정 구조, 사단칠정, 경을 실천하는 자세, 공부하는 방법 등을 다 담았으니 유학의 원리와 수행 방법이 고스란히 표현된 것입니다.

『성학십도』의 원래 명칭은 '진성학십도차병도(進聖學十圖筌并圖)'입니다. 새로 즉위한 선조 임금에게 장차 성군이 되어 백성을 위한 정치를 펼쳐 달라는 취지의 상소문을 올리고, 그 끝에 상소문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그림을 덧붙인 형식입니다. 『삼강행실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해를 돕는다는 명분이 있기는 하지만, 내용을 머릿속에 각인시키려는 의도가 더 컸으리라고 보입니다. 비단 선조 임금만이 아니고, 성리학을 배우고자 하는 독자들이 일목요연하게 퇴계의 사상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성리학 수양 교과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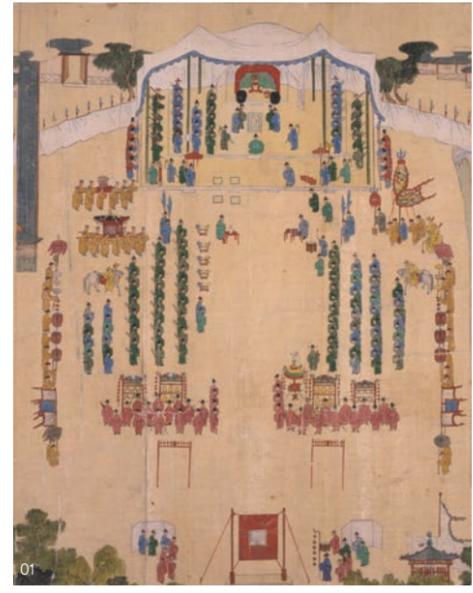
교과서가 재미없기는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모양입니다. 어떻게든 공부하는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기억에 무엇인가 새기기 위해, 사람들이 동원하는 방법이 시각 자료입니다. 『삼강행실도』와 『성학십도』는 조선 시대의 대표적인 수양 교과서들로, 많은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영향을 끼쳐온 책들입니다. 성리학은 생활 윤리부터 국가의 통치 이념, 나아가 우주의 근원과 질서까지 담은 철학입니다. 그래서 가장 형이상학적인 철학 논의를 담은 교과서도,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생활 속 교훈을 담은 교과서도 이로부터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06. 이황이 선조에게 올린 『진성학십도차병도』는 서른 격인 '진성학십도차'와 10개의 도표로 구성되었다. 그 차례는 다음과 같다. 제1도 <태극도(太極圖)>, 제2도 <서명도(西銘圖)>, 제3도 <소학도(小學圖)>, 제4도 <대학도(大學圖)>, 제5도 <백록동규도(白鹿洞規圖)>, 제6도 <심통성정도(心統性情圖)>, 제7도 <인설도(仁說圖)>, 제8도 <심학도(心學圖)>, 제9도 <경재잠도(敬齋箴圖)>, 제10도 <숙흥야매잠도(夙興夜寐箴圖)>. 사진은 왼쪽부터 제5도, 제6도, 제7도. 각각 36x66.5cm로 조선 후기에 옮겨 그린 그림들이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01. <어사도(御射圖)>, 《대사례도첩(大射禮圖帖)》, 46.9 x 60.4cm, 1743년, 고려대학교 박물관 소장. 대사례는 왕이 성균관에서 석전례를 지낸 후 신하들과 하는 활쏘기 의식이다. 이 <어사도>는 영조 19년(1743) 윤4월 7일에 거행된 대사례 광경을 담은 《대사례도첩》의 첫 작품으로, 영조의 활쏘기 장면을 담고 있다. 이 뒤로 종친, 의빈, 문무관 등 신하들이 찍지어 활을 쏘는 모습을 담은 <시사도>, 활쏘기 결과에 따라 시상하는 것을 그린 <상별도>가 함께 있다. 그림 뒤에는 '어사삼학'이라 하여 영조의 활쏘기를 기록하고 시사관 30명의 좌목과 성적, 병조판서 서중옥이 쓴 '대사례도서'를 수록했다.

# 조선의 임금들이 몸과 마음의 교육을 만드느라



조선 왕세자 교육은 문무를 겸비한 완전 인격체로서의 왕을 꿈꾸었습니다.

글 편집부

경영학이나 자기계발 쪽에서 가끔씩 '제왕학'이라는 말을 씁니다. 왕이 될 사람이 받는 교육을 가리키는 말이지요. 요즘은 제왕학을 지도자에게 필요한 덕목이라 하여 재조명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텔레비전의 사극이나 역사서 속에서 스승을 모시고 유교 경전을 공부하는 세자의 모습이 종종 등장하는 때문인지,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임금이나 세자들도 공부를 열심히 해야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왕들은 과연 어떤 교육을 받았을까요.

## 왕세자여, 학문을 일으키고 무예를 익히라

조선 시대에는 국왕의 학문을 성학(聖學)이라고 불렀고 그에 비해 왕세자의 학문을 예학(睿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이름만 달랐을 뿐 학문의 내용이 다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왕세자란 장차 국왕이 될 사람이었으니까요. 예학이라면 보통 성리학만 떠올리기 쉽지만, 그와 더불어 세자로서 갖춰야 할 품성과 행실을 배우는 것도 역시 공부 과정에 포함되었습니다. 세조가 세자에게 내린 '훈사(訓辭) 10장'은 예학을 닦는 도리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조가 세자에게 부탁한 열 가지 당부사항은 이렇습니다.

- 항덕(恒德)** 한결같은 덕을 가질 것. 배필을 중하게 여기고, 대신을 공경하며, 어진 신하를 가까이 하고, 소인을 멀리하라.
- 경신(敬伸)** 신을 공경하여 섬길 것. 신을 업신여기고 백성을 학대하면, 복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없어진다.
- 납간(納諫)** 간언을 받아들일 것. 바른말로 간언하는 사람이 없으면 세상일에 어두워져 아는 것이 전혀 없고 폐단을 알 수 없게 되어 나라가 망한다.
- 두참(杜讒)** 참소를 막을 것. 백성들의 근심과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 항상 너그럽게 용서하고, 원통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백성들의 뜻을 살피면 참소가 없어진다.
- 용인(用人)** 사람을 가려서 쓸 것. 사람을 쓸 때에는 그 마음을 취해야지 재주를 취하지 말라. 부모와 화목하고 자상하며 은혜로운 사람을 써라.
- 물치(勿侈)** 사치하지 말 것. 군주가 귀하게 되고 나라가 부유해지면 사치하려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 백성을 위하여 정사를 부지런히 해야 할 뿐이다.

- 사환(使宦) 환관을 조심해서 부릴 것. 국왕이 궁중에 있으면서 환관이 명령을 전하거나  
분명한 신념 없이 소문만 들으면 안 된다.  
항상 신하들을 직접 만나 정사를 듣거나 편지를 이용하라.
- 신형(慎刑) 형벌을 신중히 할 것. 사람을 지나치게 벌 주는 일이 없게 하라.
- 문무(文武) 학문을 일으키고 무예를 익힐 것. 술을 좋아하지 말고, 대신을 자주 만나며,  
사냥을 폐지하지 말고, 군대 조련을 엄격히 하라.
- 선술(善述) 부모의 뜻을 잘 계승할 것. 옛말에 선왕의 법을 준수하면  
잘못되는 일이 없다고 한 것을 명심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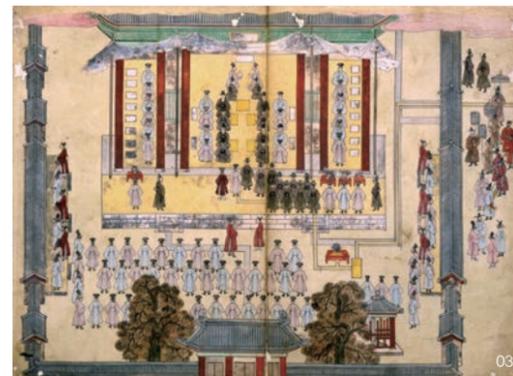
‘훈사 10장’을 보면 조선의 왕세자가 배우고 익혀야 할 교육 내용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아홉 번째, ‘학문을 일으키고 무예를 익히라’는 부분이 눈에 띕니다. 세자들 역시 유학이나 예학, 통치 철학 등의 이론 외에도 몸으로 익히는 교육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유교의 육예 중 하나인 활쏘기는 조선 시대 왕세자 교육에서 중요하게 여긴 부분입니다. 태종이 한때 세자에게 활을 바친 환관들을 벌했으나, 얼마 뒤에는 세자에게 활쏘기를 가르치라고 명한 일도 있습니다. 세자에게 학문을 가르치는 서연관(書筵官)들이 그것을 반대하자, “옛사람은 ‘활 쏘는 것으로 덕을 알아본다’ 하고 ‘재주를 겨루는 것이 군자의 도’라 하였으므로 활 쏘는 것은 폐지할 수 없다.”며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켰습니다.

### 활쏘기와 말타기는 왕세자의 기본

조선 시대 국왕들은 활쏘기와 말타기를 반드시 할 줄 알아야 했습니다. 국왕과 신하가 활을 쏘는 대사례(大射禮)는 군신 간의 일체감을 도모하는 중요한 의전 행사였습니다. 『예기(禮記)』 「사의(射儀)」에 나오는 “활 쏘는 것은 인(仁)을 행하는 길이다.”라는 구절처럼, 활쏘기는 단순한 무술이 아니라 덕을 수행하는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과녁을 맞추는 것보다, 활을 쏘기 위해 마음을 모으고 몸가짐을 반듯하게 하는 과정이 더욱 중요했습니다. 모름지기 활쏘기를 통해 스스로의 덕을 쌓을 수 있고 남의 덕을 살필 수 있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또한 선대의 능에 성묘를 가는 능행이나, 사냥을 겸한 군사 훈련인 강무(講武) 같은 행사에서 왕은 군복을 입고 말을 달리면서 군대를 이끌었습니다. 세자 시절부터 말타기를 익혀야 하는 것이 당연했을 것입니다. 그에 더해, 조선의 왕들이 즐긴 운동이 바로 격구였습니다. 서양의 폴로와 비슷한 격구는, 두 편으로 나뉘어 말을 타고 달리면서 공을 공채로 떠서 골에 넣는 경기입니다. 서양 귀족들이 승마나 폴로·사냥 같은 스포츠를 즐겼던 점과 조선 왕족들이 사냥과 활쏘기·말타기를 익혔던 점이 서로 비슷합니다. 동서를 막론하고 신분 사회에서 통치계급들에게 필요한 덕목과 기예는 비슷했던 모양입니다.

강무는 국왕이 해마다 정기적으로 신하와 군사들을 이끌고 사냥을 하며 군사 훈련을 겸했던 의례입니다. 강무 때 잡은 짐승은 종묘 사직의 제사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왕세자도 강무에 참여해서, 말을 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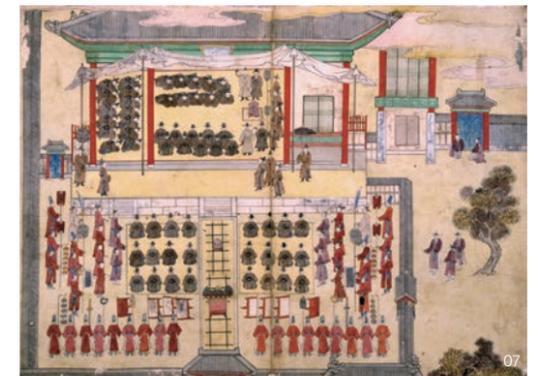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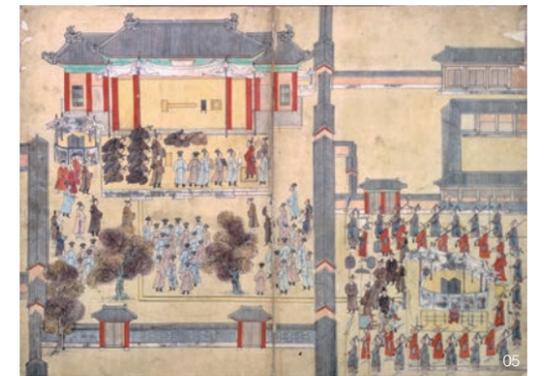


며 심신을 단련했습니다. 강무 같은 행사는 궁궐 속에서만 있던 세자가 직접 국토와 백성을 접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왕세자가 국왕을 대신하여 강무를 주관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규모가 조금 작기는 해도, 왕이 되기 전 직접 군사 훈련을 실습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 의미를 가지는 강무는 워낙 많은 인원과 물자가 동원되며 백성들의 피해가 컸기 때문에 종종 때 이후 점차 사라졌습니다.

### 왕세자, 바닥에 엎드려 책을 읽다

한편, 조선의 왕세자나 왕세손들은 책봉례를 마친 후 반드시 성균관에서 입학식을 거행했습니다. 세자가 성균관을 찾아가 대성전에 참배하고, 성균관 박사에게 제자로서의 예를 갖춘 후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물론 입학례는 한 차례 열리는 행사일 뿐, 세자가 성균관에 계속 다니지는 않았습니다. 공자에게 참배하고 박사에게 배우는 ‘의식’을 통해, 세자 역시 유학을 배우고 익히는 학생 출신임을 천하에 알리는 것이 입학례의 의의였습니다. 입학례를 치르는 동안에는 세자라 해도 학생이기 때문에 스승에게 먼저 절하여 인사를 했고, 가르침을 받을 때에도 책을 바닥에 놓고 엎드려서 읽어야 했습니다. 성리학 국가의 왕이 되기 위한 상징적인 의례인 입학례는, 중국에서는 실제로 거행한 사례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에 비해 조선에서는 태종 대부터 고종 대까지 왕세자의 입학례가 열렸습니다. 학문과 예의를 중시했던 조선 왕실의 면모를 짐작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듯 조선의 왕세자 교육은, 유교 국가라는 명분과 왕이 가져야 할 실제적인 덕목을 잘 융합시킨 전인 교육이었습니다. 제왕학을 오늘에 되살려 무엇인가를 해 보려는 현대 사람들이라면, 조선의 왕세자들이 공부했던 과정과 커리큘럼뿐 아니라, 심신을 조화시킨 종합 교육이라는 특징에까지 눈을 돌릴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



〈왕세자입학도첩(王世子入學圖帖)〉, 46.5 x 34.1cm, 1817년으로 추정,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  
순조 17년(1817) 3월 11일 성균관에서 치러진 효명세자의 입학례를 기념한 화첩이다. 입학례의 과정을 다섯 장면으로 구성하고, 이튿날 있었던 진하례 장면을 마지막에 그렸다.  
02. 〈왕세자출궁도(王世子出宮圖)〉 왕세자의 행렬이 창경궁을 나와 성균관으로 향한다. 03. 〈작헌도(劄獻圖)〉 입학례 전에 왕세자가 공자에게 술잔을 올린다. 04. 〈왕복도(往復圖)〉 왕세자가 박사에게 수업을 청하고, 박사가 수락하여 명륜당 안으로 들어온다. 05. 〈수폐도(脩幣圖)〉 박사에게 여러 가지 예물을 올린다. 06. 〈입학도(入學圖)〉 명륜당에서 왕세자가 박사에게 교육을 받는다. 07. 〈왕세자수하도(王世子受贊圖)〉 입학례를 마친 왕세자가 신하들에게 하례를 받는다.



Untitled 99-09, 이장진, 100x197.5cm, edition 3, 2000

今之學者 如登山麓 方其迤邐 莫不濶步 及到峻處 便逡巡  
 오늘날의 공부하는 사람은 산등성이를 오르는 것과 같아서  
 산 아래의 구불구불한 길에서는 활보를 하다가도 높은 곳에  
 이르면 뒷걸음질 치며 물러선다.

『근사록(近思錄)』 권2 「위학(爲學)」

058 공부(工夫),  
 059 평생토록 해야 할 일



Untitled 99-18, 이장진, 97x180.5cm, edition 3, 2000

蓋古今功夫 莫不以順天理爲主 則其於不合處  
 豈可望天理之從我 固宜自我變通以合天理耳

대개 고금의 공부는 하늘의 이치에 순응하는 것을 위주로  
 하지 않음이 없었다. 그러니 자신이 천리에 합하지 않는 점  
 에 대해, 어찌 천리가 나를 따르기를 바랄 수 있겠는가?  
 참으로 나로부터 변통해 천리에 합하도록 할 따름이다.

최한기(崔漢綺), 『추측록(推測錄)』 권1, '추측제강-추형유무(推測提綱 推形有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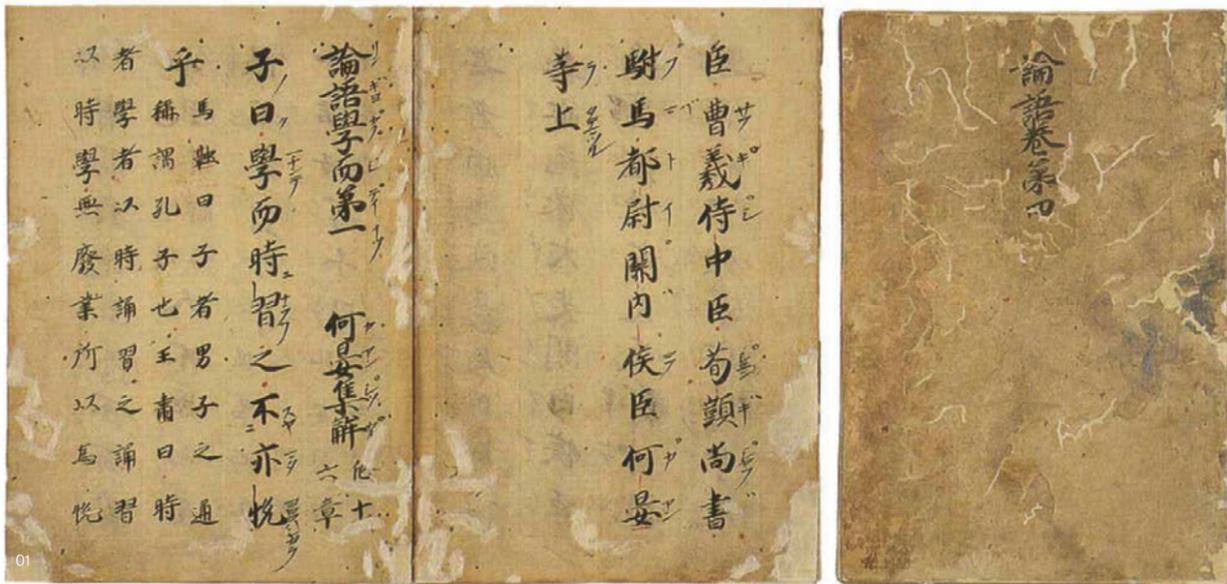
# 무사도 (武士道) 사무라이의 수양

글 후지모토 토시카즈 (경희대학교 언론정보학과 초빙교수)

일본 후쿠시마현 중앙부에 있는 이나와시로 호수 옆에 아이즈와카마쓰(會津若松)라는 도시가 있다. 일본에서는 1868년에서 1869년에 걸쳐 메이지유신을 지지하는 신정부군과 기존의 권력 집단인 막부군 사이에 대규모 내전이 벌어졌다. 아이즈와카마쓰의 영주는 막부의 지배 가문인 도쿠가와 가문과 인척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신정부군에 치열하게 저항했다. 내전은 결국 막부군의 패배로 끝이 났는데 이 소식을 들은 아이즈와카마쓰 사무라이의 아들들 19명이 집단으로 할복자살을 한다. 소년들의 조직 이름인 '뱃코타이(白虎隊)'로 유명한 이 사건은, 47명의 사무라이들이 주군의 원수를 갚고 전원 할복자살한 '주신구라(忠臣藏)' 이야기와 함께 지금도 일본 사람들 사이에서 많이 이야기되고 있다. 삶과 죽음에 대한 사무라이들의 태도를 잘 보여 주기 때문이다.

뱃코타이의 소년들은 어떤 교육을 받았기에 과감하게 자기 목숨을 내놓을 수 있었을까? 통상적으로 사무라이의 자식들 중 남자아이들은 7세 무렵부터 20세쯤까지 사무라이를 키우는 학교에서 함께 교육을 받았다. 물론 그 교육의 목표는 문무에 두루 뛰어난 사무라이가 되는 것이다. 아이즈와카마쓰에 있던 학교의 경우 '8조의 교육 방침'으로 유명하다.

- |                          |                       |
|--------------------------|-----------------------|
| 1. 연장자의 말을 따른다.          | 5.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다.    |
| 2. 연장자에게는 예를 갖추어 인사를 한다. | 6. 약한 사람을 괴롭히지 않는다.   |
| 3.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 7. 밖에서 여성과 이야기하지 않는다. |
| 4. 비겁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 8.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다.  |



060 공부(工夫), 사무라이의 수양  
061 평생토록 해야 할 일 무사도(武士道)

‘一期一會’  
지금의 이 만남, 이 순간을 평생 딱 한 번밖에  
없는 것으로 여기며 소중히 하라.



전국 시대 이후 검을 쓸 일이 줄어든 사무라이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관리적 소양을 쌓는 일이었다. 그를 위해 국가 통치이념인 유학에 능통해야 했다. 01. 중국 위나라 때 하인(何晏)이 『논어』에 주석을 단 해설서 『논어집해(論語集解)』이다. 이름이나 직책 등 몇몇 한자에 가타가나로 일본식 발음을 달아 놓은 것이 보인다. 02. 사무라이들의 일상공간을 재현한 이미지다. 사무라이들에게 차를 마시고 꽃을 보고 그림이나 글씨를 감상하는 것은 심신 수양을 위해 중요한 일상이었다.

“무사도의 정수는 죽음에 있다.” 이것은 18세기에 큐슈의 한 사무라이가 쓴 책 『하카쿠레(葉隠)』에 나오는 유명한 말이다. 명예를 소중히 하는 사무라이들이 가장 피해야 할 행위는 바로 비겁하고 수치스러운 행동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패전했다고 해서 적에게 투항하는 것이야말로 수치스러운 행위가 아닐 수 없다. 뱃코타이의 선택은 사무라이를 지향하던 소년들로서 당연한 선택이었다. 어렸을 때부터 그런 식으로 자기 수양을 하며 사무라이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 무념무상의 경지에 있으면 불 또한 시원하다

이처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무라이들의 정신력은 어디에서 유래했을까? 사무라이의 정신력을 지탱하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선(禪)이다. 사무라이가 역사 무대에 등장한 것은 10세기 부터로, 12세기에는 일본 최초의 무사정권인 가마쿠라막부가 성립한다. 일본의 고도(古都)라고 하면 교토와 나라가 가장 유명하지만 가마쿠라도 그에 못지않게 고도의 정취를 간직하고 있다. 가마쿠라 시대는 막부의 성립과 함께 선종을 중심으로 한 불교문화가 꽃을 피우기 시작했다.

일본에서 선종의 역사는 길지 않다. 중국에서 선종이 전해 들어온 것이 12세기, 바로 가마쿠라 막부가 성립된 무렵이고 그때부터 사무라이들 사이에 급속히 퍼져 그들의 수양 과목이 됐다. 왜 검을 다루는 사무라이들에게 종교적인 선의 수양이 필요했을까? 하나는 선이 중시하는 수업법 즉 좌선 등에 의한 집중이 무예를 업으로 하는 사무라이들에게 필요했기 때문이다. 16세기 전국 시대에 오다 노부나가 에린지(惠林寺)를 공격해 태워 버렸을 때 그곳의 선사(禪師)가 “무념무상의 경지에 있으면 불 또한 시원하다.”라고 하면서 의연하게 죽음을 맞았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다. 사무라이들이 추구하던 것이 바로 죽음 앞에서도 의연한 그런 경지였다.

차(茶) 역시 선종과 함께 그때 처음 일본에 들어왔다. 차는 그 자체로 마음을 진정시키는 작용이 있으며, 격식을 갖춰 차를 마시는 행위인 다도를 통해 거친 성정을 다스리고 절도를 몸에 익게 해 준다. 사무라이들에게 다도란 단지 차를 마시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실이라는 좁고 조용한 공간에서 마음을 집중시켜 닦는 수양이기도 했던 것이다.

다도가 사무라이들 사이에 유행이 되면서 다도를 모르면 아예 사무라이로 취급을 받지 못할 정도였다. 지금도 일본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 중에 ‘一期一會(일기일회, 이치고이치에)’라는 것이 있다. 지금의 이 만남, 이 순간을 평생 딱 한 번밖에 없는 것으로 여기며 소중히 하라는 말로 다도에서 왔다. 늘 죽음을 염두에 두고 살았던 사무라이들에게 이 말은 무엇보다 절실했을 것이다. 귀족들의 화려한 삶에 비해 사무라이들의 세계는 검소하다. 늘 죽음을 각오하고 있는 사무라이들이기에 부유함이 특별한 가치를 갖지 않았는데, 이는 선의 가르침과 일치한다. 사무라이들의 이런 생활철학은 하나의 미의식으로 승화한다. 바로 ‘와비(わび)’와 ‘사비(さび)’다. 와비, 사비란 간소하고 차분함 속에 있는 정취를 말하는데 나는 이 말을 한국의 대학생들에게 가르칠 때 이렇게 설명한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라. 여러분이 잘 아는 법정 스님의 삶이야말로 와비, 사비 그 자체다.” 텔레비전에서 법정 스님이 사시던 암자를 본 적이 있는데 방이 검소하고 깔끔했다. 그리고 작은 꽃병에 들꽃 한 송이가 꽃혀 있었다. 바로 와비와 사비의 세계다.

일본이 자랑하는 무술의 하나인 검도는 전에는 검술이라고 해서 사무라이들의 수양을 위한 필수과목이었다. 일본을 대표하는 무사로 미야모토 무사시(宮本武藏)를 들 수 있는데 수많은 명승

부를 남긴 그는 병법서 『오륜서(五輪書)』에서 “병법의 정신은 공(空)에 도달하는 데에 있다.”라는 말을 남겼다. 이 또한 선의 경지를 일컫는 말이다. 이 경지는 ‘검선일치(劍禪一致)’라는 말로 표현되기도 한다. 미야모토 무사시는 또 수많은 훌륭한 수목화도 남기고 있는데 거기에는 진검 승부를 방불케 하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 남자는 작은 것에 연연하지 않는다

무사도라고 하면 ‘충성’이 먼저 떠오르지만 사무라이들이 처음부터 충성심이 강했던 것은 아니다. 주군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기 시작한 것은 17세기에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천하를 통일하고 국가 질서를 유지하는 통치 이념으로 유교를 채택한 후의 일이다. 막부는 에도(지금의 도쿄)에 공자 사당과 한국의 성균관에 해당하는 학문소를 만들고, 일본 각지의 사무라이 자제들을 교육하는 학교인 한코(藩校)도 만들었다. 한코에서는 먼저 무예를 가르쳤다. 학생들은 일본 전통 무술인 유술(柔術)부터 검술, 창술, 궁술, 마술, 포술, 봉술 등 각종 무기와 말을 다루는 법을 배웠고, 수영을 가르치는 곳도 있었다. 유교 교육에도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수업은 사서와 오경을 중심으로 진행했고, 충효사상과 인·의·예·지·신을 가르쳤다.

그 외에도 한코에서는 『십팔사략』 등의 역사서를 가르치는 한편, 한시와 일본의 정형시 와카(和歌)도 함께 가르쳤다. 에도 시대는 시의 전성기였다. 스스로 한시를 지을 수 있는 사무라이들도 적지 않았다. 또 사무라이들은 지세이노구(辭世句)라고 해서, 죽음에 임해 와카를 한 수 읊곤 했는데 평소 꾸준히 시를 익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검이 우선인 사무라이들이지만 일상적으로 시를 가까이 접함으로써 마음에 여백을 주고 멋과 격을 익힌 것이다.

메이지유신으로 사무라이의 시대는 끝나고 사농공상의 신분차별도 없어졌다. 하지만 ‘충성’이라는 가치는 사라지지 않았다. 개국과 함께 서양에서 새로운 학문이 홍수처럼 들어왔다. 그러나 신정부가 채택한 것은 서양 신교육이 아니라 유교 교육이었다. 즉 기술은 서양의 선진 문화를 배우되 일본의 정신은 지키겠다는 ‘화혼양재(和魂洋才)’의 교육관을 지켜 나갔다.

메이지 시대 교육의 큰 목적 중 하나는 ‘충군애국 사상’을 심는 것이었다. 천황에 충성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교육이 실시된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막부 시대보다 메이지 시대 때 유교 교육을 받은 사람이 많았다는 점이다. 에도 시대의 사무라이는 많게 잡아도 총인구의 10퍼센트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신교육에서는 윤리, 도덕을 가르치는 ‘슈신(修身)’이라는 과목이 필수로, 산수나 국어보다 중요시됐다. 예를 들어 슈신의 교과서에는 이런 이야기도 나와 있다.

일본 개화기의 정치가 사이고 다카모리(西郷隆盛)는 지금도 일본에서 존경받는 인물이다. 어느 날, 그가 형보다 아침을 먼저 먹고 집을 나섰다. 이어서 밥상에 앉은 형이 하녀를 불러

사무라이들에게 시와 그림, 글씨는 마음을 수양하는 중요한 도구이자 방법론이었다.

03. 사진 위쪽에 보이는 『당시화보(唐詩畫譜)』는 이백과 두보 등 당나라 유명 시인들의 시를 인용하고, 그것을 제재로 그린 그림을 함께 모아 놓은 것이다. 그 아래쪽 『방씨묵보(方氏墨譜)』는 명나라 때의 유명한 묵장인 방우로가 만든 먹 385개의 표면 장식을 그림으로 기록한 책이다. 사무라이들은 이런 책을 보며 문화적 안목을 키웠다. 04. 사무라이들의 정취인 와비와 사비는 검소한 방에 들꽃 한 송이를 꽂아 놓는 것으로 완성된다.



03



04

비겁한 짓을 하면 말리는 사람이 있었다. 지금은 다 모르는 척을 하고 있다. 왜 이렇게 안쓰러운 나라가 돼 버렸는가.

야단을 쳤다. 된장국에 된장이 빠졌다는 것이다. 하녀는 그때서야 다카모리가 아무 말도 없이 싱거운 된장국을 마시고 간 사실을 알게 됐다. ‘남자는 작은 것에 연연하지 않아야 된다.’는 가르침에 충실했던 것이다.

신교육에서는 이런 예를 들면서 이전 시대 사무라이들의 정신을 국민들에게 심으려고 했다.

### 안쓰러운 나라가 되어 버린 일본

패전 이후의 일본은 과거를 부정하는 것부터 시작했다. 역사관은 물론 교육 방침도 180도 달라졌다. 먼저 슈신이 없어지고 남녀평등의 이른바 민주주의 교육이 시작됐다. 미 점령군은 주신구라 이야기가 등장하는 영화의 제작과 상영을 금지했다. 일본인들의 보복을 우려한 조치였다. 고도성장과 함께 사무라이와 무사도라는 말 자체가 사어가 되어가던 무렵, 사건 하나가 일어났다. 소설가 미시마 유키오(三島由起夫)가 자위대를 접거한 후 ‘평화헌법 반

대’와 ‘천황제 복귀’를 외치며 활복자살한 것이다. 하지만 이 사건은 미시마 유키오 개인의 문제로 처리돼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이내 사라졌다.

그 후 무사도의 복귀를 외치는 소리를 들은 것은 이즈메 사건이 잇따랐을 때였다. 수학자인 후지와라 마사히코가 ‘8조 교육방침’을 다시 가르치자고 주장해 화제가 됐다. “예전에는 이즈메 같은 비겁한 짓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걸 말리는 친구가 있었다. 지금은 다 모르는 척을 한다. 왜 이렇게 안쓰러운 나라가 돼 버렸는가. 청소년들에게 무사도 정신을 다시 가르쳐야 한다.”

최근 들어 다시 사무라이라는 말이 등장한 것은 대지진 이후의 일이다. 현대판 사무라이가 출현했다고 화제가 됐는데, 그 주인공은 후쿠시마 원전의 요시다 소장이었다. 후쿠시마 원전에서 원자로 냉각을 위해 해수 주입을 시작했는데 총리의 허가가 나지 않았으며 도쿄전력 간부가 중지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요시다 소장은 주입을 계속했다. 만일 그때 중단했다더라면 더 심각한 원자로 용해가 일어났을지도 모를 일이다. “사고는 회의실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다.” 요시다 소장의 말이었다. 사무라이의 미덕 중 하나인 용기를 내보인 것이다.

이번 대지진을 거치며 일본인의 질서 의식이 해외에서 높이 평가받았다. 서로를 배려하는 이제 민들을 보면서 일본인의 화(和) 즉 조화와 화목을 소중히 하는 국민성이 아직 남아 있다고 느낀 사람도 많다. 그렇다면 무사도는 어떨까? 요시다 소장파 같은 용기가 아직도 남아 있을까? 물론 과거의 사무라이나 무사도를 절대적으로 예찬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가 사무라이나 무사도에서 배울 점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용기와 지혜, 관용을 겸비한 현대판 사무라이들이 나올 것을 기대해 본다.



# 공자에서 소림사까지

글 천평(陳方)

화남사범대학에서 중국 고전문학 석사 학위를 받고 현재 광저우 중산대학(中山大學) 정보관리학과(資訊管理) 부교수로 재직하며 고대 정부기록물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다. 저서로 『음악미학(音樂美學)』, 『장자주역(莊子注譯)』, 『중국근대문학사전(中國近代文學辭典)』, 『광저우 역사인물사전(廣東歷史人物辭典)』 등이 있다.

중국인들은 수천 년 전부터 수신과 양생의 도에 대한 논의를 발전시켜왔다. 중국에서 수신과 양생은 자연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확립하는 데에서 시작한다. 오랜 시간 많은 학파와 사상이 출현했고 이론과 실천의 경험들이 융합하면서, 중국의 수신과 양생론에는 자연과 사람 사이에서 축적한 생존의 지혜나 심미안이 집약되어 있다. 특히 중국에서 양생론은 물질의 기능을 빌어 사람의 생명을 보존·연장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여기에서 한 단계 나아간 수양론은, 물질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외적인 만족을 따지지 않고 정신의 완벽함을 추구하며, 마음이 하고자 하는 바를 이루려 했다. 수양론이 바라는 경지는 ‘하늘과 마음이 화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으로, 이는 여러 철학 학파에 따라 서로 다른 양상으로 등장했다.

## 유학의 수양론-안으로는 성인, 밖으로는 제왕

고대 유가에서는 사회 인륜과 질서 유지를 개인의 임무로 보았다. 인(仁)과 덕(德)이 있는 사회, 우에 있는 윤리, 도덕적 인격이 한데 어우러져 완벽한 그물망을 구성한다고 본 것이다. 따라서 이상적인 인격의 자아를 완성하기 위해 수양을 하는 것은 곧 도덕을 실천해야 한다는 논리의 출발점에 있었다.

유가의 경전 중 하나인 『대학』의 ‘팔조목(八條目)’은 격물(格物)·치지(致知)·성의(誠意)·정심(正心)·수신(修身)·제가(齊家)·치국(治國)·평천하(平天下)의 여덟 가지이다.

“옛날에 명덕(인간 본성의 선한 덕)을 천하에 밝히고자 하는 자는 먼저 그 나라를 다스리고, 그 나라를 다스리고자 하는 자는 먼저 그 집안을 가지런히 하고, 그 집안을 가지런히 하고자 하는 자는 먼저 그 몸을 닦고, 그 몸을 닦고자 하는 자는 먼저 그 마음을 바로 하고, 그 마음을 바로 하고자 하는 자는 먼저 그 뜻을 성실히 하고, 그 뜻을 성실히 하고자 하는 자는 먼저 그 앎을 지극히 하였으니, 앎을 지극히 함은 사물의 이치를 궁구함에 있다.”

즉 팔조목의 논리 구조는 “큰일은 작은 일에서부터 결정이 된다(大定于小)”는 것이다. 특히 격물에서 수신까지의 다섯 조목은 모두 자아 수양이 관건이었다. 팔조목의 실현은 모두 이상적인 인격에 달려 있음이 매우 명백해진다. 이것은 안에서 밖을 향하는 전개 과정이며, 바로 유가에서 말하는 ‘내성외왕(內聖外王)’의 길이다. 먼저 ‘내성’ 즉 정신적, 인격적으로 성인과 같은 완벽한 경지에 이른 뒤 ‘외왕’ 즉 왕과 같이 타인을 완성시키는 존재가 되는 순서다.

품성을 갈고 닦는 일은 외부에서 강제적으로 하게 할 수 없으며 본인의 자각이 필요하다. ‘성의’의 ‘성(誠)’이나, ‘정심’의 ‘정(正)’이 바로 자각 상태를 강조하는 표현이다. 『중용』에 등장하는 ‘신독(慎獨)’은 홀로 있는 환경에서도 근신하며 절제하라고 가르친다. 자아를 수양하고 자각 상태에 이르러야 도덕적인 인격을 완성한 군자가 되고, 그렇지 못하면 자신을 속이고 남을 속이는 소인배로 미끄러지기가 너무나 쉽다는 것이다.



01. 중자, 즉 증참의 반성기념탑. 02. 장자의 초상.



03. 공자의 초상. 04. 공자가 제자들에게 강론하는 모습. 05. 도교의 창시자인 노자. 06. 무젠성에 있는 노자상.



## 공자와 맹자의 수양론-양심(養心)으로 나아가라

유학을 창시한 공자는 그 스스로가 도덕을 실천하는 주체였다. 자신을 억제하여 예를 행하는 “극기복례(克己復禮)”(『논어』「안연」)는 공자의 문화적 이상이였다. 그는 개인의 수양이 곧 사회 인륜과 예악 제도 중건에 이른다고 보았다. 자아를 억제함으로써 사회질서가 유지되기 때문에 당연히 스스로에게 특별히 엄격할 것을 요구한다. 공자는 모든 일에서 자신부터 반성했다. “반구제기신(反求諸其身)”(『예기』「중용」) 즉 자신에게서 원인을 찾고, 하늘을 원망하거나 남을 탓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사람이 공과 잘못, 성공과 실패에 대처하는 가장 아름다운 태도다. 모든 동물 가운데 오직 인간만이 스스로 반성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공자의 가장 통찰력 있는 발견이라 할 것이다.

자신에게서 원인을 찾고 남을 탓하지 않는 도덕적 실천은 수양의 기본 양식이다. 공자의 제자인 증참(曾參)은 이렇게 말했다. “나는 날마다 여러 번씩 세 가지 항목을 반성한다. 다른 사람을 위해 일을 도모함에 충실하였는가? 벗과 더불어 사귀에 미더웠는가? 배운 것을 익히지 못한 바는 없는가?”(『논어』「학이」) 이런 자아 성찰이야말로 극기의 정수이며 신독의 전형이라 볼 수 있다. 유학의 또 다른 창시자인 맹자는 도덕적 품격을 배양해야 함을 강조했다. 그보다 앞선 공자는 “천명(天命)”이 삶에서 일종의 사명이라고 했고, 삶의 과정이란 곧 천명을 확인하고 완성하는 과정이라 보았다. 맹자 또한 인생이 한 번뿐인 도덕 수양 과정이라고 보았다. “자기의 마음을 살피고, 자기의 심성을 기르는 것이 하늘을 섬기는 방법이다.”(『맹자』「진심상」) 마음을 닦고 품성을 기르는 그 자체가 곧 ‘천명’에 종사하는 것이며, 이것이 인생의 수단이자 목적이라는 말이다. 맹자는 성선설을 주창한 것으로 유명하다. 하지만 사람의 성품이 원래 선하다는 말이, 모든 사람의 인성이 영원히 완벽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심성을 수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지며, ‘마음을 다하는 것(盡心)’에 머무르지 않고 반드시 ‘마음 수양(養心)’을 해야 한다. 맹자는 이렇게 주장했다. “마음을 수양하는 데에는 욕심을 적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맹자』「진심하」) 즉 본성을 방임해서 생긴 물욕과 정욕을 제거한다면 순결한 심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말할 나위 없이, 몸과 마음의 기운을 그 대가로 치러야 하고, 일상 속에서 부지런히 정기를 키우고 길러 정신의 활력을 끌어내야 한다. 이것을 곧 양기(養氣)라고 불렀다.

맹자는 이렇게 밝혔다. “나는 내 호연지기를 잘 기른다.” 호연지기는 가장 드넓고 가장 강건하며 하늘과 땅 사이를 가득 채우는데, 도나 윤리와 서로 부합하고도 남음이 있다는(『맹자』「공손축」) 기운이다. 이 기운이 바로 맹자가 말했던 “부귀도 그 사람의 마음을 어지럽게 할 수 없으며, 빈천도 그 사람의 지조를 옮기지 못하며, 위엄이나 무력으로 그 사람의 지조를 굽힐 수 없다”(『맹자』「등문공」)는 대장부의 기백이 아니겠는가? 맹자의 이런 양심(養心) 양기(養氣) 사상은 중국의 수신론과 양생론에서 가장 진취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 도가의 수양론-하늘의 이치에 따라 소를 잡다

적극적으로 세상을 향했던 유가와는 달리, 도가는 은둔해서 수양하는 길을 모색했다. 자신의 생명을 합리적으로 연장시키는 방법에 많은 관심을 가졌고, 천지 만물의 근원이 되는 도와 더불어 스스로 자연의 성장과 공동체를 이루고자 했다.

도가에서 ‘도’는 천지 만물의 본원이며 자연의 법칙이다. 사람이 나고 존재하는 것이 ‘도’에 의거하니, 이로 인해 하늘의 도(天道)가 곧 인간의 도(人道)가 된다. 사람은 다만 천지에 순응할 뿐이고, 자연을 본받으며 천성을 따라 인위적인 것을 배제해야 한다. 그때 비로소 생명의 시작과 끝을 합리적으로 완성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도가에서 말하는 양생의 전제 조건이다.

도가를 창시한 노자는 160세(혹자는 200세)를 살았다고 하는데 바로 ‘도를 닦아서 수명을 늘였’던 덕분이

었다(『사기(史記)』 「노자전」). “정신을 유지하는 혼과 육체를 주재하는 백(魄)을 하나로 유지함(養魄抱一)에 이르러, 정신과 육체가 융합되었던 것이다. “기에 전념하여 부드러움에 이른다(專氣致柔)”(『노자』 10장)는 것은 정기를 집중하여 몸이 부드럽고 순해져서 어린아이 같은 상태로 오래도록 머물 수 있다는 뜻이다. 노자는 또한 “소박한 것을 찾아서 지니며, 사사로움을 적게 하고 욕심을 줄임(見素抱朴 少私寡欲)”에 이르러야 한다고 했다.(『노자』 19장) 이 또한 양생을 위해 인위적인 요소를 배제하라고 말한 것이다.

도가를 집대성한 장자는 생명과 정신을 어떻게 기를 것인가를 이야기하면서 “중간의 입장을 따라 그것을 기준으로 삼는다(緣督以爲經)” 즉 자연을 기준으로 삼아 순응할 것을 주장했다. 장자가 글을 통해 말했던 “포정해우(庖丁解牛)”이야기가 그 좋은 사례다. 백정이 소의 복잡한 골격과 근육, 혈관 등을 앞에 놓고 “하늘의 이치에 따라(依乎天理)” 즉 자연적인 결을 따라 움직였다. “그 몸의 원래 그러한 대로(因其固然)” 생리적인 특징에 따라 침착하게 소를 분해하되 칼 놀림에 여유가 있는 모습을 보고 문혜군이 감동하여 말했다. “훌륭하구나. 내가 백정의 말을 듣고 양생의 이치를 얻었다.”

이 이야기에 나오는 양생의 비유는 유익한 데가 있다. 인생에서 비록 복잡한 문제들을 만나더라도 자연의 법칙에 따르기만 한다면 순리적으로 풀리지 않는 바가 없음을 알게 되기 때문이다.

장자가 말한 양생의 법칙은 더 있다. ‘마음을 재계하는(心齋)’ 법을 익히면, 텅 비고 고요한 맑은 마음으로 사물을 이해하게 되어 외부 사물에 의해 감각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했다(『장자』 「인간제」). 또 ‘앉아서 모든 것을 잊는(坐忘)’ 법을 통해 생리적인 욕망과 마음이 알고 있는 거 짓을 다 없애고 넓고 큰 경지를 향해 정신이 활짝 펼쳐지도록 해야 한다고도 했다(『장자』 「대중사」). 이런 방법들이 모두 후세에 발전한 양생론의 밑바탕이 되었다.

사실상 장자는 ‘양생’과 ‘양형(養形)’의 차이를 엄격히 구분했는데, 둘 사이에는 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이 그의 견해였다. “세상 사람들은 육체를 보존함으로써 삶을 보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世之人以爲養形足以存生)”(『장자』 「달생」)는 구절은 세속 사람들이 형체가 곧 ‘양생’이라는 생각을 유지한다는 말이다. 장자는 이런 생각을 저속한 견해라고 보았던 것이다.



07



08



09

중국 선비들의 수양을 나타낸 다양한 그림들로, 일상생활 속의 수양과 공부를 짐작할 수 있다.

07. <귀거래도(歸去來圖)>, 진홍수, 높이 31.4cm, 1650년, 호놀룰루예술대학 소장. 자연 속에 은거하며 심신 수양에 힘쓰는 모습이다. 08. <인물고사도책(人物故事圖冊)>, 구영, 33.8 x 41.4cm, 명대, 북경 고궁박물관 소장. 09. <복생수경도(伏生授經圖)>, 왕유, 45.5 x 25.5cm, 성당 시대, 오사카시립미술관 소장. 10. <문원도(文苑圖)>, 주문구, 58.5 x 31.3cm, 오대, 북경 고궁박물관 소장. 11. <중회기도(重會棋圖)> 부분, 주문구, 70.5 x 40.3cm, 오대, 북경 고궁박물관 소장. 바둑은 단순한 여가 생활이 아니라 선비들의 정신 세계를 단련시키는 수양의 한 방법이기도 했다.



10



11

중국에서는 정신적 가치에서 출발한 유가와 도가의 수양론과는 달리 몸을 다스리는 것을 중시한 쿵푸 양생론도 발전했다.

서로 다른 단계의 보양을 거쳐 서로 다른 단계의 인품이 배양된다. 세상에는 애써 세속을 벗어나 불만스러운 의견을 가진 사람 즉 산림에 숨은 선비와 세상에 분개한 사람이 있다. 말마다 인의를 이야기하고 공손하고 검소하게 사양하는 사람, 즉 세상을 다스리는 선비와 지식을 전달하는 교사들이 있다. 또한 공훈을 세우고 업적을 쌓으며 군신을 지켜내는 사람, 즉 조정의 선비와 나라를 돕는 사람들도 있다. 세상을 피하여 산야에 은거하며 인위적이지 않아 자유로운 사람, 즉 강해(江海)의 선비와 세상을 피하는 사람도 있다. 호흡법을 익히면서 신체 운동을 하는 사람, 즉 (기공) 도인(導引)법을 하는 선비와 양형(養形)을 하는 사람도 있다. 장자가 보기에 이런 다섯 종류의 사람들은 모두 ‘양신(養神)’이 아닌 ‘양형’을 하는 부류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장자는 ‘양생’을 추구하는 것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뜻을 높이지 않아도 높아지고, 어둠과 의로움 없이도 몸이 닦이고, 공명 없이도 다스려지고, 강해에 노닐지 않아도 한가롭고, 기운을 끌어들이지 않아도 오래 사는 사람. 잊지 않는 것도 없고 갖지 않은 것도 없는 사람이다. 담담히 끝이 없지만 모든 미덕은 그를 따른다. 이것이 천지의 도이며 성인의 덕이다.”(『장자』 「각의」)

## 쿵푸의 수양론-공부, 쿵푸, 소림사, 태극권

위에서 유교와 도가의 양생론을 살펴보았는데, 이들은 정신적인 가치에서 출발하여 몸을 다스리는 데에 이르렀다. 그런데 중국에는 이와는 조금 다른 수양법도 있다.

“생명은 움직임에 있다”는 말이 있다. 중국 양생론 가운데에서 몸을 움직이는 쿵푸(功夫) 양생이 이런 생각에 잘 부합한다. 흔히 외국에서는 쿵푸를 단순히 무술의 하나로 생각하지만 사실 중국 쿵푸는 여러 가지로 나뉘며, 양생론의 하나라고 보아야 한다. 간략히 쿵푸의 종류를 살펴 보며, 정신과 육체를 함께 발전시키고자 하는 중국 양생론을 생각해 보도록 하자.

첫째로 호흡(行氣)을 중시하는 쿵푸가 있다. 이는 호흡이 인체에 미치는 작용에 착안해, 호흡의

길고 짧음, 깊음과 얕음, 묵은 공기를 뱉고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셔 탁한 것을 토해내고 맑은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중시했다. 『장자』 「각의」장에서 말한 “깊게 호흡을 하며 얕은 것을 뱉고 새로운 것을 들이마신다(吹呬呼吸 吐故納新)”는 것이 이것이다.

호흡 수련법은 기공·조식(調息)·조신(調身)으로 체계화되었는데, 이 세 가지가 기공 수련의 삼대 요소라고 볼 수 있다. 체내 오장육부의 특징에 따라 호흡을 조절하고, 때로는 순방향 때로는 역방향으로, 때로는 높고 때로는 서서, 정신의 긴장을 풀고 무념무상의 경지에 들어간다. 심리 상태를 조절하여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잡념을 없애면 자연히 이상적인 호흡에 이르게 되어 양생에 이른다는 것이다.

쿵푸 수련의 두 번째로는 동물의 동작을 모방한 것(禽戲)이 있다. 인류의 생활이 고기잡이와 사냥에서 시작

되었기에, 동물들의 여러 특성은 사람들에게 익숙하다. 사람들은 다른 생물들의 장점을 취하고 단점을 보완하면서 동시에 몸을 건강하게 하는 효과를 얻고자 했다. 중국 상고 시대에 이미 ‘백수술무(百獸率舞)’를 공연했다고 하는데, 당시 사람들이 각종 동물이 움직이는 모양을 흉내 내어 춤으로 만들었음을 그 이름에서 상상할 수 있다. 동한(東漢)의 명의 화타(華佗)는 동물을 모방한 이런 동작들을 ‘오금희(五禽戲)’로 총정리했다. “나에게는 한 가지 기예가 있는데, 다섯 동물의 움직임이라고 부른다. 호랑이, 사슴, 곰, 원숭이, 새가 그것이다.” 다섯 금수의 동작을 섭렵하면 “답답했던 위가 트이고, 혈액이 흐르는” 결과를 얻게 되어, 질병이 없어지고 수족이 날렵해지며 몸이 가벼워지고 식욕이 늘어나는 등의 효과가 있다고 한다(『후한서』「화타전」).

몸을 수련하는 세 번째 방법은 도인법(導引法)이다. 몸을 구부리고 펴며, 위아래를 바라보고, 서고 누우며, 비스듬히 서는 등의 각종 신체 동작을 통해 호흡 조절이 조화를 이루게 되는데, 『황제내경』에도 도인법이 등장한다. 당나라 때의 승려 혜림(慧琳)이 저술한 『일체경음의』에는 이런 구절이 등장한다. “사람이 스스로 안마를 하거나 손발을 폈다 구부렸다 하면 피로가 사라지고 머리가 맑아지는데 이것을 일러 도인(導引)이라고 한다”(권 18).

쿵푸를 통한 신체 수련의 한 갈래는 무예로 발전하기도 했다. 중국에서는 고대부터 무력을 일종의 기술로 간주하여, 힘으로 각축전을 벌이거나 시합을 열어 신체의 건강을 꾀하는 전통이 있었다. 주나라 때에는 육예가 있어서 활쏘기와 말타기를 가르쳤으며, 공자 자신도 활쏘기와 말타기를 잘했다고 한다(『논어』「자한」).

중국 무술 가운데에서 수준이 가장 높으며 가장 칭송받는 것이 바로 소림사의 쿵푸다. 외국인들도 쿵푸라고 하면 소림사를 먼저 떠올린다. 소림사 쿵푸는 고대부터 명성을 얻었는데, 북위 때 창건된 이 절에서 주지인 발타(跋陀)와 인도 승려 달마(達磨)가 처음 전수한 무술이 쿵푸다. 수나라와 당나라를 거쳐 무예 체계로 완성되었고 송나라와 명나라 때에 중국 각지로 전파되었다. 하지만 이런 소림 쿵푸는 장기간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야 익힐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그것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은 소수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날 대다수의 중국인들은 수백 년 역사의 태극권을 소림 쿵푸보다 더 애호한다. 태극권은 음양과 정동(靜動)이 서로 평형을 이루는 쿵푸 수양법이니, 결국 전통적인 중국 수양 양생론과 맥이 닿아 있는 것이다.

이 밖에도 중국의 수양과 양생에 대한 논의는 다양하다. 제자백가 중 잡가에서도 양생론을 중요하게 다루었고, 중국 전통 의학에서 주창한 양생론들도 흥미롭다. 수련을 거쳐 신선이 되고자 했던 내단론과 외단론 역시 몸과 마음의 수양과 관련이 있다. 이 글에서 그 모든 학파들의 논의를 다 다루지는 못했다. 대신 정신과 육체의 관계에 주목한 대표적인 학설인 유가, 도가의 수양론과 신체 단련으로 정신 수양에 이르고자 했던 쿵푸 정도를 간략히 살펴보았다. 독자들이 한국이나 일본과 비슷하면서도 다른 중국 수양론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12. <초음결하도(蕉陰結夏圖)>, 구영, 99 x 279.1cm, 명대, 타이페이 고궁박물관 소장. 예악은 중국 사대부들의 빼놓을 수 없는 수양법 중 하나였다.

## 中国的修身养生之道

陈方

\*이 글은 66~70쪽에 게재된 『공자에서 소림사까지 — 중국의 다양한 수양론』의 중국어 원문 텍스트입니다.

### 修养之道

中国的修身养生之道有着几千年的认识发展过程，回合了众多的社会学派思想及人群实践经验。它的基本理念是：确立自然与人的生成关系，维系天人合一的生存法则。借助外在物质元素(精气、本草、功夫等)的修养功能，达到维护本体生命延续，发挥生命自由之光。进而，摆脱人对物质的依赖，忽略自身外形的满足，追求内在精神的完善(仁、德、道等)，追求性情随心所欲，从而进入生命美学的最高境界，天日人心，和合归一。上述理念在古代中国往往通过“天”与“人”、“身”与“心”、“形”与“神”、“气”与“道”等等哲学范畴来表达的。当然，各种学派在运用这些范畴时会表达不同的涵义。

### 儒家修养

古代儒家以维系社会人伦秩序为己任，仁德的社会和亲善的伦理与道德的人格共同构成完整的链圈，而理想人格的自我修养则是道德实践的逻辑起点。儒学经典“四书”之一《大学》的“八条目”是：格物，致知，诚意，正心，修身，齐家，治国，平天下。它的逻辑过程是“大定于小”：“古之欲明明德于天下者，先治其国；欲治其国者，先齐其家；欲齐其家者，先修其身；欲修其身者，先正其心；欲正其心者，先诚其意；欲诚其意者，先致其知；致知在格物。”很明显，“八条目”的实现条件都取决于理想人格，从格物到修身五点都是自我修养，至为关键。这是一个由内向外的展开过程，正是儒家所谓“内圣外王”之道。先“内圣”，后“外王”；只有“内圣”，才能“外王”。因此自身内在的品格铸造不是外在强加的，而是要自觉的，“诚意”所谓“诚”，“正心”所谓“正”，正是强调自觉状态。《大学》和另一“四书”《中庸》上提出“慎独”，告诫要在独处处境下谨慎节守，使自我修养

进入自觉状态，这样才可成为道德人格的君子，否则很容易滑落为自欺欺人的小人。

### 孔孟修养

儒学的倡导者自身也是道德实践的主体，“克己复礼”(《论语·颜渊》)是孔子的文化理想，通过磨炼自身的道德情操来重建社会人伦的礼乐制度，用自我约束力去维系社会秩序，因而对自身要求特别严格。孔子事事从自身检讨，“反求诸己身”(《礼记·中庸》)，不怨天尤人，这是对待功过成败的最佳态度。所有动物只有人才有反求的能力，这是孔子最精辟的发现。反求诸己为人的道德实践提供基本的工夫模式，孔子弟子曾参就说：“吾日三省吾身：为人谋而不忠乎？与朋友交而不信乎？传不习乎？”(《论语·学而》)这种自我省察真是“克己”的精髓，“慎独”的典范。另一位儒学倡导者孟子着重提出道德品格的养育问题。“天命”是孔子确认的一种人生使命，人生过程就是认识和完成“天命”的过程，孟子明白也是一次道德修养过程。他指出：“存其心，养其心，所以事天也。”(《孟子·尽心上》) 修心养性本身就是从事“天命”，既是手段，又是目的。孟子以倡导“人性善”闻名，然而人性本善并非意味着人性永久完善，如果尽心任性而行往往会化善为恶，因此心性养育显得十分重要，不止是“尽心”，必须要“养心”。他指出：“养心莫善于寡欲。”(《孟子·尽心下》)就是要祛除尽心任性时带来的物欲情欲，维护心性的纯洁。这种维护无疑需要付出巨大精力，务必经常性地养精蓄锐来汲取精神活力，这就要“养气”。孟子宣称“吾善养吾浩然之气”，解释这气最好浩瀚最刚劲，充斥天地之间，与道义伦理相符合，充沛有力。(《孟子·公孙丑》)这不正是他表彰的“富贵不能淫，贫贱不能移，威武不能屈”(《孟子·滕文公》)的大丈夫(也就

是君子) 魄力吗？孟子的“养心”“养气”思想是中国修身养生之道最积极的元素。

### 道家修养

与积极入世的儒家形成对照，道家寻求立足于一种避世出世的畛域，更多关注自身生命的合理延续，与天地万物自然生长合成一个共同体。道家的“道”是指出天地万物的本源，自然发展的法则，人的生成生存以“道”依据，因此天道即是人道。人只须顺应天地，效法自然，放任天性，排除人为，才可合理地完成生命的终始，这是道家养生的前提。道家创始人老子活了一百六十多岁或者二百多岁，正因为他能“修道而养寿”(《史记·老子传》)。做到“营魄抱一”，精魄和肉体融合；做到“专气致柔”，集中精气，身体柔顺，长久处在婴儿状态。(《老子·十章》)这不正是顺应自然的结果吗？他还要“见素抱朴，少私寡欲”(《十九章》)，这也正是排除人为的效果了，庄子是道家的集大成者(庄子及其学派著有《庄子》三十三篇)，专门著有《养生主》，讨论护养生命精神，提出“缘督以为经”，即顺应自然以为常法。文章讲述了“庖丁解牛”的故事，庖丁面对牛体复杂的骨骼筋脉，“依乎天理”，顺着自然纹理，“因其固然”，依据生理特征，从容破解，游刃有余，难怪在场的文惠君感叹：“善哉！吾闻庖丁之言，得养生焉。”这个故事对养生的喻意十分有益：人生所遇尽管复杂，只要顺从自然法则，一切无不迎刃而解。庄子还提出了一些养生之法。如“心斋”法，即用虚静澄明的心境来领悟事物，不受外物对器官的侵扰。(《人间世》)如“坐忘”法，即消解生理欲念和心智伪诈，让精神敞向阔大之境。(《大宗师》)这些都为后来的静功养生学提供了资源。事实上，庄子严格区分“养生”和“养形”的差别，两者具有质的区别。“世之人以为养形足以存生”(《达

生)), 世俗的人认为保住了形体就是“养生”了, 这是低俗之见。最为重要的是, 通过不同层次的保养培养出不同层次的人品: 刻意超俗, 言论不满者, 是山林隐士, 愤世之人; 满口仁义, 恭俭推让者, 是治世之士, 教书先生; 建功立业, 维护君臣者, 是朝廷之士, 辅国之人; 隐逸山野, 无为自在者, 是江海之士, 避世之人; 呼吸吞吐, 仿生伸展者, 是导引(气功)之士, 养形之人。以上五个人, 皆不免“养形”之流, 不谙“养神”。庄子“养生”所追求者: “若夫不刻意而高, 无仁义而修, 无功名而治, 无江海而闲, 不导引而寿, 无不忘也, 无不有也, 澹然无极而众美从之。此天地之道, 圣人之德也”(《刻意》)。

#### 功夫炼养

常言道: “生命在于运动”, 功夫养生就最符合这个理念。功夫可理解为几个方面: 1、行气方面。着眼气息对人体的作用, 呼吸讲求轻缓、匀、长、深, 吐故纳新, 呼浊吸清。(庄子)所谓“吹响呼吸, 吐故纳新”(《刻意》)即指此。行气之法系统化成为气功, 调息、调身、调心是气功修炼的三大要素。根据体内肺脏特点调节呼吸, 或顺或逆, 或立或卧, 做到放松入静, 调配心理状态, 处守一念, 摒除杂念, 达到自然行气, 保养精神目的。广义的气功还结合各种运动形态来进行。2、禽戏方面。人类始于渔猎生活, 通过仿生取长补短, 同时又收到健身强体之效。中国上古已有“百兽率舞”的演出, 可以想像人们对各类禽兽的动态模仿。东汉名医华佗将这些仿生运动总结成整套“五禽戏”: “吾有一术, 名五禽之戏: 一曰虎, 二曰鹿, 三曰熊, 四曰猿, 五曰鸟”。五禽戏秉持“谷气得销, 血脉流通”的宗旨, 收到驱除疾病, 便利手足, 身体轻松, 食欲增强等效果(见《后汉书·华佗传》)。3、导引方面。导引是行气和禽戏的结合, 通

过仿生作伸屈、俯仰、行卧、倚立等各种肢体运动, 并与气息调节相配合。《黄帝内经》有“导引按跷”(《素问·异法方宜论》)之治术。唐代僧人慧琳《一切经音义》上说: “凡人自摩自捏, 伸缩手足, 除劳去烦, 名为导引”(卷一八) 4、武艺方面。把武力看作一种技艺, 通过体力角逐, 演艺竞赛, 一如当年体育活动, 达到强身健体功效。这在中国古已有之。像“射(射箭)”、“御(驾驭)”早在周代已列入教育科目, 是孔子所教的六艺(其它是礼(礼仪)、乐(音乐)、书(语文)、数(数学)), 孔子也将射、御看作自己的专长(见《论语·子罕》)。武艺高强最受称赞的莫过于少林功夫了。少林功夫得名于古代嵩山少林寺, 该寺建于北魏, 主持跋陀和印僧达摩从一开始就传授武艺, 隋唐时期已形成完整的武艺套数, 宋明时期传播到全国各地。少林功夫要经受专门长期的肄习, 从事的毕竟是少数人; 而广大群众则喜爱有几百年历史的阴阳动静相互平衡的太极拳。

## TALK 02



## 관점과 논평

Walk the Line,  
문화의 경계를 넘어

정진홍—천천히 읽기 위하여  
이준희—노래歌 사람人, 대중가요 이야기  
이혜주—컬러 파워, 지루한 세상에 도전하라!  
권보드래—근대를 만든 베스트셀러  
이충웅—과학과의 화해  
서형욱—스포츠 스포일러  
이지원—안녕하세요, 디자인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관심사와 생각들이 있으니 어느 것이 가장 옳다 선부르게 말할 수 없고 어느 것에 유독 귀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할 일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이란, 따지고 보면 타인의 고민과 관점에 많은 부분을 빚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여기, 여러 주제에 대한 여러 사람의 관점과 논평이 펼쳐집니다. 나와 다를 수도, 같을 수도 있는 생각들을 통해 세상을 보는 우리 각자의 관점이 보다 넓고 튼실해지길 바랍니다.

# 잘난 논의, 못난 논의

정의를 구현하는 것은 당위이지만  
그 현실은 그렇게 자연스럽지 못합니다.



## 글 정진홍

종교학자로 현재 울산대 석좌교수로 있다. 저서로 『종교학 서설』 『기독교와 타 종교와의 대화』 『종교와 과학』 『한국 종교문화의 전개』 『신을 찾아 인간을 찾아』 『경험과 기억』 『만남, 죽음과의 만남』 『정직한 인식과 열린 상상력』 등이 있다.

주장 자체로는 마땅하고 옳은데, 그 주장의 실현은 불가능하거나 주장의 현실이 끝내 실현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커다랗게 ‘도덕의 완성’이라는 범주에 들 법한 덕목들이 대체로 그러합니다.

##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몇 가지 의문

다른 나라에서보다 우리나라에서 유난히 많이 팔리고 읽혔다는 꽤 ‘어려운 책’이 있습니다.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입니다. 책 제목을 보서는 ‘이 책만 읽으면 정의가 무엇인지 환하게 알게 되겠구나’ 기대를 가질 만합니다. 또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 하는 방법에 대한 친절할 안내도 만날 수 있겠구나 기대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막상 책을 읽어 보면 우리의 소박한 기대가 그리 쉽게 충족될 수는 없음을 곧 느끼게 됩니다.

이 책을 읽으면, 그것도 건뚱건뚱 읽는 것이 아니라 찬찬히 읽어 보면 볼수록, 우리는 정의라는 것의 당위성은 자연스럽게 주장할 수 있지만 그 실현마저 자연스러운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를테면 정의롭게 살아야 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누구나 어디서나 언제나 분명하게 승인하고 공감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루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정의란 과연 무엇인가라는 다양한 규정이 첩 쌓이면 아예 정의(正義) 자체가 불투명해지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정의 구현을 위한 ‘진정하고 현실적인’ 여러 방법들

이 너무 많이 제시되면서, 오히려 그 방법의 다양성 때문에 그 주장의 당위성을 실현하는 일이 끊임없이 지연되고, 산만해지고, 실타래 엉키듯 풀기 어렵게 되곤 합니다. 우리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러한 사실을 새롭게 확인합니다.

특정한 정의를 주장하고 그를 위해 특정한 구현 방법을 강조하면서, 자신과 다른 정의 주장과 구현 방법을 억제하고 배제하는 일도 있습니다. 이른바 ‘자기의 정의’만이, ‘자기 투의 정의 구현’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현실을 낳는 것입니다. 그러한 정의 담론은 대체로, 특정한 사회적 힘의 실체를 정당화하고 그 힘의 행사를 지지하는 ‘수단’으로 정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의 담론이 특정한 힘에 의하여 전유되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는 그 주장이나 어휘 자체가 사람들에게 낯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결국 지극한 정의 담론인데도 불구하고 역설적으로 정의를 훼손하는 데 이르고 맙니다. 실천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정의 구현의 온갖 행위가 아예 ‘정의 구현이라는 이름의 폭력’으로 화하는 경우조차 일게 되는 것입니다.

## 그래도 논의를 계속해야 하는 이유

비단 정의뿐이겠습니까? 평등에 관한 논의도 그렇고, 자유에 대한 논의도 다르지 않습니다. 착함과 아름다움과 거룩함에 관한 논의조차 이러한 ‘모호성의 구조’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또 그런 모호성을 지양하려는 의도에서 출현한 강한 주장이 빛나는 ‘역설적인 폭력적 사태’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래저래 도덕적 덕목의 완성을 추구하는 태도에 의해 도덕적 덕목이 처참하게 깨져 버리는 기막힌 사태가 우리 삶의 현실이라 해야 옳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러한 논의를 지속해야 합니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장의 당위성이 진정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난 사람한테는  
다른 잘난 사람이 없습니다.  
못난 사람끼리는 서로 다 못났기 때문에  
우리 모두 잘난 사람이 되어 보자는  
공감을 펼 수 있습니다.

정직하게 승인한다면, 다시 말해 그것을 실현하는 일이 삶의 진정한 보람이라는 경험적 진술을 우리가 피해갈 수 없다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막연한 고뇌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나도 제법 중요한 문제를 심각하게 직면하고 있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하는 자의식에만 머물 수 없습니다. 흔히 우리는 가치나 의미의 문제에 직면하여 좌절을 겪는 경우, '나도 생각이 있을 뿐만 아니라 생각할 만큼 하고 있다'고 자위하곤 합니다. 물론 그것도 대단한 일입니다. 아무리 심각한 문제도 몇 번 거치다 보면 곧 무감각하게 되고, 우리 삶을 관성의 법칙에 실어 흘러가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정도 성찰만으로도 우리는 자신의 성숙이 상당하다고 일컬어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에서 머물 수는 없습니다. 어떤 차원에서든 어떤 형태로든, '의도한 것의 좌절'을 경험했다면 어떻게 해서든 그 정황을 벗어날 출구를 모색해야 하는 것이 삶의 주체가 마땅히 해야 할 몸짓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가능한 하나의 선택은 이제까지와는 다른 방법을 택해 보는 일입니다. 한계가 분명할 때 사람들은 누구나 그렇게들 이야기합니다. '다른 접근'이라든지 '다른 발상'이라든지 '낯선 것을 선택하는 것'이라든지, 그 표현이야 어떻든 문제는 '근원적인 되시작의 감행'입니다. 도구를 바꾼다고 해도 좋고, 아예 판을 뒤집는다고 해도 좋습니다.

### 정의를 말하는 두 가지 출발점

저는 이를 위하여 특정한 덕목의 규범적 당위성에서 논의를 시작하지 말고, 그러한 당위성을 불가피하게 요청하게 된 삶의 현실을 살피면서 논의를 비롯하게 하는 것이, 하나의 '다른' 모습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곤 합니다. 이를테면 정의의 문제가 심각하고, 그것을 구현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초미의 과제라 했을 때, 이 문제에 다가가는 다른 두 태도를 상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이 못된 불의한 사회를 당장 부수고 다잡아 정의로

운 사회를 만들어야겠다'는, 어쩌면 세상과 삶과 인간에 대한 '분노로부터 비롯하는 논의'의 태도가 있습니다. 당위의 자리에서 논의를 출발하고 있는 거죠.

이런 자리나 태도는 대체로, 앞의 예를 이어 든다면, 정의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규정하려 하고, 그것을 구현하기 위한 방법은 어떤 것이어야 한다는 점도 분명하게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노력 끝에 이루어진 개념적 명료성, 논리의 일관성, 행위의 효율성을 준거로 하여 다들은 정의 담론을 모든 사람들에게 일관되게 부과합니다. 이를 위해 거의 순교자적 순수와 열정과 희생을 유지하고 쏟고 감내합니다. 사람들은 여기에서 깊은 감동을 받고 이런 태도를 좇지 못하는 자신에 대해 심한 가책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이런 태도의 현존이 우리의 더할 수 없는 희망이라는 사실도 고백합니다. 아울러 이 분위기 속에서, 그런 태도를 지닌 '훌륭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도하고 질책하고 정죄하는 일을 당당하게 행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사명이라 스스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자기들의 정의 담론과 상치되는 담론의 가능성이나 현실성은 철저하게 배제하고 부정합니다. 마침내 정의 담론에 대한 담론의 배타적인 필침이 곧 정의 구현이고 또한 정의 구현을 위한 모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런 태도는 그 극에 이릅니다.

그런데 또 다른 태도가 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니 무언지 제대로 아귀가 맞지 않는 것을 느낍니다. 무언지 끊임없이 빼고덕거리고 서로 부닥쳐 평음을 냅니다. 사람들을 보면, 염치도 없고 생각도 없고 자기만을 위해 무모할 만큼 덤비듯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깊은 속에서부터 치미는데, 자신을 돌아보니 이것은 무어라 묘사해야 좋을지 알 수 없을 만큼 엉망입니다. 그래서 간신히 용기를 내어 정의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경험에서 논의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를 우리는 '부끄러운 아픔'에서 비롯하는 정의 담론'이라고 해도 좋을 듯합니다.

이러한 담론은 자연히, 자기 생각을 펴기 전에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묻고 그 대답을 기다립니다. 그 대답을 귀하게 여기면서 간신히 자기 생각을 조심스럽게 발언합니다. 자신이 없고 부끄럽기 때문입니다. 정의의 당위성에 대한 승인이 절실

할수록 정의에 대한 규정이 힘들다는 것을 감추지 않습니다. 보편적인 방법을 찾아 이를 실천하기보다, 우선 지금 여기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정의롭지 못한 일들을 삼가기로 마음먹고 그렇게 합니다. 대체로 그러한 일들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럴 때 그 작은 성취에 스스로 감격하고 그 상황 안에 있는 사람들 모두에게 진정에서 우러나는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비겁하다는 소리도 듣고, 우유부단하다는 험담도 들립니다. 아예 기회주의자라는 공공연한 질책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달리 어쩔 수 없습니다. 자신이 참 모자란다는 자의식을 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정의 담론을 피하지도 않고 간과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호흡처럼 삶에 안긴 당위적 과제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정의 담론을 조용한 침묵 속에서 지니고 작은 몸짓 속에서 살아 있게 하는 것으로 마침내 그 극에 달합니다. 정의를 주장하는 자리에서, 그는 있지만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 못난 접근을 위한 변명

저는 이 두 태도 중의 어느 하나가 반드시 택일적인 것으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이라 주장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둘 모두 각기 정의 담론의 가능성과 불가능성을 제한적으로 지니고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앞의 경우를 '잘난 정의 담론'이라고 부르고 뒤의 경우를 '못난 정의 담론'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까지 현실적인 정의 담론을 펼치지 못한 것은 '잘난 담론'의 탓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잘난 사람한테는 분명히 다른 잘난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못난 사람끼리는 서로 다 못났기 때문에 우리 모두 잘난 사람이 되어 보자는 공감을 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이 '다른 접근'을 의도해 볼 수는 없겠는지요.

'분노에서 비롯한 정의 담론'에서 벗어나 '부끄러운 아픔'에서 비롯한 정의 담론'이 우리 현실이 될 때 비로소 정의가 구현되는 삶이 펼쳐지는 것은 아닐는지요. '잘난 사람들의 논의'에서 '못난 사람들의 논의'로 흐름이 바뀌기를 바라는 것은 끝내 '못난 발상'일는지요. 정말 그럴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그러한 흐름을 어떻게든 마련하고 싶습니다.

# 조선 가요계를 풍미한 마이더스의 손, 이철

세 번의 특별한 인연으로 삶을 바꾼 이철은  
탁월한 흥행 감각과 기획력으로  
조선 가요계를 석권했다.



글 이준희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대중음악을 공부하고 있고 글, 음반, 방송, 동호 모임, 강의 등의 형식으로 대중음악 관련 일을 하고 있다. 노래를 찾는 사람, 노래로 역사를 쓰는 사람, 노래로 세상을 보는 사람이다.

지금은 철거되고 없지만, 1935년 준공 이후 조선인 자본에 의해 세워졌다는 자부심으로 길 건너 화신백화점 건물과 함께 일제 시대 종로 네거리에서 랜드마크 구실을 했던 한청(韓靑)빌딩이 있었다. 1950년대 후반 가수 남인수가 발표한 노래 〈어린 걸심〉 가사에도 “한청빌딩 골목길 전봇대 옆에 나는야 구두땀이 슈샤인보이”로 등장했을 만큼, 오랫동안 서울 시민에게 친숙했던 건물. 노래 이야기에 앞서 난데없는 옛날 빌딩 타령이 뜬금없을 수도 있지만, 한청빌딩 신문 광고에 등장한 빌딩 운영자 이철(李哲)의 이름을 끌어내기 위해 펼쳐 본 전설(前說) 한 자락이다. 한청빌딩 전무 이철이야말로 한국 대중가요 역사에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인물이기 때문이다.

### 대중음악으로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을 이루다

대중가요를 좋아하는 이들은 보통 그 노래를 부른 가수를 기억한다. 좀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파고드는 이들은 그 노래의 곡조를 짓고 가사를 쓴 작가를 기억한다. 작가와 가수가 있음으로 해서 노래가 사람들과 만나게 되는 것은 물론이지만, 여기서 또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작품인 동시에 상품이기도 한’ 대중가요의 기본 속성이다. 작가와 가수가 만들어 놓은 작품을 효과적으로 상품화시켜 세상에 내놓기 위한 일련의 과정을 기획하고 관리하는 이를 통상 프로듀서라 하는데, 이철은 바로 1945년 이전 한국, 즉 식민지 조선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대중가요 프로듀서였다. 비록 지금 그를 기억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다 해도, 그는 진정 당대를 풍미한 보이지 않는 마이더스의 손이었다.

1920년대 말에서 1930년대 초 사이, 식민지 조선에서는 비교적 규모가 큰 음반회사 다섯 군대가 등장해 본격적으로 대중가요를 만들기 시작했다. 일본 본사의 지점 형태로 운영된 5대 음반회사는 빅타(Victor), 콜럼비아(Columbia), 폴리돌(Polydor), 태평(太平), 오케(Okeh)였는데, 이철은 바로 오케레코드의 운영자였다.

오케레코드는 다른 음반회사들보다 늦게 영업을 시작했지만 전체 음반 발매 규모에서 두 번째로 꼽힐 만큼 빠른 속도로 성장했고, 특히 대중가요 부문에서 가히 일당백이라 할 만큼 두드러진 성과를 보였다. 지금까지 많은 이들이 한국 대중가요의 고전으로 기억하고 있는 명곡 태반이 오케레코드에서 발매되었고, 이른바 대중가요 제1세대 명인으로 기억되는 작가와 가수 태반이 역시 오케레코드에서 활동했다.

〈노들강변〉 〈타향살이〉 〈목포의 눈물〉 〈짜사랑〉 〈연락선은 떠난다〉 〈애수의 소야곡〉 〈눈물 젖은 두만강〉 〈감격시대〉 〈꿈꾸는 백마강〉 〈선창〉 등의 노래가 그러하고, 손목인, 박시춘, 김해송, 조명암 등의 작가와 이난영, 고복수, 남인수, 김정구, 장세정, 백년설 등의 가수가 그러하다. 그 많은 명인들을 발탁하고 조직해 그 술한 명곡들이 세상에 나올 수 있도록 한 이가 바로 이철이다.

이철이 대중음악계의 역사적 인물로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의 음악 관련 활동이 단지 대중가요 음반 제작에만 국한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오케레코드 운영 이전에 그는 이미 음악 전문 출판사를 설립해 운영했고, 흥난과 등과 함께 한국 최초의 재즈 연주단인 코리아재즈밴드의 일원으로 직접 연주 활동을 하기도 했다. 최초의 음악영화 〈노래 조선〉<sup>1</sup>(1936년 개봉)을 제작한 이도 이철이었고, 오케레코드 소속 작가와 가수들이 대거 참여한 조선악극단<sup>2</sup>을 조직해 1939년 이후 조선 팔도는 물론 일본과 중국 전역을 누빈 이도 그였다. 비록 국가로서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한 식민지 상황이기도 했지만, 산업 차원의 한국 대중문화 해외 진출을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수행했다는 점에서 이철이 이끈 조

선악극단의 활동은 한류의 선구로 평가받기에 충분하다. 이철의 감각과 시야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다. 1940년, 그는 대중예술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전문교육기관인 오케음악무용연구소를 설립했다. 연구소 제3기 연구생으로 발탁된 김희숙은 1944년 여름 조선악극단 중국 공연에 참가해 상하이에서 처음으로 솔로 무대에 섰는데, 그가 바로 10년 뒤 〈봄날은 간다〉를 불러 전쟁 직후 대중의 피폐한 마음을 달래 주었던 가수 백설희이다.

### 이철의 삶을 바꾼 세 번의 인연

이철은 1903년 충청남도 공주에서 태어났다. 본명은 억길(億吉)이었고 위로 형과 누나, 아래로 여동생 셋이 있는 육남매 중 셋째였다. 그리 빈한하지는 않았지만 딱히 넉넉하지도 않았던 집안의 둘째 아들 이억길은 고향에서 보통학교와 1년 과정 농업학교를 다니고 가사를 도우며 특별할 것 없는 10대 시절을 보냈던 것으로 보인다.

평범하다면 평범했다 할 그런 이억길의 삶이 조선 최고의 대중가요 프로듀서 이철의 삶으로 바뀌기까지는 세 번의 중요한 인연이 큰 영향을 미쳤다. 첫 번째 인연은 그가 열아홉 살 때 세상을 떠난 아버지 대신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준 양아버지 이인규였다. 통상 부친이 사망하면 가세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철은 양아버지의 지원 덕분에 바로 그 시점에 뒤늦게나마 고등보통학교에 입학했고, 스물두 살 되던 해에는 서울로 유학을 가서 배재고보에 편입했다. 같은 전주 이씨인 것으로 보아 먼 친척뻘이었을 것으로 짐작되는 이인규는, 비록 은퇴한 상태이기는 했으나 여러 지역의 군수를 지낸 관료 출신이었으므로, 경제적인 면과 인적 네트워크 면에서 이철에게 적지 않은 도움을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동급생들에 비해 한참 많은 나이로 학업을 이어간 늦깎이 배재고보 학생 이철은, 동시에 학교 밖에서는 대중음악 전문가로 차근차근 지명도를 높여가기 시작했다. 그가 본격적으로 음악과 만난 계기는 확실치 않지만, 이미 배재고보 악대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맡았던 것은 분명하다. 이철은 그 유명한 〈사의 찬미〉를 남기고 1926년 여름 현해탄에 몸을 던진 가수 윤심덕과도 남다른 교분이 있었고, 음악 전문 출판사를 운영한 것도 배재고보 재학 시절이었다.

1928년에 연희전문학교 상과에 입학한 이철은 배재고보 시절과 마찬가지로 학교 밴드부 리더로 활동했는데, 거기서 이



01. 1940년 무렵의 이철과 부인 현송자. 02. 오케레코드 사무실에서 집무 중인 1930년대 중반의 이철. 03. 연희전문학교 시절의 이철.

후 평생을 두고 함께한 두 번째 중요한 인연을 만나게 된다. 바로 이철과 함께 연희전문학교 밴드부의 주축이었던 다섯 살 아래 수물과(數物料) 학생 김성흠이다. 그는 이후 공적으로는 오케레코드를 함께 운영한 동업자로, 사적으로는 이철의 여동생과 결혼한 매부로 이철의 곁을 지켰다. 활달하고 사교적이었던 이철과 내성적이면서도 꼼꼼했던 김성흠은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이상적인 파트너였다.

이철의 삶을 가장 크게 뒤흔든 세 번째 인연은 아내 현송자다. 이철은 연희전문학교 입학 직전에 같은 교회 신도로 현송자를 처음 만났다. 현송자는 대한제국 고위 관료의 딸이자 마지막 황제 순종의 황후를 배출해 사회적 영향력이 상당했던 윤씨 일족의 부인이었고, 빼어난 미모와 일본 유학 경험을 바탕으로 한 교양을 갖춰 당시 사교계 유명 인사이기도 했다. 네 살 연상에 남편까지 있던 현송자와 이철이 서로를 교우가 아닌 이성으로 느끼게 된 과정은 세세히 알 수 없지만, 두 사람의 은밀한 사랑은 1930년 들어 결국 세간에 알려지고 말았다. 그 결과 이철은 교회와 학교에서 모두 쫓겨나는 일생일대의 위기를 맞았으나, 위기는 곧 현송자의 힘 덕분에 일생일대의 기회가 되었다.

현송자는 이제 사실상 새 남편이 된 이철이 그동안 쌓아온 음악 관련 경력을 고려해, 일본 유학 시절의 인맥을 총동원하여 그가 음반회사 지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주선했고, 그 결과 이철의 오케레코드가 1933년 세상에 등장하게 되었던 것이다. 두 사람은 오케레코드 운영이 안정 궤도에 들어선 이듬해 가을 정식으로 결혼을 했다.

### 마흔한 살, 어이없는 죽음

공주 소년 이억길이 오케레코드 운영자 이철로 거듭난 데에 이런 중요한 조력자들이 있기는 했으나, 그가 식민지 조선의 대중가요계를 석권하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역시 그만의 탁월한 감각과 능력 덕분이었다. 무명의 인재를 발굴하고 경쟁 회사의 간판급 스타를 끌어오는 스카우트는 음반회사의 사활을 가르는 중요한 일이었는데, 이런 일에서 이철의 판단과 추진력은 틀림없고 과감하기로 이미 당대에 평평이 나 있었다. 음반 검열을 통해 끊임없이 감시의 눈길을 보낸 식민 권력을 대하는 태도 또한 현실적이면서도 당당했다. 사실상 응용단체라 할 수 있는 조선연예협회의 장을

### 이철이 좀 더 오래 살았더라면 한국 대중음악은 또 어떤 차원으로 발전했을까

맡았고 때로 조선총독부 정책에 협조적인 모습을 보인 반면, ‘치안을 방해’하는 불온한 언동이나 조선악극단 일본 공연 당시 제일 조선인들의 민족 감정을 선동했다는 이유로 구속 되기도 여러 차례였다. 물론 오늘날에는 식민 권력에 협조적이었던 면을 주로 들추어 그의 행적을 ‘친일’로 재단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다.

30대 젊은 나이에 대중가요로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을 다 이루었던 이철은, 그러나 너무나 허망한 죽음을 맞았다. 중국 출장 전에 받은 치과 치료 상처가 바쁜 일정으로 인한 과로 탓에 패혈증으로 덧났는데, 오진으로 그 진단과 처치의 때를 놓쳐 불과 며칠 만에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었다고 한다. 1944년 6월 20일 오후 3시, 며칠 동안 의식을 잃고 사경을 헤매던 마흔한 살 이철은 결국 허무하게 숨을 놓아 버렸다. 1941년에 이철의 면접과 격려를 거쳐 조선악극단 기타 연주자로 음악 인생을 시작한 〈노란 사쓰의 사나이〉의 작곡가 손석우는, ‘그가 좀 더 오래 살았더라면 한국 대중음악이 또 다른 차원으로 발전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지금도 아쉬워한다.

#### 참조 및 각주

- 1936년 4월에 개봉한 영화 〈노래 조선〉은 최초의 ‘조선음악영화 전발성(全發聲)’ 작품이었다. 필름이 전부는 남아 있지 않아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고복수·김해송·이난영·임방울 등 당대의 음악가들이 대거 출연했다. 영화를 만든 곳은 오케영화제작소였는데 이 회사의 모체가 바로 오케레코드사였고, 고복수를 비롯한 주요 출연자들 모두가 오케레코드사 소속 가수였다. 영화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하나는 1936년 2월부터 3월까지 진행된 오케연주단의 일본 오사카 공연 영상이다. 이와 함께 국내에서 촬영한 코믹 총합전 이 영화에 포함되었다. 감독은 김상진이 맡았다고 한다.
- 이철은 1933년부터 오케연주단을 조직해 공연 분야로 활동 영역을 넓혔다. 오케연주단은 1938년부터 오케그랜드쇼라는 이름으로 확대되었고, 1939년 3월부터 5월까지 두 번째 일본 순회공연을 하면서 ‘조선악극단’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일본 글자의 총행 업체 요시모토와 제휴한 조선악극단의 일본 공연은 도쿄, 오사카, 니고야, 교토 등 주요 도시를 순회했으며, 제일교포뿐 아니라 일본인 관객들의 반응도 뜨거웠다 전한다. 또한 일본의 신문과 잡지에는 현지 음악평론가들의 호평이 실린 기사가 남아 있다. 조선악극단은 일본 공연에 이어 1940년 중국과 만주 순회 공연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면서, 조선을 뛰어넘어 동양 삼국을 넘나드는 국제적인 대형 공연 단체로 성장했다. 그런 성공에 힘입어 이철은 〈노래 조선〉의 뒤를 잇는 두 번째 자체 제작 영화 기획에 착수했다. 1941년 4월 무렵 가시화된 새로운 조선악극단 영화의 제목은 〈노래의 낙원으로 간다〉였다. 오케레코드사 전속 작사가이자 조선악극단 전속 극작가였던 조명임이 원작을 쓴 이 영화는 경주·부여·평양·금강산 등 조선 팔도의 경승지를 돌며 찍은 영상과 노래를 결합시키는 내용으로 기획되었으나 단 한 건의 신문 기사에만 등장할 뿐으로, 아마도 결국 미완의 기획으로 끝난 듯하다.

컬러 파워,  
지루한 세상에 도전하라!

# 무채색 도시에 색을 입히다 - 아일랜드의 동화 속 마을 킨세일

컬러 파워는  
감성에 가장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이고 저렴한 전략이다.



글 이해주

중앙대학교 디자인학부 교수로 중앙대학교 예술문화통합연구원을 겸하고 있다. 한국브랜드 문화학회 회장이며 인천시 색채 디자인 기본 계획에 참가했다. 저서로 『감성경제와 브랜드 디자인 매니지먼트』가 있다.

우리나라에도 언제부터인가 ‘감성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소리가 드높다. 조지워싱턴대학의 윌리엄 할랄(William Halal) 교수는 정보의 시대(Information Age)가 끝나고 지식 이상의 가치와 목표를 중시하는 영감의 시대(Spiritual Age)가 올 것이라고 말한다. 하와이대학의 짐 데이터(Jim Dator) 교수는 “아이콘과 심미적인 경험들로 이루어진 꿈의 사회(Dream Society)가 정보·지식 사회 이후의 미래 모습 일 것”이라고 강조한다. 앞으로는 사회 모든 면에서 인간 감성을 최고조에 이르게 하는 문화 차원의 전략이 필요한 시대라는 의미다. 비단 브랜드나 기업의 이야기만이 아니다. 도시나 국가도 사람들이 그곳에 머물고 싶도록 하려면 사람들의 감성에 호소하는 도시 계획을 구사해야 한다.

그런 감성 전략에서 컬러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 ‘컬러가 세상을 바꾼다’라고 말하면 과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을 것 같다. 하지만 ‘컬러 파워’는 사람의 감성에 가장 직접적으로 작용하며, 효율성에 비해 비용이 저렴하고, 쉽게 모든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전략이다. 이 연재는 앞으로 여러 나라, 여러 분야에서 색깔이 힘을 발휘했던 사례를 살펴 보면서, 우리 현실에 컬러 파워를 적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들을 제안하려 한다.

## 인구 2천의 작은 도시를 바꾼 컬러의 힘

어떤 도시의 이미지를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이 특정한 건물이나 자연 환경이라고 대답할 것 같다. 하지

만 한 도시의 이미지를 만드는 데에 의외로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컬러다. 날씨와 계절 변화로 인한 도시 하늘의 색깔, 도시를 이루는 건물들의 색깔, 흩어지며 바위 같은 자연물의 색깔들이 모여 한 도시의 이미지 컬러를 형성한다.

날씨나 하늘 빛깔, 물 빛깔 같은 자연 환경을 인간의 힘으로 바꿀 수는 없다. 하지만 도시의 건축물이나 조경물을 이루는 색깔은 사람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다. 많은 도시들이 자신들의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이미 컬러 전략을 쓰고 있고, 성공 사례로 꼽히는 곳 역시 꽤 많다. 그중에서 오늘은 아일랜드의 도시를 살펴보자.

아일랜드라고 할 때 ‘밝고 명랑한’ 이미지가 떠오르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위도가 높아서 겨울엔 밤이 길고, 날씨 역시 흐린 날이 많다. 건축물들 역시 오랜 역사를 말해 주듯 무겁고 어두운 색이 많다. 녹지가 많아 ‘녹색의 나라’라고 불리기는 하지만, 아일랜드라고 하면 역시 무거운 컬러 톤을 떠올리기가 더 쉽다.

킨세일(Kinsale)이라는 아일랜드의 작은 도시를 아는 사람은 우리 주위에 그리 많지 않을 것 같다. 아일랜드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코크 시티(Cork City)에서 가까운 이 항구 도시는 인구가 겨우 2천 명을 조금 넘는 아주 작은 곳이다. 하지만 킨세일은 요트를 비롯해 레저를 즐기려는 관광객들로 여름이면 활기가 넘치는 도시로 변모한다.

킨세일에 가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곳의 아름다운 색깔을 기억할 것이다. 마을 거의 전부에, 특히 마을 중심으로 들어갈수록 깊고 선명한 색깔이 넘쳐난다. 집이나 상점의 지붕과 벽, 창틀과 문이 두드러지게 대조를 이루는 알록달록한 컬러로 칠해져 있다. 또한 진하고 강한 파스텔 톤의 건물들마다 입구며 창문은 예쁜 색깔의 꽃으로 장식해 놓았다. 건물의 색만으로도 화려해서 어디부터 먼저 봐야 할지 모를 지경인데, 꽃들의 아름다운 자연색 역시 시선과 마음을 빼앗는다.

마치 동화 속이나 나올 것 같은 아름다운 건물과 쇼윈도들은 킨세일의 중요한 관광 요소이기도 하다. 어느 곳을 찍어도 그림엽서처럼 아기자기한 사진을 얻을 수 있어서 관광객들의 사진 촬영은 끊이지 않는다. 여기에 독특한 특징과 분위기를 가진 유명 식당들까지 있으니 더욱 매력적인 관광지가 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동 하나 정도 크기가 되려나 싶게 규모가 작은 이 도시에서 '미식 축제(Gourmet Festival)'가 열리는 것도 아마 이런 매력 덕분이 아닐까.

### 세계 최초의 트랜지션 타운, 킨세일

도시의 화려함에 눈을 빼앗겼다 잠시 후 찬찬히 킨세일의 그 컬러풀한 건물들을 살펴본다. 의외로 아주 낡고 허술한 건물들이 그 선명한 컬러 아래에 숨어 있다. 칠을 하지 않고 그냥 두었다면 쇠락해서 무너져가는 건물로 보일 수도 있을 만큼 오래되고 허름하다. 시야를 좀 넓혀 본다. 군데군데, 원색을 포인트로 썼지만 원래의 구조가 드러나는 오래된 건물들이 있다. 우리가 기존에 아일랜드에 대해 가졌던 인상과 비슷한, 좀 우중충한 회색 톤 건물들이 대부분이다. 한번 더 시선을 넓혀 본다. 킨세일의 자연까지 눈에 넣어보는 것이다. 하늘색, 바다색, 나무의 색. 역시나 지중해의 파란빛과는 다른, 아일랜드 북쪽 바닷가 특유의 무겁고 어두운 색들이다. 킨세일이라는 도시는 환경색과 도시의 구조색이 어둡고 깊은 톤임에 반해, 보조색과 대비색들은 매우 발랄하고 선명한 원색을 썼다. 보조색과 대비색들이 워낙 강렬한 인상을 주기 때문에 도시 전체 이미지가 바뀌었고, 그 결과 매력을 느끼고 찾아드는 관광객들의 수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킨세일의 주요 관광 자원인 요트를 생각해 보라. 단순히 바다만 있다고 요트를 타고 가서 머물지는 않는다. 맛있는 음식이나 훌륭한 문화 시설, 관광 포인트 같은 추가적인 매력 요소가 있어야 비로소 요트 여행객이 찾는 명소가 되지 않겠는가. 사실 환경운동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라면 킨세일은 낯선 이름이 아니다. 이곳이 바로 세계 최초의 '트랜지션 타운(transition town)'이기 때문이다. '지역사회 전환 운동'이라고도 불리는 이 운동은 '석유 정점(oil peak)'에 대비해 에너지 과소비를 줄이고, 세계화에 맞서 지역화를 꿈꾼다. 이를 위해 지역 화폐, 도시 농업, 로컬 푸드, 교통 체계 개편 같은 생활 속의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동화 속 마을 같은 킨세일에 어울리는 시민 운동이다.

만약 킨세일에 밝은 색깔의 집만 있었다면 이곳이 오늘날 같

색	측색 장소	색상
환경색		
구조색		
보조색		
강조색		
대비색		

킨세일은 환경색과 도시 구조색이 어둡고 깊은 톤임에 반해, 보조색과 대비색들이 워낙 강렬한 인상을 주기 때문에 도시 전체의 이미지까지 바뀌 버렸다.

은 관광 명소가 되지는 못했을 것이다. 오늘날에야 아일랜드 경제가 많이 좋아졌지만, 한동안 이곳은 나라 전체 살림이 위기에 처했던 곳이 아니던가. 그중에서도 바닷가 작은 마을 킨세일이고 보니, 대규모 토목 공사나 화려한 건축물, 체계적인 도시 계획을 적용하기엔 무리가 있었을 것이다. 그 대신 이곳에는 큰돈을 들여 집을 고칠 능력이 없어도, 낡은 집이지만 컬러풀하게 색을 칠하고 집 앞을 꽃으로 장식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겉으로 드러나고 눈에 보이는 가치보다, 당장은 눈에 드러나지 않고 오히려 생활을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는 '환경'이라는 가치에 주목했다. 킨세일의 컬러를 완성한 것은 바로 그곳 사람들의 마음과 생활이었다.

### 화사한 색과 소박한 일상의 조화, 부라노

사실 킨세일이 이렇게 과감하고 알록달록한 컬러를 적용한 최초의 도시는 아니다. 이런 컬러 이미지로 가장 유명하고 역사가 오랜 곳은 이탈리아의 부라노(Burano) 섬이다. 베니스 인근에 있는 이 작은 섬은 다른 특별한 관광 자원 없이 색색의 컬러풀한 집들로 유명 관광지의 반열에 올랐다. 안개가 많은 기후 속에서 집이 잘 보일 수 있도록 칠하기 시작했다는 부라노의 컬러는 이제 명실공히 섬의 개성이 되었고, 관광공사에서는 구역에 따라 집에 칠하는 색을 규제할 정도라고 한다. 킨세일과 마찬가지로, 부라노 섬의 집들 역시 자세히 보면 소박하고 작은 건물들이다. 비싸고 거창한 건물이 없어도 색깔만으로 충분히 화사해 보이는 집들.

맑은 날은 맑은 대로, 안개 낀 날은 또 그대로 부라노의 컬러는 선명하고 그윽하다. 크레파스처럼 밝고 알록달록한 색깔의 작은 집들 덕분에 저절로 동화 속 마을을 연상하게 만드는 부라노는 디즈니월드 패밀리 리조트의 모델이 된 것으로도 유명하다.

더불어 부라노를 더욱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그 컬러풀한 집들 사이로 널린 빨래며 고운 레이스 커튼 같은 생활의 흔적들이다. 이곳의 특산품은 레이스 공예인데, 아마도 바다로 고기잡이 나간 남편과 아버지를 기다리며 여인들이 그물을 엮듯 한 코 한 코 곱게 레이스를 뒀던 데에서 유래했을 것이다. 전설에 따르면 이 섬의 성실한 어부에게 인어가 결혼

선물로 신부의 레이스 면사포를 주었다고 한다. 이런 전설과 레이스의 아련하고 섬세한 분위기가 어우러지면서 부라노 섬의 관광 가치는 더 높아진다. 단순히 컬러풀한 집들만 들어섰다면 영화 세트장 같았을 섬마을에, 일상의 흔적과 전설, 그리고 수공예가 어우러지면서 살아 움직이는 아름다움을 지니게 된 것이다. 오늘날 유럽 곳곳에서 컬러풀한 파스텔 톤의 도시와 마을들을 발견할 수 있는 데에는 이 부라노의 영향이 음으로 양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도시는 아직 명확한 컬러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가끔씩 컬러를 적용했을 때 실패한 사례가 많아서 '도시와 컬러'라고 하면 오히려 반감을 가지는 사람들도 많다. 하지만 도시의 환경과 자연, 역사와 문화를 제대로 분석해서 올바르게 적용하기만 한다면, 컬러는 가장 쉽고 저렴하게, 또한 즐겁게 도시를 바꿀 수 있는 수단이 된다. 아일랜드의 킨세일은 그런 가능성을 보여 주는 즐거운 사례이다.

부라노 섬을 유명하게 만든 컬러풀한 집들.



# 하늘은 정말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가? - 스마일즈의 『자조론』

‘자조’ 정신은 개개인에게 진정한 성장의 원동력이 된다. 외부로부터 도움을 받으면 나약해지기 마련이지만, 내면으로부터의 도움은 언제나 활력을 불어넣는다.



글 권보드래

고려대학교 국문학과 교수. 저서로 『한국 근대소설의 기원』 『연애의 시대-1920년대 초반의 문화와 유행』 『1910년대. 풍문의 시대를 읽다』 『아프레겔 사상계를 읽다-1950년대 문화의 자유와 통제』 등이 있다.

근 반세기 후 최남선이 번역해 『자조론』(1918)으로 상권이 소개되었다. 출판 당시 『자조론』은 “출판계의 신등록을 작(作)하는 대호평”을 얻었다. 이 책은 다시 세월을 건너 2006년에 국내에서 새롭게 번역, 출간되어 있기도 하다.

## 개인을 자유롭게 내버려 두라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Heaven helps those who help themselves).” 도무지 한국어답지 않은 이 구문에 가우뿔 거렸던 기억이 난다. 이 격언이 바로 『자조론』의 첫 문장이다. 책 전체의 사고가 집약되어 있는 해당 문단을 대략 소개하자면 이렇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 격언은 이미 검증은 충분히 거친 진리다. (...) ‘자조’ 정신은 개개인에게 진정한 성장의 원동력이 된다. 더 나아가, 많은 사람이 자조 정신을 실천하면 그것이 곧 국력의 원천이 된다. 외부로부터 도움을 받으면 나약해지기 마련이지만, 내면으로부터의 도움은 언제나 활력을 불어넣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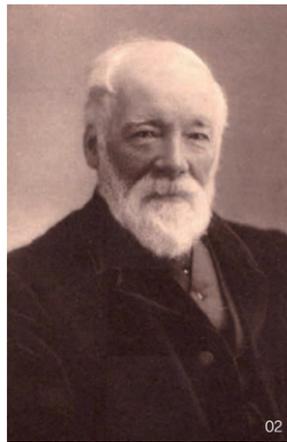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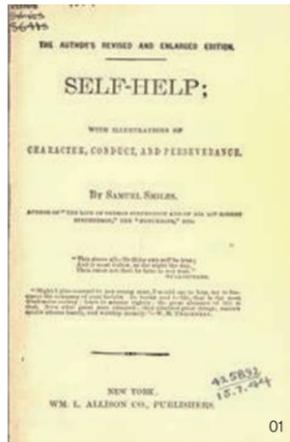
스마일즈에 따르면 “제도가 아무리 훌륭하다 해도 국민 개개인에게 도움을 충분히 줄 수가 없다. 최선책은 각자 자기 계발에 정진하고 자신의 여건을 개선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다.” 개인의 노력이 제도 개선보다 우선한다는 말이다.

그리고 보면 『자조론』이 ‘자유주의의 통속 교과서’처럼 이해되곤 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자조론』이 출간된 것은 1859년, 동인도회사에서 퇴직한 존 스튜어트 밀이 유명한 『자유론』을 펴냈던 바로 그해이다. 실제로 『자조론』에서 존 스튜어트 밀을 ‘학자이기에 앞서 유능한 관료인’ 모범적 사례로 소개하고 있기도 하다. 지도하거나 통치하려 하지 말고 개인을 자유롭게 ‘내버려 두는’ 것, 『자조론』은 각자 저 좋을 대로 ‘내버려 두’어야 한다고 제안한다는 점에서 19세기에 본격화된 자유방임(laissez-faire), 말 그대로 ‘내버려 두는’ 정책과 통한다.

『인생을 최고로 사는 지혜』 『자기를 향상시키는 최고의 지혜』 『세상을 가질 수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몸값을 올리는 노하우 47가지』, 『2030 자신 있게 살아라』 『3040 성공 마인드 전략』 『너 자신을 경영하라』 『성공만이 최대의 복수다』…… 1960년대 이래 치세술 책과 자기 계발서는 독서시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기 상품이다. 이른바 IMF 이후, 2000년대 이래 그 인기는 더 뜨거워졌다. 수신서처럼 보이는 『인생을 최고로 사는 지혜』에서 노골적일 대로 노골적인 『성공만이 최대의 복수다』까지, 이 다양한 자기 계발서 세계에서 오래도록 반복되는 이름이 있으니, 바로 1백여 년 전의 영국인 새뮤얼 스마일즈(Samuel Smiles, 1812~1904)이다.

1859년 출판된 스마일즈의 『자조론(Self-Help)』은 아마 근세 최고의 베스트셀러 중 하나가 아닐까 싶다. 본래 의사요, 정치 개혁가였던 스마일즈는 40대에 접어들어 정치 대신 ‘개인의 개혁’에 주목하기 시작했고, 그 생각을 『자조론』으로 풀어내 폭발적인 호응을 얻었으며, 이후 『인격론』 『검약론』 『의무론』 등의 저서 속에서 빅토리아 시대 영국의 인물형을 확고하게 구축했다. 그의 책 제목인 ‘자조’의 영향력은 유구하여, 영어권에서는 아직도 ‘자조’가 ‘자기계발(self-improvement)’과 동의어로 쓰이고 있을 정도다.

『자조론』은 근대 초기 동아시아에서 큰 영향을 발휘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일본에서는 메이지유신 직후 나카무라 마사나오(中村正直)가 『서국입지편(西國入志編)』(1871)이라는 제목으로 번역해 자극과 변화의 촉매로 쓰였고, 한국에서는



01. 영어판 『자조론』의 속표지. 02. 새뮤얼 스마일즈의 초상. 03. 일본에서 발간된 당시의 『자조론』 표지. '서국입지편'이라는 제목이 보인다. 04. 최남선이 번역한 『자조론』의 표지.

다양한 분야의 인물들을 망라하고 있는 전 13장(章)의 지면은 역경과 고투, 영광의 드라마를 넘치도록 풍성하게 보여준다. 성실한 대서인이기도 했던 인기 작가 월터 스코트나 구두장이로서 철학적 대저술을 남긴 드루, 대장장이였으나 판화가로 대성한 사플즈 같은 당대 유명인들을 가장 사랑하면서, 스마일즈는 미켈란젤로나 뉴턴으로 거슬러 올라가기도 하고, 세포이 항쟁이나 버컨헤드호 이야기에서 동시대 무명의 다수를 불러내기도 한다. 세포이 항쟁 당시 인도에서는 숭한 영국인들이 죽기 직전까지 “침착하고 용감하게 저항”했고, 1850년대에 아프리카 근해에서 난파한 버컨헤드호에서는 여성과 아이들을 탈출시킨 후 젊은 남성들이 “한 사람도 움츠러들지 않”은 채 깨끗하게 죽음을 맞았다. 자조는 현실적인 성공뿐 아니라 고결한 최후까지 보장한다.

세포이 ‘반란’이나 아프리카 식민지로의 항해를 회고하면서 철두철미 제국의 입장에 섰다는 데에서 알 수 있듯, 『자조론』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자부하던 빅토리아 시대 영국의 초상을 잘 보여 주는 책이다. 산업혁명 영웅들이 칭송되고, 낭만주의 정신은 폄하되며, 제국을 위해 죽은 생애는 격정의 파토스가 아니라 성실과 절제의 로고스 속에 소환된다. 반면 뱁자맹 콩스탕, 코올리지, 바이런 등 낭만주의의 명성을 높인 이들은 국적과 시대를 불문하고 스마일즈의 가혹한 문초에 시달린다. 콩스탕은 ‘천박’하고 ‘추잡’한 생애 때문에, 코올리지는 “의지가 부족하고 결단력이 없어서” 그렇잖았더라면 훨씬 상대했을 업적을 끌어내림 당한다. 스마일즈의 유년, 즉 섭정기 영국(1811~1820)을 대표하는 귀족적 탕아 바이런은 스마일즈에 따르면 “현실을 떨시하며 기존 관례를 혐오하는” 유행을 남겼다. 스마일즈가 보기에 독일의 베르테르 주지와 비견되는 이 몹쓸 유행은 질병과도 같아서, “이 위황병(萎黃病)의 유일한 치료 방법은 신체 단련, 즉 활동, 일, 그리고 육체적인 직업”뿐이다.

### 식민지 지식인 최남선을 버티게 한 힘, ‘자조’

『자조론』의 한국어 번역자였던 최남선은 아이러니하게도 바이런과 스마일즈를 동시에 애호했다. 그의 「해(海)에게서 소년에게」(1908)가 바이런의 영향을 입었다는 사실은 널리 합의되고 있는데, 그 무렵 스마일즈에도 관심을 가졌던 것이다. 『자조론』을 번역하리라 마음먹은 것도 당시였다고 한다. 최남선은 스마일즈의 격언을 여러 차례 소개하면서 특히 “요사이 이른바 애국주의란 것은 고루편협”하다는 말을 남다르게 받아들였다. 애국의 혈성(血誠)이 가히 신분 불문, 개성 불문 거의 모든 이들을 감염시키던 시절이다. 최남선은 애국 정신의 필요에는 충심으로 공감했지만, 혈서나 자결로 표상

최남선 역시 개인이 자립해야 국가가 설 수 있다고 믿었고, 개인의 수양이 전제되지 않는 한 국가의 문명과 부강은 공상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다.

되는 애국의 방도, 즉 눈물과 흥분으로 얼룩진 길에는 격하게 반발했다. 민영환이나 최익현의 죽음을 두고 “아침에는 민 모가 죽었다 저녁에는 최 모가 죽었다 하여 가뜩이나 소동된 민심을 거듭 거듭 경악케 할 뿐이 아니오니까.”라고 썼던 약관 청년 최남선의 발언은 가히 도발적이다(노파심 삼아 추가하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남선이 민영환의 순국 즈음 신문에 추모 광고를 게재한 기록도 남아 있다).

최남선은 자칭 애국자들이 입으로 하는 애국에만 자족한다며 ‘수족(手足)과 사실로’ 애국할 필요를 역설한다. “이름 없는 영웅으로 기쁘게 (…)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서 기공비(紀功碑)도 세우지 않고 포훈장도 가지지 아니하리라.”는 것. 최남선이 ‘무실역행(懋實力行)’이라는 안창호의 노선에 공감한 것도 이 때문이다.

스마일즈처럼 최남선 역시 개인이 자립해야 국가가 설 수 있다고 믿었고, 개인의 수양이 전제되지 않는 한 국가의 문명·부강은 공상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다. 모두 ‘영웅’을 갈구하는 판에 ‘범인(凡人)’의 힘으로 신대환을 건설할 것을 기약하고, 사생결단을 맹세하는 상황에 “느직느직 실력을 양성하”는 길을 모색하곤 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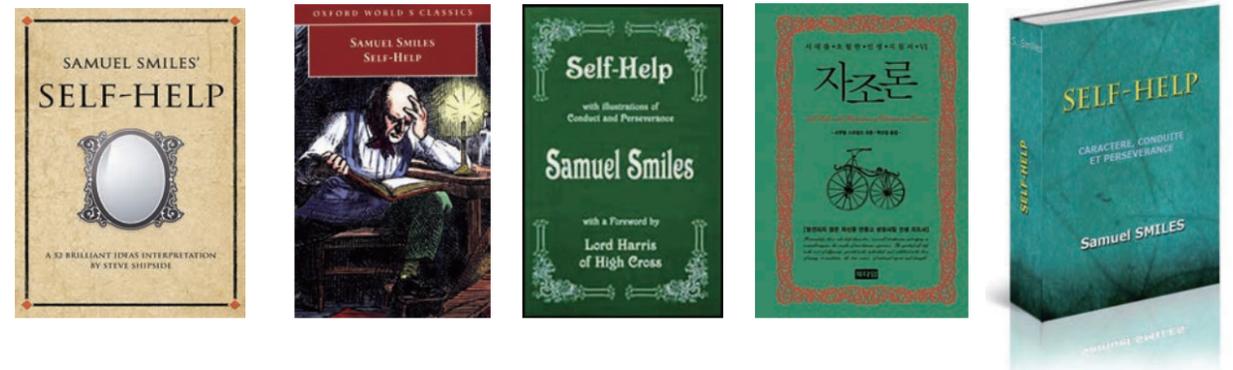
최남선은 급진에도 후퇴에도 반대한다고 선언하면서 ‘점진(slow progress)’을 자신의 방략으로 내세웠다. 1910년 나라의 강점 이후, 우국지사 대부분이 망명하거나 침묵해 버린 상황에서 그가 홀로 목소리를 낼 수 있었던 것은 그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그 역시 2~3년간 앞이 없는 좌절 속에 빠져 있었지만, 진작부터 ‘개인’의 ‘수양’을 중시했던 까닭에 나라 없는 처지를 견뎌낼 동력 역시 거기서 길어 올릴 수 있었다. 저마다 인격을 닦고 실력을 기르면 사회의 문제, 국가의 문제 역시 해결할 수 있으리라 믿어 둘 수 있었다는 뜻이다.

최남선이 『자조론』을 번역한 것도 그런 믿음 때문이었으리라. 최남선은 역자 서문을 붙인 것은 물론, 장(章)마다 해제를 다는 등 한국어판 『자조론』을 태반 자신의 책으로 만들었다. 이 책이 일본에서 번역되며 ‘메이지 일본을 만든 책’ 중 하나라는 평판을 들었음을 밝히 알아서인지, 최남선은 『자조론』에 거의 획시거적인 역할을 기대했던 것 같다. “신시세(新時勢)에 적응할 정신적 준비를 선유(先有)하라.”는 것이 광고 꼭대기의 문구였는데, 어쩌면 그는 1918년에 이르러 비로소 식민지라는 상황을 살아낼 방도를 찾았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다.

스마일즈의 ‘자조’가 팽창하는 제국의 공격적인 자유방임에, 상충하는 시민계급의 반(反) 귀족적 정서에 기댄 것이었던 반면 최남선의 ‘자조’는 식민화 이후 그나마 발판을 잃어가던 중인의식에 위태롭게 걸쳐 있는 것이었다. 프랑스혁명 이후 유럽이 피투성이 행진을 치르는 와중, 빅토리아 시대 영국이 ‘식민지의 피’로 내부의 출혈을 막을 수 있는 제국이었던다면, 1910년대의 조선은 스스로 ‘피’를 흘려야 하는 새로운 식민지에 불과했다. ‘자조’의 계층적·국가적 토대는 그만큼 허약했다. 당연히 3·1 운동 이후 『자조론』은 베스트셀러 자리에 계속 머무를 수 없었다. 3·1 운동으로 수감된 최남선은 옥중에서 『자조론』 하권 번역을 끝마치지만 그 출간은 끝내 성사되지 못한다. 조선 사회가 다시 바이런을 향해, 낭만을 향해 소용돌이치고 있었던 때문이다.

참고  
 새뮤얼 스마일즈, 김유신 옮김, 『새뮤얼 스마일즈의 자조론』, 21세기북스, 2006.  
 최희정, 『한국 근대 지식인과 '자조론』, 서강대 박사논문, 2004.  
 김남이, 『1910년대 최남선의 『자조론』 번역과 그 함의』, 민족문화사연구 43호, 2010.

다양한 판본으로 국내외에 출간된 『자조론』.



# 아이들에게 기술을 가르치자

자신의 일상을 구성하는 기술에 대해  
현대인은 놀라울 만큼 무지하거나 무기력하다.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일이다.



글 이충웅

과학저술가. 저서로 『과학은 열광이 아니라 성찰을 필요로 한다』와 『문명의 관객』이 있고, 번역서로 『고통과의 화해』가 있다.

‘황우석 전성시대’가 과학 기술 담론의 다양성 결핍 문제를 심각하게 드러내던 때였다면, 지금은 과학 기술 담론의 양적 빈곤을 걱정해야 할 때인지도 모르겠다. 애초에 다양성이 확보됐다면 현재의 빈곤에 이르지도 않았겠지만, 현재 과학 관련 보도가 적잖이 ‘위축’되었다는 말은 사실로 보인다. ‘황우석’이나 ‘최초의 우주인’ 같은 쇼나 이벤트 후 남겨진 보잘것없음에 대한 허망함 때문이든, 언론사 내부의 조정에 따른 것이든, 변화된 미디어 환경 탓이든, 아니면 그 모든 것들이 조금씩 뒤섞여 일어난 변화이든 간에 말이다. 은하계나 천체의 화려한 이미지가 간혹 눈길을 끌 뿐, 뉴스 소비의 장을 장악한 포털 사이트 초기 화면에서 ‘IT’가 아닌 ‘일반 과학’ 기사가 뜨는 경우는 확실히 드물다. (몇 번의 클릭이라는 수고를 통해서만 우리는 ‘과학 기사 모음’으로 들어갈 수 있다.)

### ‘과학 기술’에 대한 관심, 너무나도 관념적인

일부 언론과 과학자는 또 한 번 슈퍼스타가 나타나 다른 과학 기술 분야에 ‘하이퍼링크’ 기능이라도 발휘해 주길 바라는지 모를 일이지만, 늘 그렇듯 스타에 대한 바람과 과학 기술의 건강성 사이엔 두꺼운 벽이 가로놓여 있다. 이미지는 또 다른 이미지에 기댔 따름이고, 거품이라면 그것의 지지대는 주변의 거품들일 뿐이다. 진정 필요한 것은 누군가의 등장으로 ‘드라이브 하는’ 과학 기술이 아닌, 평범한 이들의 일상적이고도 자발적인 관심이다. 어떤 지적 허영에 따른 것도 아닌, 희망과 꿈의 메시지를 담고 있지도 않은, 작고 사소해

보이지만 흥미롭기 짝이 없는, 자연 속 온갖 물리 화학적 현상, 생명현상 등에 대한 이성적 사고의 유발이다.

어떻게 해야 그럴 수 있을까? 과학자들마저 지극히 전문화된 탓에 자신의 연구실 밖 일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거나 놀라운 무지를 보여 주는 형편에, 일반인이 과학 기술 일반에 폭넓은 관심을 가져서 생기는 유용성이나 가치는 도대체 무엇인가? (차라리 <나는 가수다> 같은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편이 삶을 더 즐겁게 하지 않을까?)

일반인들의 과학 기술에 대한 관심은 관념적으로는 고전적 의미에서 ‘자연철학’의 대중화일수도 있지만, 실천적 의미로는 일상적 삶을 재구성하는 데로 이어진다(일상의 변화야말로 세상의 변화를 위한 시작이며 마무리다).

과학 기술에 대한 관심이나 교육의 필요성 혹은 교육의 목표라는 것에 반드시 따라붙는 ‘국가경쟁력 강화’ 운운하는 주장들은 내적 모순에 허덕일 수밖에 없다. ‘시장에서의 가치’가 모든 것의 척도가 되는 듯한 사회에서, 재능 있는 학생들이 안정된 생활을 위해 의사나 한의사 혹은 변리사를 선택하는 상황을 저지할 만한 말을 찾는 것은 버겁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국가경쟁력이나 개인의 경제적 지위 문제가 서로 동떨어지지 않은 까닭이기도 하다.

국가경쟁력 운운이 이른바 ‘과학 영재교육’ 담론으로 이어지는 논리 또한 천편일률이다. 과학은 경쟁력이고, 그런데 지금은 위기고, 기초과학을 강화해야 하고, 인재를 잘 모아 교육 지원을 잘해야 하며, 현대 과학의 성과를 ‘대중’들에게 알기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는 작업을 하는 역할 역시 중요하고 운운, 딱 거기까지다. 주장은 녹음기를 튼 것처럼 반복된다.

### 과학이 아니라 ‘기술’에 주목한다

늘 그대로운 상황 때문이라도 상상력은 필요하다. 때론 꽤 긴 ‘꿈’을 꾸기도 한다. 하지만 꿈은 현실을 건디기 위한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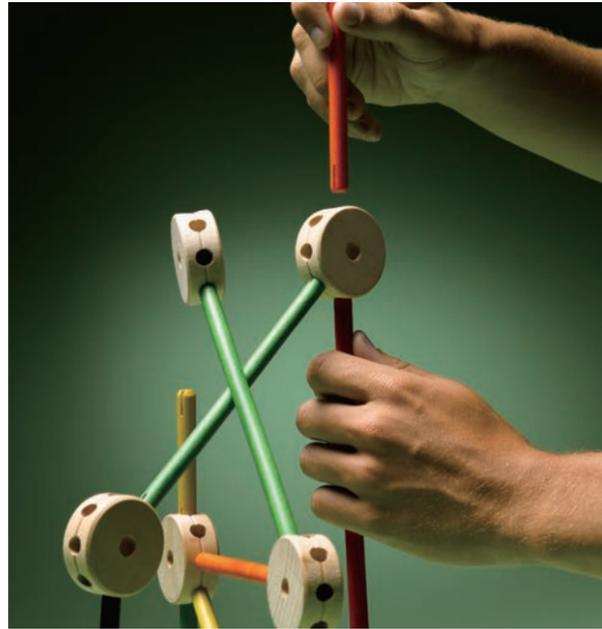
이 아니라 '변화'를 위한 것일 때 조금이라도 더 가치가 있리라. 이른바 영재가 아닌 보통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소위 대안적 교육이 아닌 제도권 내에서 이뤄져야 할, 과학 기술에 대한 다양하고 풍부한 관심과 담론을 자연스럽게 이끌 수 있는, 그런 좀 더 구체적인 '꿈'을 꾸 보려 한다.

그 꿈에서 아이들은 일찌감치 '기술'을 배운다. 우선 이 장면에서 적잖은 편견이나 부정적 의견이 끼어들지 않으면 다행이다. "머리를 사용하는 과학자가 돼야지 '손'을 사용하는 기술을 일찌감치 가르쳐야 할 이유가 뭐지? 아이들을 다 '공돌이'로 만들자는 애긴가?"

하지만 이런 식의 불만이나 의구심은, 기술이 과학의 하위 범주거나 그것보다 못한 것이라는 생각에 기인한다. "과학은 계획하고 기술은 실천한다."는 관념은 근대 이후에 생겨난, 아니 오히려 지극히 현대적인 것이다. 그런 관념이 생김과 동시에 과학과 기술은 쉽게 분리할 수 없는 상태로 뒤섞여 버렸다. '관념'의 탄생과 더불어 '실재'가 사라진 셈이다. 인류 역사의 대부분 동안 기술과 과학은 서로 분리된 채 기능해 왔다. 실제로 역사의 대부분을 관통하며 사회 변화(그것이 좋은 나쁜)를 촉진한 것은 과학이라기보다는 차라리 기술이었고, 이러한 인식은 적어도 과학 기술사 학계에서만 큼은 익숙한 것이다. 물론, 이러한 역사적 중요성 때문에 어릴 때부터 기술 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건 아니다. 그것은 기술 교육이 지니는 장기지속적인 가치 때문이다.

### '기술 교육'으로 달라질 학교 풍경, 혹은 삶의 풍경

(내가 꿈꾸는)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자신의 손으로 직접 뭔가를 만들거나 고치며 생명을 다루고 키우는 일을 돕는데, 그런 것들이 주요 교과목이 된다. 미술이나 가정 시간의 '이벤트' 정도가 아니라 장기적이고 연속적인, 그래서 훨씬 깊은 수준을 지향한다는 말이다. 목공은 물론 토목의 기초, 전기 배선, 농업, 심지어 미장과 도배도 가르친다. 초등학교를 졸업할 무렵엔 집에서 일어나는 어지간한 고장 수리나 필요한 설치는 스스로 할 수 있을 것이고, 중등학교를 마칠 무렵엔 지금 수준으로는 '전문가'라 할 만한 경지에 오른 아이들도 드물지 않게 나온다. 이런 교육은, 유치원 때부터 이 학원 저 학원 떠밀려 다니고 남는 시간에는 휴대전화나 게임기를



가지고 노느라 정신없는 지금 한국 아이들의 것보다는 훨씬 나은 삶의 풍경을 제시할 것이다.

이 기술 교육은 기술 자체에 그치지 않는다. 아이들은 간단한 테이블이나 의자, 책꽂이 혹은 그릇을 스스로 만들면서 그 연장선에서 수학과 물리의 기초를 배운다. 듣고 말하기를 통해 외국어를 처음 접하게 하는 것과 유사한 원리다. 기술 습득은 '현장' 경험을 통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는 기술자들의 한결같은 얘기를 굳이 염두에 두지 않더라도, 적어도 초기 몇 년 동안의 학습은 '프로젝트' 중심으로 실습 현장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좋다.

기술 교육을 예술 및 인문·사회과학 훈련과 연결시키는 것도 또한 결코 어색하지 않다. 가령 '집 짓기'에 대해 배울 때 에너지 절감 문제와 환경 문제, 혹은 '미(美)'에 대한 논의를 자연스럽게 이끌 수 있다. 여러 기술을 배우면서 어느 시점부터는 학생들과 '기술의 윤리'를 토론할 것이다. 이런 '연계'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과 교수법이 필요한 것은 물론이다. 기술 훈련을 시작으로 아이들은 천천히 자신의 길을 택할 것이다. 전기 기술자가 되기로 결심할 수도 있고, 토목이나 건축공학자, 혹은 목축을 하기로 하거나, 아니면 인문·사회과학자의 길을 갈 수도 있다.

현대인은 온갖 기술적 결과물들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자신의 일상을 구성하는 기술들에 놀라울 만큼 무지하거나 무기력하다.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일이다. 기술 자체가 대단

히 복잡해져 있는 탓에 기술자도 자신이 하는 일에만 매진할 뿐 '전체'를 파악하기란 거의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럴 필요도 없을 지경이다. 또 한편으로는 단지 '구매할 뿐'인 생활 영역이 있다. 이미 만들어져 있는 물건이나 준비된 서비스를 사서 이용하면 된다. '돈' 외에 준비할 건 없다. 어느 시점부터는 매우 간단한 '기술'이 필요한 일 앞에서도 무력해져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조명 기구를 바꿔 다는 것조차 직접 하기 두렵다. 문명화한 현대인은, 어떤 면에서는, 자신의 문명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신세가 됐다.

'기술 교육'은 교육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한다. 당연한 말이지만, 그것은 기존의 사회·정치·경제 시스템의 변화와 맞물려 있다. 일단 직접적으로는, 영어 수학 성적을 위해 1년에 20조 이상이 사교육 시장에 투입되는 현실과 전면적으로 충돌한다. 중등교육 기관에서 직업 교육을 강화하고, 대학은 고등학교 졸업 직후에 가는 곳이라기보다는 직장 생활을 하는 중에도 필요에 따라 선택하는 곳이 되며, 기술자가 지금보다는 존경받는 그런 사회를 지향한다. 또한 미시적 관점에서 기술 교육은 일반적 '지능' 개념이 누락하고 있는 '창의성'을 개발하는 데도 효과적이다. 공작(工作)수업을 중심에 놓는 교육 방식의 긍정적 성과는 일본의 기노쿠니 같은 몇몇 대안학교의 사례에서도 엿볼 수 있다. 다만 그런 학교 졸업생이 일반 학교로 진학했을 때 오히려 더 좋은 성적을 낸다거나(그것이 사실일지라도), 이러한 교육이 장기적으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것(충분한 개연성이 있다)이라는 얘기로 기술 교육의 가치를 강조할 필요는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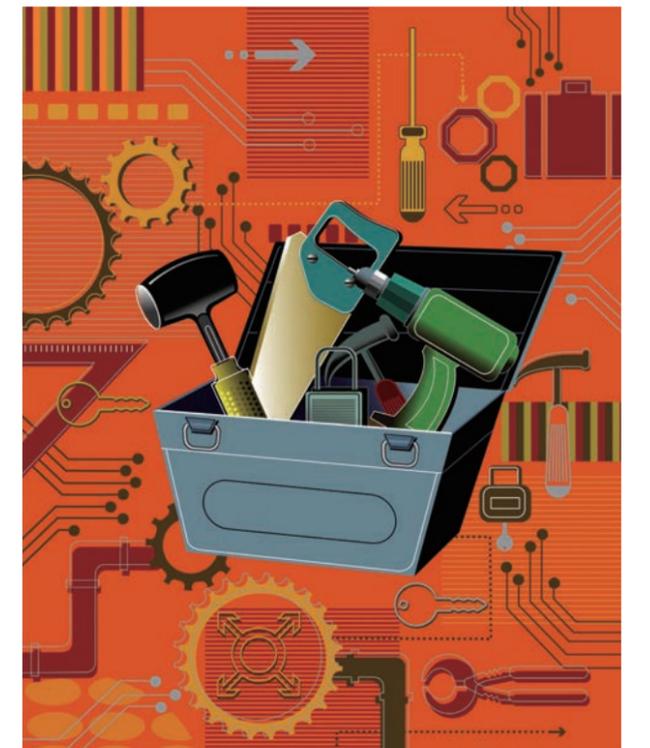
### 지불하는 '손', 변화를 일으키는 '손'

필요를 위해 돈을 지불하는 '손'만 필요한 세계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사물에 변화를 일으키는 '손'에 대한 감각은 점점 더 희미해져간다. 일차적으로 기술 훈련은 그 감각의 기억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현실적으로 기술 교육은 적게 소비하는 방법도 가르쳐 줄 수 있다. 고장 나면 바로 버리고 새 것을 사는 대신 고쳐 쓸 여지를 알고, 이미 있는 것을 가지고 새로운 것을 만드는 가능성을 볼 줄 아는 상황은, 낭비를 줄이는 적절한 소비 감각을 일깨워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술 교육은 이 세계와 개인 사이에서 벌어지는 소통의 단절을 적잖이 치유시켜 줄 가능성을 제공한다. 제대로 된 기술 훈련은 자연과 관계 맺는 방식에서 '겸손'을 가르칠 것

이다. 정복이 아닌 자연과의 '화해'를 배우도록 하고, 기술에서 타인에 대한 배려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가르친다. 기술 문제가 '윤리' 문제와 동떨어져 있지 않다는 의미고, 기술 교육이 인문학적 훈련과 연계될 수 있고 또 연계되어야만 한다는 뜻이다. 학생들은 사람을 위한 '적절한 기술'이라는 게 무엇인지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할 것이다.

'기술적인 것'과 '예술적인 것'의 친화성은 역사적으로 볼 때도 크고 의미심장하다. 최근 몇몇 대학에서 시행하는 '과학과 예술 통합 교육 프로그램'은 어떤 면에선 뒤늦은 것이고, 단절의 부자연스러움에 대한 반성이기도 하다. 아이들을 위한 기술 교육은 미술, 음악 혹은 기타 미적 감수성을 끌어올릴 훈련들과 긴밀히 상호작용하면서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교육 안에서 과학 기술에 대한 관심 부족을 푸념하는 건 불필요한 일이 될 것이다. 기술 교육은 궁극적으로, 사물이 아닌 인간 존재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일이다. 아이들 자신의 손이 사물에 가 닿아 어떤 변화가 일어날 때, 인간의 과거와 미래를 잇는 어떤 선이 살짝 튀겨 울림을 느낄 것이다. 그 미세한 떨림으로부터, 시작하자.



# 맨체스터 시티, 새로운 명문 구단의 탄생은 가능할 것인가

리그 중하위권을 맴돌던 맨시티에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거대 자본의 유입이 한 시대를 끝장낸 것이다.



글 서형욱

MBC 스포츠 해설위원이자 네이버 스포츠 <서형욱의 풋볼리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저서로 『유럽 축구 기행』, 『유럽 축구 유럽 문화』 등이 있다.

2009년 봄 영국.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더비’ 현지 생중계를 위해 찾은 맨체스터는 언제나처럼 을씨년스러웠다. 스산한 이 도시는 이렇다 할 명승지나 근사한 풍경이 없음에도 우리에게 매우 낯익다. 이유는 오직 하나다. 축구, 그리고 박지성. 맨체스터를 대표하는 클럽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자기를 도시를 넘어 영국 전역, 아니 유럽과 세계에 그 이름을 각인시킨 최고의 명문 축구단이다. 하지만 이 도시의 축구팀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하나가 아니다. 붉은색을 앞세운 유나이티드와 푸른색으로 치장한 맨체스터 시티는 도시를 양분하는 거대 축구 클럽이다. 그리고 이 둘의 충돌은 ‘맨체스터 더비’라는 이름으로 포장된다. 지역 라이벌 간의 맞대결을 뜻하는 ‘더비’는 축재이자 전쟁이다. 지역 맹주가 되기 위한 외나무다리 승부이면서, 축구를 좋아하는 지역민들의 잔치이기 때문이다.

### 맨시티의 오랜 꿈, 맨유를 뛰어 넘어라!

그 무렵 더비는 오랜 동안 흥이 떨어진 터였다. 한때 리그 우승권을 다투며 옥신각신할 때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둘의 격차는 점점 벌어졌다. 자고로 싸움은 전력이 비슷한 상대가 맞붙어야 기대가 커지는 법.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가 꾸준한 상승세 속에 매 시즌 우승을 다투는 동안, 맨체스터 시티(이하 맨시티)는 1부 리그와 2부 리그를 오가며 고난의 길을 걸었다. 둘의 맞대결은 누가 보더라도 긴장감 떨어지는 승부일 수밖에 없었다. 만년 우승후보와 중하위

권 팀의 승부. ‘더비’가 주는 긴장감은 여전했지만 예측의 시소가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노릇이다. 그러나 방문 당시 맨시티는 서서히 변화하는 중이었다. 해외 자본의 유입으로 주머니가 두둑해진 맨시티는 나라 안팎에서 좋은 선수들을 대거 영입하고 있었다. 레알 마드리드에 600억 원을 내 주고 데려온 브라질 국가대표 호비뉴는 그 무렵 맨시티의 변화를 상징하는 인물이다. 맨시티의 영입은 그렇게 ‘돈벼락’을 앞세워 공격적으로 진행됐다. 1995년 프리미어리그 우승팀인 블랙번 로버스, 2005년 이후 맨유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런던의 첼시는 돈벼락 효과의 위대함(?)을 입증한 팀들이다. 맨시티는 마찬가지로 ‘부자’ 구단주와의 만남과 동시에 새로운 강호로 급부상하고 있었다. 외부 자본에 기대어 도약을 꿈꾸는 맨시티의 변화는 팀 안팎의 비난 여론에 부딪혔다. “돈으로 트로피를 살 수는 없다.”는 비판은 이른바 축구의 순수성을 믿는 이들이 뱉는 가장 강력한 구호였다. 하지만 경기장에서의 성공이 가진 ‘판돈’의 크기에 비례할 확률이 높아지는 건 예나 지금이나 같다. 이미 ‘명문’이라는 소리를 듣는 팀들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단지, 다른 팀들보다 앞서 ‘돈’을 갖고 있었을 뿐 아닌가. 그 래서였을까. 맨시티 팬들은 해외 자본이 구단을 인수하는 것에 대해 다른 클럽들(이들테면 맨유)보다 저항에 소극적이였다. 맨시티가 이미 객석 점유율 99%를 자랑하는 두터운 팬층을 가진 팀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다소 의외였다. 이들은 맨시티가 2부 리그로 추락해도 매 경기 90% 이상 좌석을 메워줄 만큼 충성스런 지지자들이였다. 하기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은 아니다. ‘우승’이라는 자신들의 숙원을 풀기 위해서는 다른 수가 없다는 것을 열성적 팬들도 알고 있었다. 여러 면에서 저만치 앞서는 맨유를 따라잡기 위해서 무엇보다 전력 보강이 절실했고, 우수 선수들을 대거 영입해 전체 전력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었다.



맨시티가 자본의 집중 공략 대상이 된 배경에는 클럽의 탄탄한 팬층과 ‘맨체스터’라는 상징성이 큰 몫을 차지한다. 태극정치가이자 재벌인 탁신에 이어 두바이 갑부인 셰이크 만수르가 천문학적 액수로 맨시티를 인수했을 때, 그는 단순히 한두 번의 우승을 원하는 게 아니었다. 맨시티의 오랜 꿈이라 할, 맨유를 뛰어넘는 명문 구단의 완성. 이를테면 리그 우승 2회에 그친 맨시티가 클럽 엠블럼에 별을 세 개나 그려 넣은 것이 더 이상 ‘장식용’에 그치지 않도록 하는 것. 그래서 맨유 팬들의 조롱을 받지 않고, 나아가 맨유 앞에 주눅 들 필요 없는 진정한 명문 클럽이 되는 것.

이를 위해 그는 맨시티가 세계 최고 수준의 트레이닝 센터와 경기장을 신축하고 유소년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막대한 자금을 지원했다. 또한 지역 사회와의 더욱 밀접한 접촉은 물론 세계로도 눈을 돌려 광범위한 마케팅을 시도하도록 계획을 짰다. 공식 홈페이지 리뉴얼에만 20억 원이 넘는 돈을 투자한 것은 변화에 걸맞는 시도였다. 이런 여러 준비과정에서 맨시티는 (자신들의 뜻과 무관하게) 현대 축구에서 ‘돈’이 얼마나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지를 실증하고 있다.

### 회사가 되어 버린 축구 클럽

현대의 축구 클럽은 더 이상 해당 지역의 축구를 대표하는데 그치지 않는다. 세계 각지에서 불러 모은 재능들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조합하느냐에 따라 성과가 갈리는 조직이 되었다. 선수와 감독, 팬 모두가 그 지역에서 나고 자란, ‘가족’의 테두리에서 운영되는 ‘클럽’은 이른바 ‘빅 리그’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다국적 선수들이 한데 모여 각자가 보유한 최고의 기량으로 협주를 벌인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파올로 말디니(AC밀란), 게리 네빌(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처럼 한 클럽에서 선수 인생을 시작하고 마감하는 스타 선수들, 이른바 ‘원 클럽 맨’이 희귀한 시대가 되었다.

현대 축구의 스타 선수들은 대부분 최소한 한 번 이상 ‘이직’한다. 즉, 축구단은 더 이상 ‘클럽’이 아닌 ‘회사’에 더 가까운 조직이 되었다. 더 좋은 급여와 환경을 제공하는 곳이 나타나면 얼마든지 옮길 수 있다. 새로운 일터에서 새로운 옷을 입고 새로운 팬들에게 허리를 숙인다. 그런 이유로 축구 클럽은 예전보다 많은 ‘돈’이 필요하고, ‘선수’는 클럽 최대의 ‘자산’으로 장부에 등재된다. 좋은 선수가 우리 팀에 없다면, 돈을 주고 좋은 선수를 데려올 수 있다. 이와 같은 비즈니스의 세계에서 클럽에 속한 선수들에게 ‘충성심’을 요구하는 것은 매우 순진한 생각이다.

현지에서 중계한 2008/2009 시즌 맨체스터 더비는 맨유의 완승으로 끝났다. 맨유의 홈구장 올드 트라포드에서 열린 경기에서 맨유의 아르헨티나 출신 공격수 카를로스 테베스는 멋진 골을 터뜨렸다. 그러곤 객석을 향해 귀를 기울이는 골 세리머니를 펼치며 다음 시즌에도 팀에 남게 해 달라는 무언의 시위를 펼쳤다. 그러나 맨유는 테베스의 소속사가 요구한 거액의 이적료를 지불할 의사가 없었다. 결국 테베스는 시즌이 끝난 뒤 팀을 떠났고, 공교롭게도 다음 행선지로 같은 도시의 라이벌 맨시티를 택했다.

맨시티의 선택은 탁월했다. 지역 최고의 팀인 맨유조차 부담스러워한 이적료를 거뜬히 지급해 우월한 재력을 과시하면서, 테베스를 첨예한 라이벌 관계의 상징으로 활용하는 영리한 홍보력을 발휘했다. 그 뒤에도 맨시티는 선수 보강에 거액을 아끼지 않았다. 아랍 거부의 든든한 재정을 바탕으로 스타 선수 사재기에 나선 맨시티는 콜로 투레, 아테바요르, 산타 크루스, 레스콧 등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 중인 스타 선수들을 대거 영입했다. 이를 통해 리그 중하위권을 맴돌던 맨시티에 새 시대가 열렸다. 거대 자본 유입이 한 시대를 끝장낸 것이다. 마침내 2011년 여름, 맨시티는 쟁쟁한 클럽들을 제치고 리그 최종 순위 3위를 차지함으로써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본선 진출권을 따 낸다. 42년 만에 들어 올린 FA컵 우승 트로피와 함께 그야말로 엄청난 성과였다. 십여 년간 이어진 맨유-아스널-첼시-리버풀의 ‘빅4’ 체제를 무너뜨릴 수 있는 최상의 대항마로 떠오른 것이다. ‘챔피언스리그 진출 클럽’ 또는 ‘새로운 빅4’의 일원으로 새롭게 맞이할 맨시티의 2011/12 시즌은 그야말로 사기충천이다. 맨유를 넘어 영국 최고, 아니 유럽 최고의 클럽이 되려는 오랜 꿈을 마침내 현실로 만들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맨시티는 더 막대한 자금을 풀어 팀 안팎의 면면을 새롭게 바꾸는 중이다. 뛰어난 선수들을 영입하는 것은 물론 지역 내에서 클럽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다각도로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지역 라이벌 맨유 팬들이 “돈으



로 우승컵을 살 수는 없다.”고 비웃어도, 맨유의 알렉스 퍼거슨 감독이 “맨시티는 시끄러운 이웃일 뿐”이라 말해도 대응하지 않는다. 당장의 수모(?)보다는 최후의 승리로 보여 주겠다는 태도다. 맨시티 골수팬인 전설적 밴드 ‘오아시스’의 멤버 리암 갤러거의 농담은 맨시티의 속내를 그대로 보여 준다. “맨유 팬들이 자가용에 기름을 넣을 때마다 맨시티 이적 자금이 두둑해진다고.” “외부 자금이 유입되면서 클럽의 역사가 짓밟혔다고? 천만의 말씀. 우리(팬)는 여전히 맨체스터 시티다.” 석유 재벌의 소유로 넘어간 클럽이지만 결국 팀의 주인은 팬이라는 자긍심. 그리고 독기.

### 지갑을 단속하시오!

변수가 있다면 최근 유럽 축구계에 개혁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해외 투기 자본, 혹은 거부들의 개인 재산에 의존해 덩치를 불리는 팀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경각심이 높아졌다. 클럽이 정상적인 영업 행위로 벌어들인 돈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돈벼락’을 통해 팀을 꾸리는 데 대한 위기의식이 커지고 있다. 축구 외적 요인으로 확보한 돈이 클럽에서 철수할 경우 팀이 공중분해 될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지적은 그 위기감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UEFA에서는 플라티니 회장의 주도하에 ‘UEFA 재정성 페어플레이(financial fairplay)’ 규정을 만들었다. 클럽들이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UEFA가 주관하는 각종 대회(챔피언스리그, 유로파리그) 출전 자



격을 박탈하겠다는 선언이다. 인플레이 현상을 보이는 선수들의 이적료나 급여를 현실화하고 각 클럽들이 분수에 맞는 지출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긴급 조치이다.

이에 따르면, 각 클럽은 매년 우리 돈 400억 원 이상의 적자를 기록해서는 안 되며 구단의 빛이나 투자에 구단주 개인의 재산이 비정상적으로 투입되어도 안 된다. 2011/12 시즌부터 적용될 이 규정은 현재 여러 명문 구단들이 재정 운영 상태를 개선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위기감을 조성하는 데에 성공했다. 지난해 2000억 원에 가까운 적자를 기록한 맨시티는 물론이고 선수 및 직원 연봉으로만 매년 4000억 원을 지불하는 FC바르셀로나, 이적료와 위약금을 과도하게 낭비한 첼시, 챔피언스리그 진출 실패로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리버풀 등이 당장 재정 건전성 확보 미흡으로 어려움을 겪을 처지에 놓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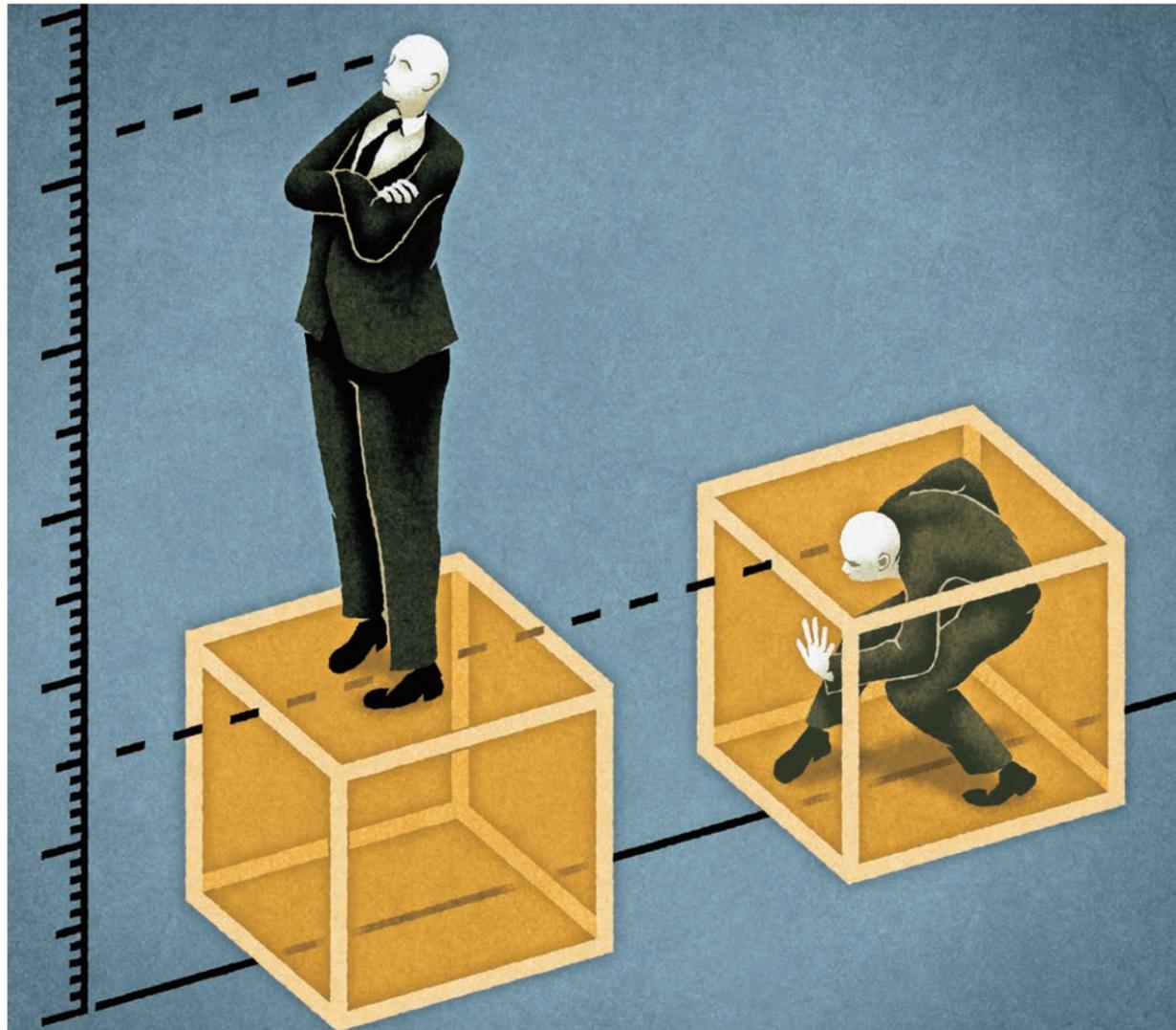
이런 변화가 빅 클럽들의 위세를 크게 떨어뜨릴 것 같지는 않다. 이미 기득권을 확보한 거대 구단들은 1군 선수의 수를 조정하고 새로운 영입 선수에게 쓰는 돈을 제한하는 선에서 적자 관리가 가능하다. 적자에 포함되지 않는 유스팀 육성에 더 많이 투자할 수 있고, 기왕에 확보한 마케팅 톨을 활용해 다양한 수입 증대 정책을 지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난 시즌의 맨시티처럼 중위권에서 최상위권으로 도약하려는 팀만 조금해졌다. 새로운 스타 선수를 끌어들이기가 쉽지 않고 구단주의 재산에 의한 시설 투자도 위축될 우려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지금껏 의욕적으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온 맨시티의 앞날은 그래서 더 주목을 받는다.

맨시티는 과연 21세기형 명문 클럽 탄생의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까. 그것이 비록 외부 자금을 의존해 출발한 도약이라 하더라도 기존 빅 클럽들의 공고한 카르텔을 깨고 하나의 이정표를 세울 수 있다면 이는 분명 축구사에 의미 있는 지점으로 기록될 것이다. 팽창할 대로 팽창한 유럽 축구산업에서 맨시티가 걷는 길은, 걸어갈 길은, 그래서 더욱 흥미로운 관찰의 대상이 되고 있다.

안녕하세요  
디자인입니다

## 기업은 디자이너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나? - 좋은 디자인은 좋은 관계에서 나온다

같은 제품이라도 겉모양을 바꾸면  
다시 팔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사업가들은  
겉포장을 위해 디자이너를 필요로 했다.



글 이지원

버지니아 주립 올드 도미니언 대학(Old Dominion University) 인문예술학부 조교수, 크리에이티브 에이전시 'Crispin Porter & Bogusky'에서 인터랙티브 디자인 실장으로 근무하며 코카콜라, 폭스바겐 U.S., 버거킹, 도미노 등의 기업과 관련된 디자인을 수행했다. 디자인 비평 블로그 <디자인 읽기>의 필진이며, 번역서로 『그래픽 디자인 들여다보기 3』과 『그래픽 디자인 이론』이 있다.

기업 활동에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요소가 디자인이다. 디자인이 좋다는 이유로 사람들은 '애플' 매장 앞에 줄을 선다. 전문가들이 TV에 나와 "디자인이 경쟁력"이라고 하고, 서울시는 디자인 때문에 살맛이 난다고 한다. 하지만 사람들은 디자인이 가져다 줄 경제적 이익에 대한 공상을 늘어놓을 뿐, 막상 '디자인'의 실체에 대해서는 별로 고민하지 않는다. 본질과 정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어떤 것을 단편적으로 '이용'하려는 시도는 무모하기 짝이 없다. 디자인을 이용해 이른바 '경쟁력'을 갖추려면 일단 디자인이 어떤 식으로 기업 활동에 연관돼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다.

### 좌파 예술과 자본의 만남

1900년대 중반 미국에서는 기업과 디자인, 대중문화라는 삼각편대의 의기투합이 이뤄졌다. 당시 미국 건축가와 디자이너들은 제1, 2차 세계대전 직후 사회 재건을 이끄는 사업가들에 편승하여 자신의 야망을 실현할 희망에 차 있었다. 폭발적으로 규모가 늘어난 제품 시장을 점유하기 위해 기업은 투자를 아끼지 않았고, 자본의 비호 아래 디자이너들은 자신의 전위적 디자인 철학을 실현할 기회를 얻었다. 기회를 노리고 미국으로 이민한 유럽 디자이너들도 많았다.

여기에 유럽에서 발생한 예술운동 '모더니즘'이 미국 대중문화 유행을 형성하면서 신제품 수요가 엄청나게 늘었다. 같은 제품이라도 겉모양을 바꾸면 다시 팔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사업가들은 자사 제품을 번지르르하게 포장해 줄 상업 예

술가(당시의 디자이너)를 찾기 바빴다.

유럽 모더니즘은 사실 사상 면에서 미국 기업들과 정반대의 위치에 있었다. 모더니즘 디자인은 '영속적(timeless) 디자인'이라는 가치를 중요하게 여겼다. 재료를 정직하게 사용하고, 기능을 살려 최소한의 형태를 취하고, 특정 취향을 배제한 객관적이고 근원적인 모습의 사물을 만들었다.<sup>1</sup>

하지만 미국 기업과 예술가들은 모더니즘의 배경에는 관심이 없었다. 모더니즘이 낳은 간결한 형태와 메시지가 새롭고 이국적이라는 점에 착안해 '모던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트렌드를 탄생시키며 소비를 조장하고자 했을 뿐이다. 영속성을 표방하는 디자인이 한시적인 트렌드로 와전된 것이다.

### 기업과 디자이너의 뒤틀린 밀월 관계

기업의 디자인은 제품 치장에 그치지 않고 회사 이미지를 총체적으로 구축하는 이미지를 개발하는 데에까지 이르렀다. 단편적 심벌마크가 아닌, 단일한 시각 시스템으로서의 기업 아이덴티티 디자인은 1950년대에 성장한 미국 기업들이 처음 시도했다.<sup>2</sup> 'CBS', 'IBM', '웨스팅하우스', 'ABC', '인터내셔널 페이퍼', '체이스 맨해튼', '모바일', '벨(AT&T)', '아메리칸 에어라인' 같은 우수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자사 이미지를 일관되게 드러내기 위해 시각 아이덴티티 시스템 개발에 심혈을 기울였다.

이런 작업을 한 디자이너들도 모더니즘 방법론을 그대로 따오는 편을 택했다. 단순하고 기하학적인 형태와 글꼴로 기업 그래픽 시스템을 만들고 그것을 모든 제품과 서비스, 홍보물에 일관되게 적용해 시간과 장소를 초월한 단일 이미지를 사람들에게 깊이 각인시킨 것이다.

아이덴티티 디자인 시스템은 큰 성공을 거두며 다국적 기업 유통망을 타고 전세계로 퍼져 나갔다. 이 일에 뛰어난 디자이너들은 돈과 명예를 동시에 거머쥐었다. 디자인 대학



들은 앞다투어 “CI (Corporation Identity)”, “BI (Brand Identity)” 등의 과목을 개설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산했다. 사업가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기업 경영의 열쇠를 디자이너가 쥔 셈이니 취업은 백 퍼센트 보장이었다. 기업 내부에 디자인 부서를 개설하거나(인하우스 디자인), 외부 디자인 스튜디오에 디자인 프로젝트를 일괄 위탁하는 산업 구조가 형성됐다. 이때 자리 잡은 ‘클라이언트-에이전트’라는 기업-디자이너 구도는 지금까지 이어진다.

1950~1960년대 미국 기업 아이덴티티 디자인 스타일은 전략적 마케팅의 일환으로 유럽 문화의 표피를 모방하여 미국과 세계 소비 시장에 맞게 개조한 결과물일 따름이다.<sup>3</sup>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은 모더니즘의 가치를 실험하는 데 필요했던 막대한 자본을 미국 기업이 쥐고 있었기 때문이다. 디자이너는 자신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기업의 돈을 이용했고, 기업은 회사 성장을 위해 디자이너의 능력을 이용한 셈이다. 하지만 이런 표리부동은 그리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

### 무너진 자긍심

한국에서는 미국보다 늦은 1970년대부터 기업이 고도로 성장했고, “경영 전략의 일환으로서의 기업 디자인은 1980년대 이후에 중요한 디자인 비즈니스로 등장했다.”<sup>4</sup> 국내 기업들은 이때부터 적극적으로 디자인에 투자하기 시작했고, 대학 디자인 학과와 독립 디자인 스튜디오가 생겨났다. 미국에서 40년에 걸쳐 일어났던 일련의 사건이 한국에서 10년 만에 압축적으로 재현됐던 것이다.

한국 사회의 여러 다른 제도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디자인은 미국 기업 디자인 모델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에서 출발했

다. 이런 인식은 겉으로 보기엔 꽤 순조로워서, 한동안 한국에서 디자인은 “경제 발전 및 수출 동반자”<sup>5</sup> 역할을 하는, 다소 애국적인 동시에 이국적인 느낌의 직업으로 여겨졌다. 물론 이 과정에서 미국 기업 디자인의 모태였던 유럽 좌파 아방가르드 예술 철학이 철저히 간과됐음은 말할 필요도 없다. 1980년대에 한국에서 기업 관련 일을 했던 디자이너는 기업을 도움으로써 사회에 긍정적 기여를 한다고 믿을 수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당시만 해도 불모지였던 디자인이라는 영역을 일종의 비즈니스 활동으로 ‘격상’시키는 중책을 수행한다는 일종의 사명감도 있었다.

이런 직업적 소명 의식은 1990년대를 지나며 송두리째 무너졌다. 한국 산업 디자인의 견본이었던 미국 산업 디자인, 특히 기업 아이덴티티와 광고 디자인 분야가 서양 디자인 사회의 지탄을 받기 시작한 것이다. 인간을 불특정 소비자로 취급하고 제품을 팔기 위해 지어낸 허위를 퍼뜨림으로써 “자본이 주도하는 문화 산업의 일방적인 놀음에 좌지우지되며 현실을 왜곡하는 한낱 거짓된 활동으로 타락”했다는<sup>6</sup> 혐의가 미국 산업 디자이너들에게 쏟아졌다.

디자인계의 이런 자기 반성은 1980년대 말부터 시작되어<sup>7</sup> 1990년대 말에 절정을 이뤘다.<sup>8</sup> 급기야 미국 디자이너들 사이에서 대기업 관련 일은 ‘돈을 벌 수는 있지만 도덕성은 포기해야 하는’ 일로 통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인식 변화에서 한국 디자이너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 디자인을 향한 디자이너의 마음

많은 사람들은 기업을, 이윤을 추구하는 거대한 익명의 조직체라고 생각한다. 많은 기업이 단기적으로 돈이 되는 일이라면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드는 반면, 장기적인 연구나 문화 활동에 대한 후원은 뒷전이다. 전문성, 공익, 타 집단에 대한 배려는 거의 없다. 타사의 성공작을 베끼고, 자사 제품의 결

유능한 기업가는 디자이너에게 어떠한 구체적 요구도 하지 않고 그들을 최대한 자유롭게 풀어놓는다.

점을 감추기 위해 교묘한 거짓말을 서슴지 않는다. 허황된 트렌드를 날조해 어떻게든 소비자가 새것을 사도록 유도한다. 이러한 ‘베끼기’와 ‘은폐’, ‘거짓말’을 좀 더 세련되게 하기 위해 디자이너를 찾는다. 기업의 요구를 좇아 생전 본 적도 없는 제품의 광고를 만드는 디자이너는 사람들에게 허위를 유포한다는 죄의식에 사로잡힌다. 물론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란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

훌륭한 디자이너라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프로젝트를 연구하며 애정을 쏟는다. 클라이언트의 요구를 맞추는 것 외에 자신만의 방식을 따로 개발하고 그것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성취감을 느낀다. 클라이언트의 승인을 받은 후에도 스스로의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계속해서 디자인을 뜯어고친다. 이런 디자이너에게 ‘잔소리 말고 시키는 대로 해라’는 식의 요구는 사형선고나 마찬가지다. 문제는 모든 기업 경영인과 임원, 마케팅 담당자들이 자신이 디자인을 잘 안다고 착각하는 데 있다. 큰 조직을 위해 일하는 디자이너는 수십 명에 달하는 ‘디자인 평가단’의 요구사항을 일일이 반영하느라 작업 시간의 대부분을 할애한다.

기업 입장에서 보자면, 제품과 광고 디자인에 꾸준히 예산을 들이고, 계속해서 많은 디자이너를 고용하는 상황인데도 대체 뭐가 문제냐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여타의 기업 활동과는 달리 디자인의 핵심은 예산 규모에 있지 않다. 투자액 증가가 디자인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지진 않는다. 아무리 돈을 많이 쏟아 붓는다 한들 디자이너가 마음껏 자신의 세계를 펼칠 여건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일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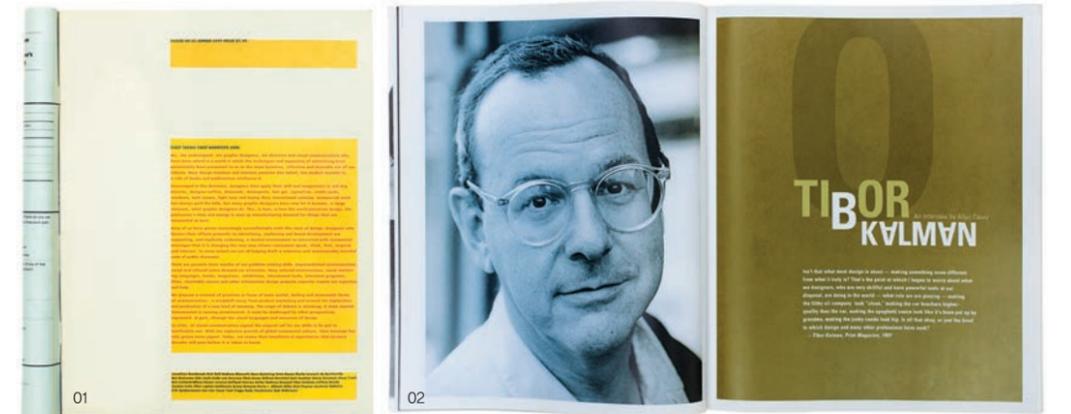
### 디자이너를 디자이너답게 활용하기

사업가와 디자이너는 원칙적으로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입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사업가가 디자이너와의 관계에 세심하게 신경 쓰지 않는다면 디자인 팀의 창의력을 옥죄는 결과가 발생하기 쉽다.

당신이 1800년대의 갑부 상인이라 가정해 보자. 당신은 반고흐에게 돈을 지불하고 좋은 그림 한 폭을 그려 달라며 이렇게 주문한다. “나는 고갱의 작품과 확실히 차별된 그림을 원합니다. 주조색은 빨강색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왼쪽 구석에 태양을, 중앙에는 여성을 꼭 넣어 주세요. 그리고 시간이 없으니깐 2주 내로 완성해 주셔야 합니다.” 이래서야 아무리 많은 돈을 지불한다 한들 좋은 그림이 나올 리 만무하다.

유능한 사업가는 디자이너에게 어떠한 구체적 요구사항도 말하지 않음으로써 그들을 최대한 자유롭게 풀어놓는다. 그저 유용하게, 멋지게, 재미있게 해 달라는 식의 폭넓은 애기를 할 뿐이다. 디자인 팀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사업가는 디자이너에게 처음부터 온갖 세부 요구사항을 들이대고, 작업 진행 내내 조직의 관행과 복잡한 승인 과정을 강요한다. 이런 상황에서 디자이너는 수백 개의 요구에 짓눌리고 매번 반복되는 회사 결정에 휘둘리다 결국 자포자기하고 하루빨리 프로젝트가 끝나기를 바라는 지경에 이른다.

최악의 경우 사업가는 디자이너에게 벤치마킹, 시장조사, 영업 이익 실적 같은 것들을 공부하라고 요구도 하는데, 이런 마치 권투 선수를 데려다 놓고 리본체조를 시키는 꼴이다. 비즈니스맨이 갖춰야 할 능력을 디자이너에게서 찾으려는 태도는 잘못이다.



1990년대 말 북미권을 중심으로 상업화된 디자인을 스스로 반성하며 비판적인 시각을 던지는 디자이너들이 등장했다. 01. ‘중요한 일을 우선으로(First Things First)’ 선언문. 02. 비판적 디자인 운동의 중심이 되었던 디자이너 티보 칼만(Tibor Kalman, 1949~1999).

디자이너가 될 허는 무조건 내버려두란 뜻은 아니다. 벌판에서 뛰놀던 말은 마구간으로 돌아와야 한다. 하지만 디자이너는 회사 경영 비전과 재정 사정에는 관심이 없다. 시장 상황에 대해서도, 소비자의 취향에 대해서도 어둡다. 사업가는 이런 부분에서 비즈니스적 능력을 발휘해 디자인 팀을 적절히 단속하고 이끄는 역할을 해야 한다.

디자이너에게 기업 임원을 맡기는 경우를 가끔 볼 수 있는데, 이는 그다지 좋은 방법이 아니다. 좋은 디자이너의 자질은 좋은 사업가의 그것과 완전히 다르다. 간혹 디자이너 중 우수한 사업 수완을 갖춘 사람도 있으나 상당히 예외적인 일이다. 고도의 경지에 오른 디자이너는 세세한 사항에 편집증적으로 반응하고 자신의 직관적 판단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을 무시하는 성향이 있다. 따라서 사업의 전반적 전략을 짜내거나 조직을 관리하기에 적합하지는 않다. 그들을 높은 위치에 올려 결정권을 쥐어 주기보다는, 조직 체계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이 활동할 수 있게 놔두는 편이 좋다. 외부의 독립 디자인 사무실과 함께 일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요는 어떻게든 디자이너로 하여금 진부하지 않은 발상을 하게 만드는 것이다. 내부 체계에 갇힌 디자이너는 자기 반복을 답습한다. 한정된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는 인습적 디자인만큼 진부한 게 또 어딴을까.

좋은 관계를 맺기 이전에 좋은 디자이너나 디자인 팀을 찾아내는 일도 중요하다. 세상에는 아무리 많은 돈을 주고 자유로운 여건을 보장해 줘도 창의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수준 낮은 디자이너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만약 기업가가 우수한 디자인 팀과 함께 일한다고 확신한다면 제품과 메시지 디자인에 관해서 만큼은 그들을 완전히 신뢰해도 좋다. 디자이너의 통찰력은 개인의 단편적인 취향을 넘어서며, 그들의 직관적인 판단 능력은 통계와 분석자료가 예측하지 못하는 창의적 디자인을 낳는 원천이다.

디자이너의 창의력을 마케팅적 잣대로 평가하려는 시도는 금물이다. 디자인은 비즈니스에 종속된 활동이 아니다. 따라서 디자인의 가치는 비즈니스적 가치로 측정될 수 없다. 사업가와 디자이너가 서로를 인정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

면 윤리적 제품 탄생과 기업 번영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모두 이룰 수 있다. 하지만 어느 한쪽이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를 다른 쪽에게 강요하는 관계가 형성된다면 양쪽 모두 2류로 전락하는 참혹한 결과를 맛보게 될 것이다.

좋은 디자이너와 사업가의 관계는 비유하자면 마치 말을 제때 풀어주고 불러들이는 일과도 비슷하다. 디자인 팀이 마음껏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면 결국 회사에 큰 이익이 되어 돌아온다. 그러니 건강한 말들이 당신의 목장에서 자유로이 뛰놀고 풀을 뜯으며 번식하게 내버려 두라. 말들이 마구간으로 돌아왔을 때 모든 말과 망아지들은 고스란히 당신 것이 된다. 병든 말이 풀을 뜯지 않는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런 말은 목장에서 쫓아내면 그만이다.



잡지 『에드버스터』는 1989년 캐나다에서 설립된 문화운동 네트워크인 '에드버스터스 미디어 재단'에서 발행했다. 디자인과 상업의 결탁을 반성하며 문화해방론의 역할을 자처한 디자이너들의 고민과 작업 결과물을 담고 있다.

자로서 디자인 역할 수행)의 전시 자료 참조. 6. 안 반 툰, 『디자인 그리고 깨어 있는 의식』, 『그래픽 디자인 이론: 그 사상의 흐름』, 비즈앤비즈, 2009, 103쪽. 7. 1989년에 개최된 AIGA 컨퍼런스 'Dangerous Idea'에서 티보 칼멘을 비롯한 몇몇 연사가 자본주의 시점에서 허위를 퍼뜨리는 디자인을 비판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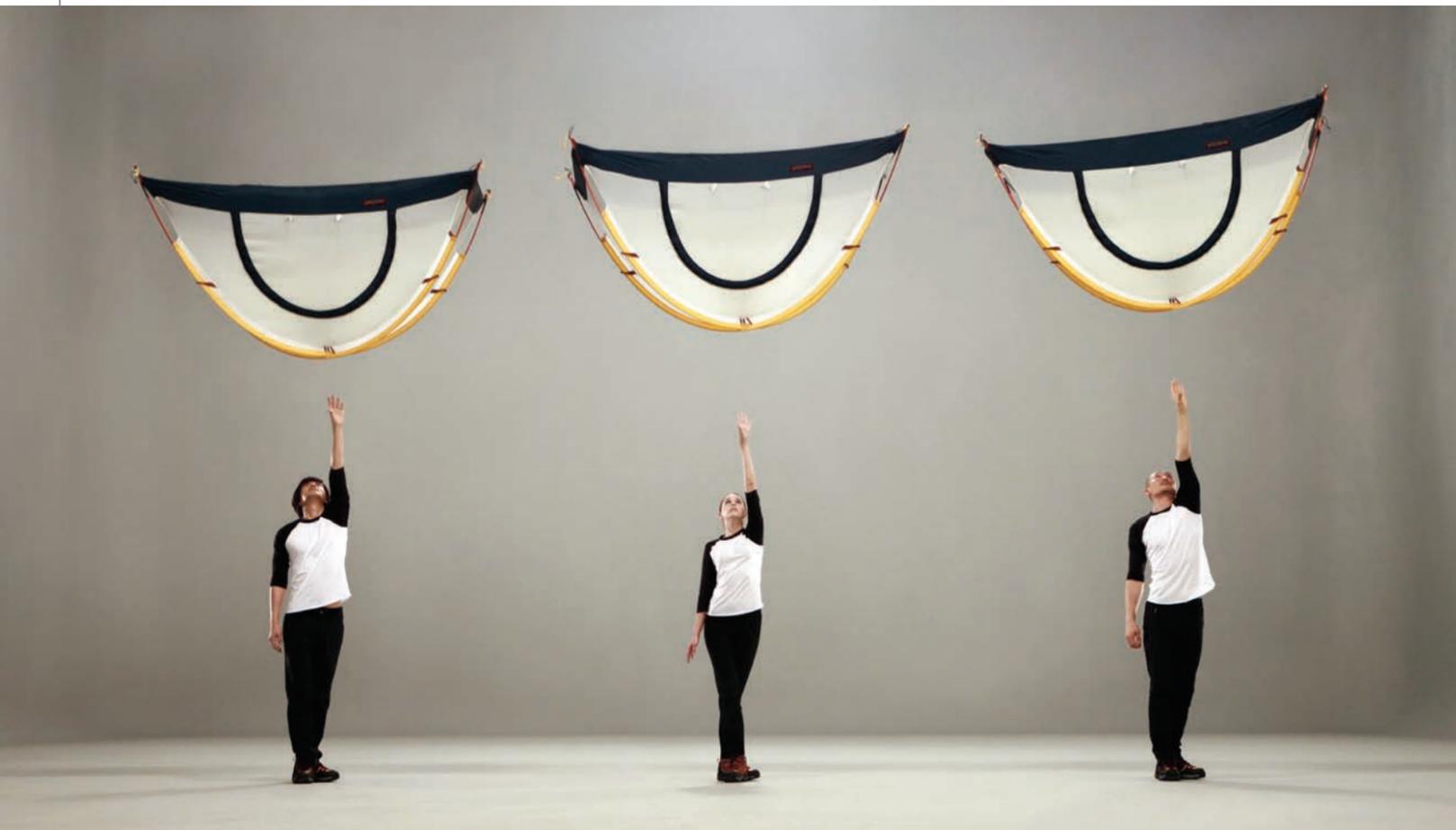
내용을 발표했다. 8. 1999년 당시 암 투병 중이던 티보 칼멘은 1964년 켄 가랜드가 쓴 '중요한 일을 우선으로' 선언을 재발표하기로 결정하고, 업계와 학계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던 33인 디자이너의 서명과 함께 『에미그레(Emigre)』에 선언문을 실는다.



&

## 아웃도어 리포트

걷기는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길 위의 이야기, 길 밖의 이야기들이 사람들의 발걸음에 섞여듭니다. 『보보담』에 대한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들이 여기 있습니다.



요즘 각 분야에서 가장 세련된 것으로 평가받는 트렌드는 바로 '힘을 빼는 것'이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단일 브랜드, 단일 콘셉트로 맞춰 입는 대신, 세계적인 패션 디자이너들이 시종마다 내놓는 옷들은 어딘가 한구석 모자라거나 엉뚱하다. 섬세한 이브닝 드레스에 길거리 패션 요소가 더해지고, 정장 수트에 샌들이나 운동화를 맞춰 신는다. 액세서리건 가방이건 '너무 잘 차려 입은' 느낌을 주는 것은 '너무 무거운' 것과 같은 말이다.

라이프스타일도 변하고 있다. 어깨가 딱딱하고 무거운 정장 수트, 정장 구두 차림에 각 잡힌 서류 가방을 들고 일 중독자로 서류 더미에 파묻히는 건 매력적이지 않다. 정장을 입어도 어딘가에는 숨 쉴 틈이 있고, 열심히 일하지만 자신의 색깔을 잃지 않는다는 태도가 호감을 얻는다.

가벼움에 대한 추구는 조금씩 더 큰 범주로 나아간다. 쓰지 않는 묵은 살림살이와 입지 않는 옷들을 정리해 기부하거나 베품시장을 열어 새 주인을 찾아 준다. 도심에서 벗어나 좀 더 녹색 공간이 많은 곳으로 주거지를 옮긴다. 수입이 줄더라도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일을 선택한다. 모두가 삶의 무게를 줄이는 일들이다.

**아웃도어 시장으로 변진 가벼움 예찬**

아웃도어 제품의 경량화 또한 이런 '힘 빼기' 현상과 궤를 같이한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에서 아웃도어 브랜드

라고 하면 '묵직함'과 '투박함'이 먼저 떠올랐다. 등산용 신발이나 옷, 배낭 등은 대개가 기능성을 강조하며 무겁거나 두꺼웠다. '산에 간다'고 하면 다들 이사라도 가는 듯 크고 묵직한 배낭을 짊어진 모습으로 나타났다. 등산화나 등산복은 온전히 등산만을 위해 갖추는 '장비'이므로 이것들을 일상에 활용하기란 불가능했다. 과거 간첩 식별 요령에 "등산화를 신고 다니는 사람"이라는 항목이 있었음을 떠올려 보자. 그만큼 아웃도어 라이프와 일상은 단절되어 있었다.

무거운 아웃도어 제품이 달갑지 않기는 전문 산악인들도 마찬가지다. 아니, 정신과 체력의 한계에 도전하는 이들이야말로 무게와 사투를 벌인다. 극한 상황에서는 칫솔 하나 수건 한 장의 무게에도 민감해진다. 내 눈썹마저도 무겁게 느껴지는 상황. 몸과 짐의 무게가 줄면 갈 수 있는 거리와 고도가 달라진다. 1kg이 아니라 1g 단위를 두고 많은 것이 바뀐다.

상황이 이러하니 이즈음 아웃도어 브랜드들의 초경량화 경쟁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다들 알고 있듯 아웃도어 제품의 경량화는 간단하지 않다. 제품 특성상 아웃도어 활동을 돕는 기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혹은 무거운 제품들보다 더 뛰어나면서) 무게도 가벼워야 한다는 두 가지 미션을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 아웃도어 브랜드들의 경량화 경쟁이 결국 기술력 경쟁으로 귀결되는 이유기도 하다.

가벼운 길에서  
가벼운 마음으로  
-아웃도어 제품의  
경량화

글 편집부, 사진 제공 몽벨(montbell)



2010년 겨울 다운 점퍼 시장 최대 이슈가 된 세계 최초 1,000FP(필 파워) 구스 다운 재킷. 지난해 몽벨이 1,000FP 제품을 내놓기 전만 해도 업계에서는 1,000FP가 불가능하다고 말했고, 국제공인기관인 IDFL(국제다운·페더검사기관)조차 몽벨 제품을 검사하기 전에는 '설마'라고 말할 정도였다. 2010년 제작 물량을 모두 소화한 몽벨의 1,000FP 구스다운 점퍼는 최고의 환경에서 3년 이상 자란 거위의 가슴털로 제작된 최고급 순수 다운 제품으로 회소 가치가 매우 높다.





일상에서조차 자꾸만 무게를 덜어내고 싶은 것이 현대인의 마음이다. 유행가 가사처럼 “등이 훨 것 같은 삶의 무게”에 지친 사람들에게 아웃도어에서마저 무거움을 참으라고 하는 건 가혹한 일.

### 바람보다 가벼운 바람막이

별다른 설명 없이 185g, 1.65kg 등의 숫자를 앞세운 광고가 나왔다. 뒤이어 한 손으로 텐트를 돌리고, 저글링하던 물체가 재킷으로 변하는 흥미로운 비주얼이 등장한다. ‘세계 최초 1,000FP 다운 재킷’, ‘세계 최초 53g 7D 방풍 재킷’, ‘세계 최경량 12D 고어텍스 재킷’ 등 “Light & Fast”라는 브랜드 콘셉트를 실현하며 고공비행 중인 몽벨(Mont-Bell)의 광고다. 7D, 1,000FP 같은 수치는 일반인들에겐 낯설다. 하지만 아웃도어 초경량의 비밀은 바로 이 압축 같은 수치에 들어 있다. 7D에서 D는 ‘데니어(Denier)’로, 원사의 굵기를 나타내는 단위이다. 통상 원사 9km가 1g이면 1D, 9km가 2g이면 2D라고 한다. 7D는 원사 9km가 7g이라는 것으로, 현존하는 원사 중 가장 가늘다. 7D 방풍 재킷을 두고 “입지 않은 것 같은 옷” “바람보다 가벼운 바람막이”라고 말하는 몽벨의 광고는 그래서 과장이 아니다. 달걀 하나의 무게를 말할 때 평균 57g을 기준으로 삼으니, 달걀 하나보다 가벼운 무게로 비바람을 막는 셈이다. 또한 접으면 주머니에 쏙 들어 갈 만큼 작고, 특수

가공을 통해 100회 이상 세탁해도 발수 기능이 변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기능성 옷은 세탁이 어렵다’는 고정관념도 깨뜨렸다.

FP는 필 파워(Fill Power)의 약자로, 다운 점퍼를 힘껏 눌러 납작하게 만든 뒤 다시 부풀어 오르는 정도를 수치화한 것이다. 수치가 높을 수록 그만큼 공기를 많이 품고 있다는 것이며, 그만큼 가볍고 따뜻하다는 의미다. 캐주얼 브랜드의 구스 다운 의류는 대개 600FP 안팎이며, 아웃도어 브랜드 제품은 700~800FP 수준으로, 900~1,000FP 구스 다운을 내놓은 곳은 현재로서는 몽벨이 유일하다. 참고로 다운 재킷의 모든 것이라 해도 좋을 필 파워 수치는 재킷 손목 부위에 표시되어 있다. 다운 재킷을 사기 전엔 손목 수치를 확인하는 게 필수.

### 아이들도 가볍히 들 수 있는 텐트

200ml 우유 한 팩보다 가벼운 세계 최경량 185g의 고어텍스 재킷도 있다. 재킷 두개를 합쳐도 500ml 생수 한 병보다 가벼운 몽벨의 12D 고어텍스 제품은 일반적인 고어텍스와 달리

고어텍스 팩라이트 셸을 사용해 100% 방수·방풍 기능을 갖춘 동시에 고어텍스 특유의 무게감과 부피감을 해결했다. 다시 한번 초경량과 고기능을 결합한 기술의 힘이다.

가벼움의 즐거움은 옷에서 끝나지 않는다. 두 사람이 잘 수 있는 텐트의 무게가 1.65kg이라면, 보다 가벼운 마음으로 길을 나설 수 있지 않을까. 스텔라릿지 텐트 1형은 백에 넣었을 때도 지름 14cm, 길이 31cm로 어린이용 베개보다 작다. 또한 가벼움을 앞세운 제품임에도 텐트를 쉰 고객들은 기능성을 먼저 꼽는다. 슬리브 폴 삽입 형태로 설치가 편리하고 조작성이 간편하다는 점, 지퍼 플립이나 연결 부위 등의 디테일까지 세심하게 신경을 써 보온성과 방수성이 뛰어나다는 점이 경험자들이 하나같이 거론하는 장점들이다.

### 가볍게 시작된 걸음이 오래갈 수 있다

조선 시대 여인들의 머리장식이 한창 사치스러웠을 때 가체의 무게만도 3kg이 훨씬 넘었다고 한다. 1953년 세계 최초로 에베레스트에 오른 뉴질랜드 탐험가 에드먼드 힐러리가

사용했던 산소통 무게는 20kg이 넘었다. 로마 제국 시대 군인들의 갑옷 무게는 30kg, 한국전쟁 당시 미군의 짐을 날랐던 한국인 노무자들이 지게로 한번에 져야 했던 무게는 45kg이었다. 평지를 가기도 버거운 무게를 짊어지고 어떻게 전쟁을 하고 산에 올랐는지 지금 생각하면 신기할 정도다.

평소 생활에서조차 자꾸만 무게를 덜어내고 싶은 것이 현대인의 마음이다. 유행가 가사처럼 “등이 훨 것 같은 삶의 무게”에 이미 지친 사람들에게 휴식을 위한 아웃도어 활동에서 또 무거움을 감당하라는 것은 가혹한 일이다.

사람을 만나도 긴장 없이 마음이 홀가분해야 관계가 오래가듯, 무슨 일이건 그 일을 할 때 마음이 가벼워야 즐겁게 오래 할 수 있다. Light & Fast, 아웃도어 제품은 진화하고 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동네 마실 가듯 가볍고 부담 없이 길을 나설 수 있도록, 아웃도어 브랜드들의 기술 경쟁은 계절이 바뀔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01. 총 무게 1.65kg인 몽벨의 초경량 텐트, 스텔라릿지. 디테일에 세심하게 신경을 쓴 제품으로 플라이(왼쪽)와 함께 사용하면 강한 비나 눈에도 버틸 만큼 방수성과 보온성이 뛰어나다. 02, 03. 세계 최초 초경량 셸 소재인 7D 원단을 사용한 몽벨의 여름용 윈드 재킷. 한 손에 쏙 들어가는 콤팩트한 패키징 사이즈로 휴대가 간편하며 발수 기능이 뛰어나다. 04. 고어텍스 팩라이트 셸을 사용해 100% 방수·방풍 기능을 자랑하는 몽벨의 12D 고어텍스 재킷. 세계 최경량인 185g으로 등산뿐 아니라 피크닉, 사이클, 골프 등 일상적인 야외 활동에 모두 적합하다.



# 이곳에서 여행이 시작된다 - 도보 여행의 모든 것, 워오펙



사진 제공 : Peak Performance

글 편집부, 사진 김경수

바야흐로 걷기 열풍이다. 이른 아침에도, 늦은 밤에도,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 혹은 다이어트를 위해 걷는다. 재미난 건 피트니스 센터의 러닝 머신 위에서도 이젠 뛰는 사람보다 걷는 사람이 더 많다는 사실이다. 인터넷에는 걷기 관련 정보를 주고 받는 커뮤니티들이 빼곡하다.

제주도 올레길의 대성공 이후 지리산 둘레길이며 서울 성곽길이 열렸고, 지역마다 속속 크고 작은 규모의 산책길들을 개발해서 발표하고 있다. 외국 길들도 인기라서, 올레길의 모티프라 할 수 있는 '카미노 데 산티아고'를 비롯해 해외 유명 트레킹 코스를 찾아 떠나는 한국인들도 계속 늘어난다. 서점에 걷기에 대한 책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면, 이즈음 걷기가 국민 운동이 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걷기를 인문학적으로 예찬한 책이 있는가 하면, 걷기 여행에 대한 정보를 담은 책, 걷기 여행을 다녀와서 쓴 에세이들도 많다. 한때의 유행인가 싶던 흐름이 점점 더 번져가고 커져간다.

### 걷기, 국민 운동이 되다

사실 걷기란, 직립보행을 시작했다고 전해지는 원인(猿人) 이래 오래도록 인류의 유전자에 새겨진 행동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태어나 약 1년쯤 지나면 걷기 시작하고, 교통 수단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에는 걷기가 인간의 유일한 이동 수단이었다. 그런데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가기 위한 수단 이던 이 '걷기'가 별다르게 툭 떨어져 나와 새삼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쯤 되면 평소 걷기에 관심이 없던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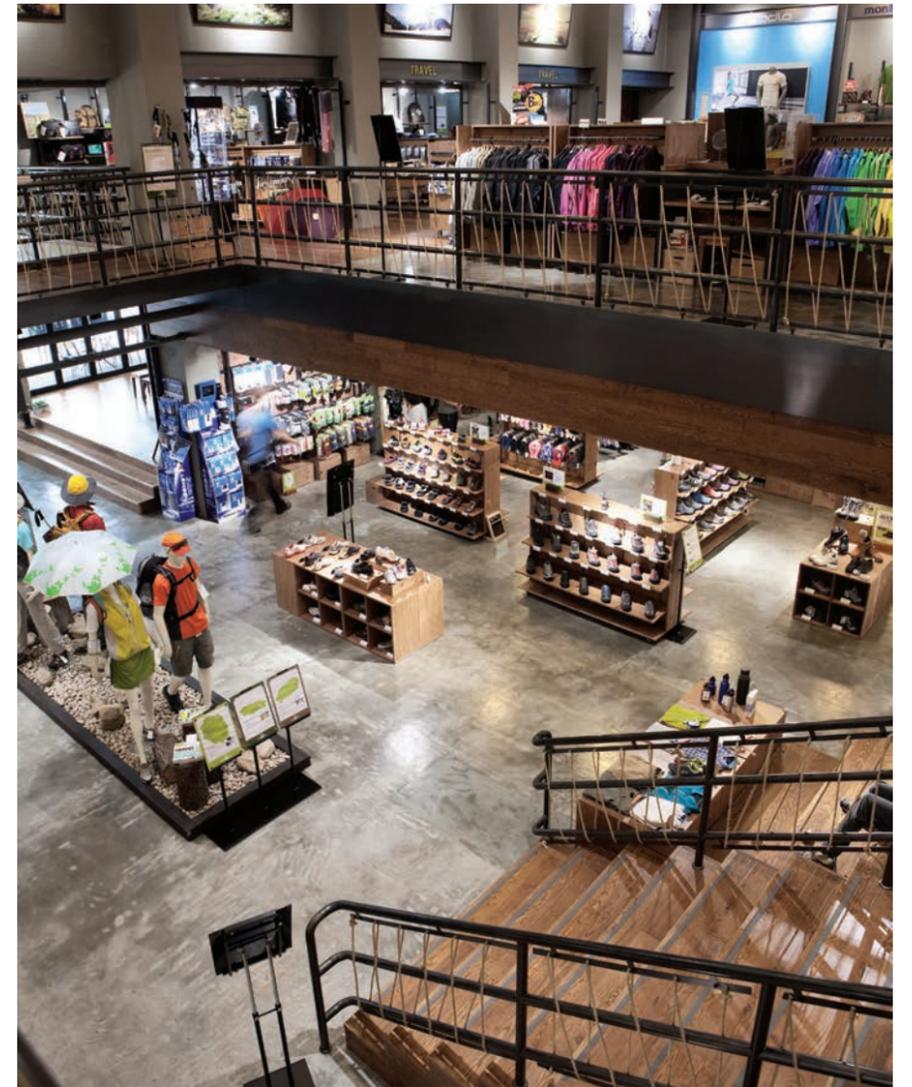
들도 운동 삼아, 아니면 여행으로라도 걷기를 시작해 보려는 마음을 먹을 법하다. 걷기가 뇌졸중이며 심장병 발생률을 낮춘다더라, 걸으면 관절에도 좋다더라, 제일 쉽게 유산소 운동이 되어서 살도 빠진다더라. 이런 기사들을 보며 매일 밤 동네 초등학교 운동장이라도 걸어 보자 결심하는 사람도 많겠다. 걷는 건 그렇다 치고, 제주도 올레길이 그리 좋다면, 지리산 둘레길에 꽃이 피었다는데 하며 꽃구경에 마음 두근거리릴 수도 있다. 집 안이든 일터든 들어앉아 스트레스 지수만 높아가며 인상 쓰고 있으니, 일단 나가서 걸어 보자 마음 먹는 것은 좋고 또 좋은 일이다.

### 나도 도보 여행을 떠나 볼까?

그런데 막상 걷기를 시작하려니 걸리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뭘 신고 걷지? 운동화? 등산화? 아니면 워킹화를 새로 장만해야 하나? 옷은 뭘 입지? 아무 운동복이나 입는 건 좀 그런가? 가만, 물도 챙겨 가야지. 근데 물통은 손에 들고 걷나? 가방을 메야 하나? 어떤 가방? 걷다 보면 지루할 테니 음악도 챙길까?' 동네를 운동 삼아 걸자 해도 챙겨야 할 게 이 정도이니, 걷기 여행이라도 떠나려면 생각거리가 바야흐로 우후죽순이다. 어디로 가나? 산티아고도 좋고 티베트도 훌륭할 테지만 자금과 시간의 압박이 만만치 않다. 그런데 또 국내엔 걷기 코스가 너무 많아 선택이 어렵다.

'멀지 않은 곳으로, 내 체력에 맞는 길은 어디 있으려나? 당일 코스가 좋을까, 아니면 1박 2일? 숙식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지? 텐트를 가져 가나? 숙소는 어디가 좋지? 장거리를 걸으려면 정말 이 신발로 될까? 비가 오면 우산을 쓰고 걷나? 우비가 편하려나? 가만 있자, 여행에서 남는 건 사진뿐인데 카메라도 챙겨야지. 카메라는 그냥 배낭에 넣어 가나? 카메라 가방을 하나 장만할까? 아예 주머니에 쏙 들어가는 작은 디지털 카메라를 하나 장만해? 핸드폰으로 해결하는 건 아무래도 좀 그렇겠지? 참, 여



행 기록을 남기려면 작은 노트랑 필기구도 챙겨야겠네.'

만약 당신이 이런 상황의 어디쯤에 처해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에 '걷기' '도보여행' 같은 검색어를 친다. 하지만 좀 더 쉬운 길이 있다. 그 검색창에 '워오펙'이라는 검색어를 넣어 보는 것이다.



**도보여행자를 위한 국내 유일의 멀티 숍, 워엔톡(WALK&TALK)**

사실 해발 8,000m 고지를 오르거나 암벽 등반을 즐기는 사람들이라면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 그들에게는 옷이나 신발, 등산 장비들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종종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전문 산악인들은 첫째도 둘째도 기능을 따지며 제품을 고르고, 이들을 위한 전문 매장은 이미 많다.

하지만 집 주변에서 운동 삼아 걷기를 시작한 사람, 소박한 걷기 여행을 취미로 즐기는 사람들에게엔 그런 고성능성 제품이 별 필요가 없다. 사실 전문 산악인이라고 해도 집을 나서서 높은 산 아래까지 가는 동안에는 소위 말하는 전문 장비가 크게 필요치 않다. 워킹이나 하이킹, 또 트레킹을 하는 사람들은 험준한 산을 오르는 산악인들과는 다른 기준으로 제품을 골라야 한다. 신발이나 재킷, 가방, 하다못해 우산도 구입 기준이 달라진다. 워엔톡은 바로 그런 도보여행자들을 위해 유무형의 토털 솔루션을 제공하는 공간이다.

**매장 구경이 곧 여행 준비**

워엔톡은 프랑스에서 시작해 스페인에서 마무리되는 '카미노 데 산티아고'의 순례자 전용 숙소들인 '알베르게'를 모델로 삼았다. 단순히 물건을 사고파는 매장이 아니라, 도보 여행자들의 온/오프라인 커뮤니티 공간을 표방한 것이다. 이는 차 한잔 마시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트래커스 라운지'나 세심히 고른 도보여행 서적들이 빼곡히 꽂혀 있는 서가에서 금세 짐작할 수 있다. 도보여행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곳에서 정보를 공유하기도 하고, 도보여행과 관련된 이벤트들을 개최하기도 한다. 여행 작가들의 강연이나 걷기 행사도 수시로 열린다. 고객별로 맞춤형 여행 정보를 제공하는 워엔톡 세일즈 컨설턴트들은 여행 컨설턴트의 역할을 톡톡히 한다.

워엔톡에 입점해 있는 112개 브랜드, 만여 가지의 제품들 사이에 공통점이 있다면 도보 여행에 음으로든 양으로든 필요한 물품이라는 점이다. 멀티 브랜드 숍이라는 이름에서 알



2011년 3월 런칭한 국내 유일의 도보 여행 전문 멀티 숍, WALK&TALK  
 www.walkntalk.co.kr | 오픈 시간 : 오전 10시 30분 ~ 오후 9시 30분 |  
 대치점 : 02-3454-0090 | 입구정점 : 02-3448-2365 | 울산점 : 052-258-2013



수 있듯 워엔톡을 한마디로 요약하기는 어렵다. 전문 아웃도어 신발 브랜드만 27개가 입점해 있고, 스포츠용품 전문 조사기관인 미국 SGI가 선정한 세계 6대 아웃도어 신발 브랜드가 모두 모여 있으니 아웃도어 신발에 관한 한 독보적인 곳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면 이내 국내외 브랜드의 옷과 모자, 배낭이며 텐트 같은 아이템에서 시작해 버프며 스트링 같은 소소하지만 꼭 필요한 것들, 랜턴이며 아웃도어 조리 도구, 해먹이나 손목 시계, 심지어 야외에서 쓰기 좋은 친환경 화장품까지 준비되어 있다.

**전 세계에서 호명된 내공 있는 브랜드들**

워엔톡의 특별한 재미 중 하나는 대중화된 제품보다는 마니아들 사이에서 명성이 높은, 이름만으로도 반가운 해외 브랜드를 만날 수 있다는 점이다. 스웨덴의 신개념 아웃도어 브랜드 피크 퍼포먼스(Peak Performance),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기능성 이너웨어 브랜드 오들로(ODLO)도 워엔톡을 통해 국내에 론칭했다.

참고로 문구용품에 열광하는 사람들이라면 이곳에 구비된 노트며 필기구에 주목하자. 워엔톡 머천다이어저(MD)들이 어떤 기준으로 어떤 수준의 제품을 선택하는지 그 조그만 소품들로도 금세 미루어 알 수 있다. 비단 걷기 여행뿐 아니라 교통편을 활



용하는 간단한 여행이나 출장용품도 두루 갖추고 있으니, 물건 구경하다 보면 시간이 어느새 훌쩍 흐른다.

여행은 언제 시작되는 것일까? 누군가는 비행기 티켓을 사면서, 누구는 대문을 나서면서 여행이 시작된다고 한다. 꿈꾸고 계획하는 순간부터 여행이 시작된다고 말하는 이도 있다. 그러나 당신의 여행이 만약 다른 것이 아닌 도보여행이라면, 그 여행은 당신이 온/오프라인의 워엔톡 숍을 들어서 는 순간부터 시작된다. 그곳에서는 당신이 도보여행을 꿈꾸고 계획하고 실제로 준비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가능하다.

LS



LSpartnership®으로!  
**다함께! 미래로! 세계로!**

더 큰 목표, 더 큰 성과를 만들기 위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신뢰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LS의 진정한 파트너 정신입니다

함께하여 더 큰 가치를!



## 보보담 2호에서는

‘길 위의 학교’가 강원도로 떠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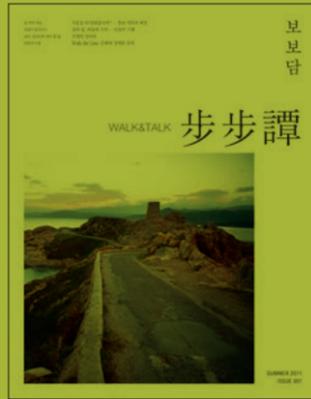
고려 때 사람 안축은 관동 여행에 대한 기록을 처음 남긴 이입니다. 경치가 좋은 관동 지방을 여행하고 남긴 시와 기문 같은 글들이 문집 『관동외주』에 남아 있습니다. 안축 이후 수많은 옛사람들이 관동을 여행하며 기록을 남겼고, 오늘날까지 이 지역은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는 여행지입니다. 안축의 여정을 따라가며 관동 지방의 자연과 건축 문화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마음이 움직이다’는 습지를 찾아가려 합니다.

흔히 습지를 ‘지구의 허파’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알면 알수록 습지는 지구와 인간을 위해 허파 이상의 역할을 하는 기특한 곳입니다. 꼭 람사르 협약을 거론하지 않아도, 지구 온난화와 환경 파괴에 밀려 사라져가는 습지가 지금 우리의 관심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물이 고여 축축한 곳’이 아니라, 그 안에 수많은 생명을 따듯이 품어 키우는 습지의 다양한 얼굴을 만납니다.

‘공부, 평생토록 해야 할 일’에서는 여행을 생각합니다.

요즘의 여행은 여가에 가깝습니다. 몸과 마음의 스트레스를 벗어던지고 또다시 새로운 일상을 시작하기 위한 재충전의 시간인 것이지요. 하지만 옛날에는 조금 다른 의미의 여행이 있었습니다. 동양에는 주유천하(周遊天下)라는 개념이, 유럽에는 대여행(le grand tour)이나 교양 여행(die Bildungs-Tour)이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같은 듯 다른 듯, 지식인들이 견문을 넓히고 교양을 쌓기 위한 여행이었습니다. 공부를 위한 동서양의 여행을 보면서 오늘날의 여행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표지 사진 제공 :  
Peak Performance

등록번호            용산 바00030  
등록일자            2011년 6월 27일  
                              ISSN 2234-1102

주간                    2011년 여름호(통권 1호)  
발행일                구자열  
                              2011년 7월 22일

기획·편집·디자인    I'll 아일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박용준  
                              편집—조윤주, 진용주  
                              디자인—성재혁

사진                    어린 스튜디오  
                              포토디렉터—어상선  
                              어시스턴트—주성모, 이정규

출력·인쇄            현진크리에이티브



步步譚

